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일시 : 원기107년(2022) 11월 4일(금)~5일(토)

장소 :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



인사말

원불교는 이제 3대를 마무리하고 4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반백년을 기념하는 순간까지 어느 종교보다도 눈부신 교화성장을 해 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 이후 초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뎌지고 교도수의 정체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교단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교단의 외형적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고, 다른 종교들의 정체 현상을 비교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분위기도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대종사님이 교단을 열면서 호대하게 펼쳐주신 기본 정신이 약해졌고, 바깥세상의 흐름도 사람들의 정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4대 제1회를 맞아 대종사님의 원대한 정신을 회복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크게 전환하려는 뜻을 담아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가치를 다시 들고자 합니다.

그런 적극적 생각을 이끌어 낸 데는 교단 어른들이 내놓으신 '사오십년 결실, 사오백년 결복'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백년에 꽃을 피워 그 이후 법의 종자들을 단단히 해 오는 기간을 겪으면서 또다시 반백년이 흐른 셈입니다. 이제 희망찬 4대를 맞아 그렇게 단단해진 법 종자들이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대종사님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전체를 거의 모든 수준에서 활짝 열어 ('교단을 새롭게') 세상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 나가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노력을 펼쳐나가서 미래에 다가올 교단 사오백년 대에는 세상의 모든 곳에 대종사님의 법음이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결복의 날을 이루리라는 꿈을 꾸어 봅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서는 4대 1회를 열어가는 비전과 그 비전에 입각한 중점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만, 다가오는 원기 108년에는 그런 중점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핵심과제 및 실천과제들을 추출해서 그 중간중간에 교단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원기 108년에는 교단 모든 구성원들이 저희 4대 1회 설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산 김도훈 설계특별위원장



목 차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I. 요약보고	03
II. 종합보고	17
■ 원기106년 설계기획위원회 활동 보고(원기106년 총회 자료)	19
1. 경과보고	20
2. 환경분석	23
3. 설계기획위원회 및 중앙교의회/교도회장 과제 제안	25
4. 106년 설계기획위원회 최종 제안 의제	30



목 차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 원기107년 설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원기107년 총회 자료)	31
1. 경과보고.....	33
2. 교단 내·외진단.....	43
3. 문제정의.....	59
4. 설계비전 수립(안).....	85
5. 주요목표 수립(안).....	91
6. 핵심의제(과제) 수립(안).....	97
7. 108년 설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101
8. 설계특위, 미래세대에게 듣다.....	103



109 — 120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109 — 120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I. 요약보고

■ 목적

교단 경륜과 제3대 제1·2·3회 설계 구성 및 정책 수립 방식을 전면 검토하고, 특히 제3대 제3회(원기97년 ~ 원기108년)의 설계와 평가를 통해 계승과 발전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원불교의 미래와 교단적 가치 창출을 통한 교화·교육·봉공·복지의 질적 성장과 사회·세계의 기여와 공헌을 이룰 수 있는 교단의 청사진으로서 제4대의 전망과 제4대 제1회 설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추진 방향

총 3단계의 진행으로 1단계 설계특별위원회 구성 준비로 “설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단 내·외의 전반적인 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2단계는 “설계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설계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상 의제”와 “설계 계획의 기초 방향” 등의 사항을 참고하여 제4대 제1회 설계에 필요한 “비전”, “주요목표”, “핵심의제” 등을 수립한다. 3단계에서는 교단 정책 수립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시나리오팀” 구성과 함께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과 정책의 실행력 제고로서 실천과제, 평가척도, 정책 모니터링, 시행제도 등, 그 기반을 마련한다.

■ 추진 기본 구성

□ 비전표어

- 제4대 제1회(원기109년~120년)동안 교단 전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교단적 가치와 정체성이며 미래의 모습으로서 주요목표와 핵심의제(과제)를 관통하는 구심점

□ 주요 목표

- 설계 수행의 계획에 필요한 원칙과 특정한 방향설정으로서 교단 3대(교화, 교육, 봉공·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교화 현장 중심의 교구·교당, 교단 정책을 수반하는 교정원, 교단 외 대사회 여러 정책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호 관계를 통해, 교단 전 구성원의 개인의 삶과 교단의 질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루고자 하는 기준의 집약

□ 핵심의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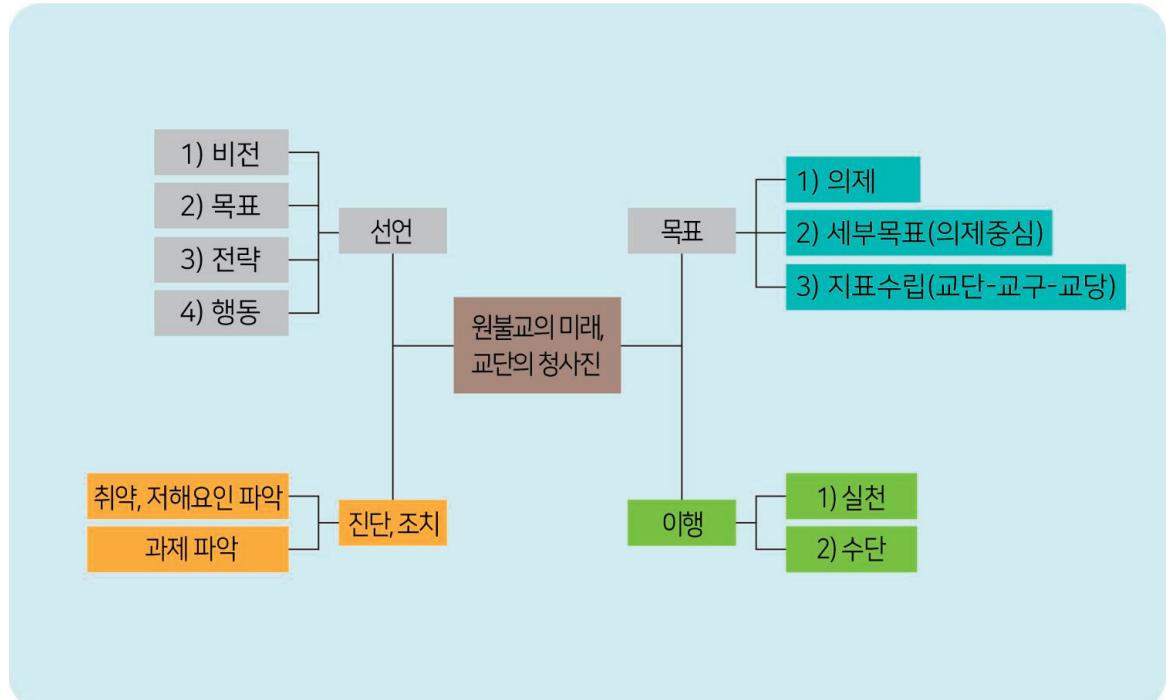
- 교단과 전 구성원이 12년 안에 반드시 도달하기 위함이며, 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종 또는 최우선의 과제로서 교단의 현안 문제 진단을 통한 문제정의로 질적성장이 가능하며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이행의 중심 과제

□ 실천과제(세부과제)

- 주요목표를 이루고 핵심의제(과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 과제로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합한 내용과 도달 지표를 통해 교단의 질적 성장에 기반이 되는 현실과제

2

제4대 제1회 설계 추진 체계



가) 원기106년 설계기획위원회의 설계 의제 제안

① 원기 104년~106년 재가·출가 설문조사 도출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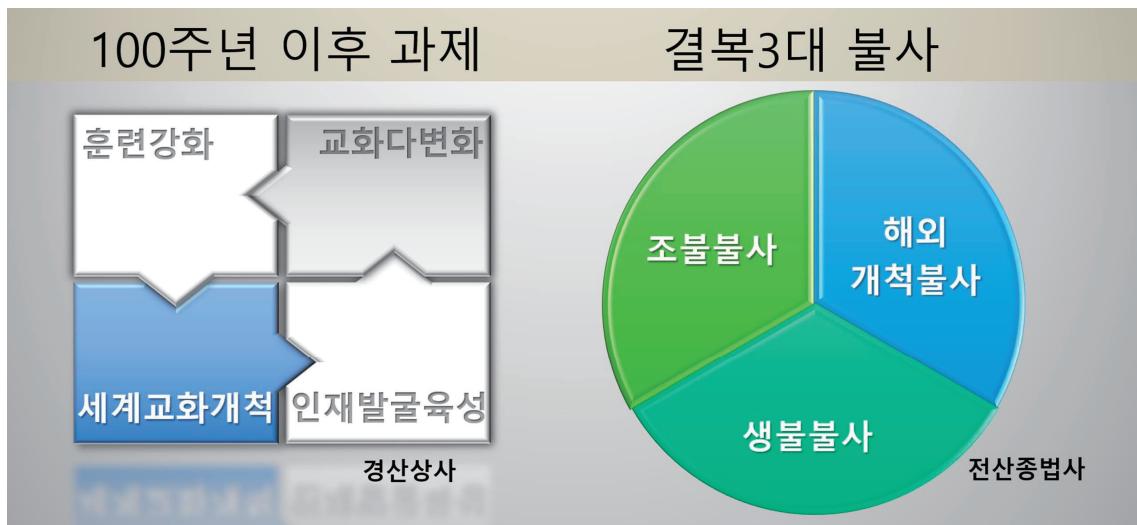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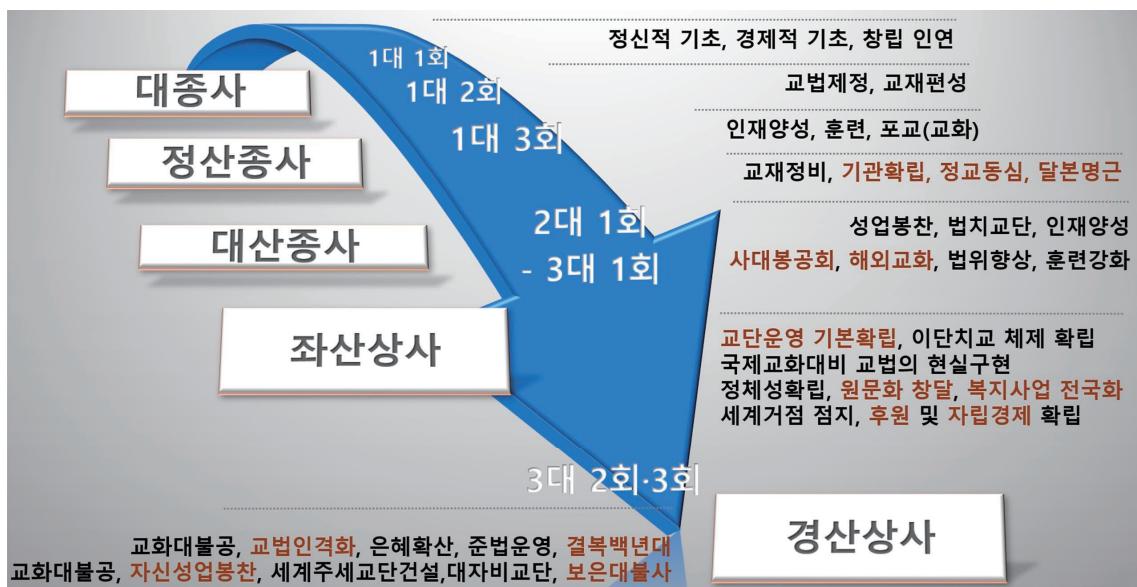
재가		출가	
1	전무출신 종합관리	1	전무출신 종합관리
2	약세교당 통폐합	2	출가 교역자 인사제도 개선
3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3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4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4	약세 교당 통폐합
5	법회 방식의 개선	5	법회 방식 개선
6	4차 산업시대 교화모델 개발	6	젊은 교무 교화 기회 부여
7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7	법위사정제도 개선
8	생애주기별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8	출가 교역자 역량 강화
9	교화중심 법제정비	9	수위단회 규정 개정
10	전무출신 훈련 강화 / 노후 복지 개선	10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예비교무 교육 내실화 / 교화인사시스템 혁신

②106년 기획위원회 설계의제 최종제안



나) 설계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의식과 정의

① 교단 경륜과의 관계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② 교단 설계와의 관계



다) 원기107년 설계특별위원회 설계 추진 구도



원기 106년 설계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의제를 원기107년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1)전무출신의 정체성, 2)재가교도와 교화, 3)원불교의 대사회화와 세계화라는 큰 주제로 집약하여 문제정의, 비전 및 주요목표, 핵심의제를 논의함.

4

제4대 제1회 설계도 (안)



5

비전 표어(안)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① 회복(교단과 사회의 '성찰과 치유')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하시고 원불교를 여신 지 10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잊히고 퇴색할 수밖에 없는 교조의 근본정신을 돌아보고, 개교의 동기와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기본 교리에 바탕한 원불교 창립정신과 교법정신을 회복하여, 안으로 교단의 구성원들은 실다운 신앙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얻고 밖으로 인류사회는 물론 모든 동포의 치유와 안정에 앞장서는 원불교로서 일원세계 건설의 역할을 다한다.

② 전환(교단과 사회의 '변화와 대응')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류사의 거대한 변화를 통찰하시어, 이미 100여 년 전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어를 선포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종교 혁신 방안을 제시 하시어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구현할 원불교를 창교하였다. 지금의 우리는 이와 같은 대종사의 창립정신과 교법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혁신과 전환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시대에 걸맞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하여 상생과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간다.

③ 교단을 새롭게(실천- 주요 목표와 핵심과제)

교단은 성장주의와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개교의 동기에 기초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탈종교적 사회문화 속에서 새로운 종교적 가치를 세워야 한다. 원불교 신앙과 수행으로 전 교도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생활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스승님과 교법의 가르침에 따라 전 교도가 동참하여 미래 변화에 도전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환경과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간다.

④ 세상을 이롭게(실천- 주요 목표와 핵심과제)

교단은 일원세계주의를 바탕으로 원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기반과 제도를 확충하여, 한국사회와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원불교적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일원상의 진리를 원칙으로 편향과 극단을 배제하고 공정과 중도의 심법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에 무아봉공의 자세로 임한다.

주요 목표(안)

1. 교법 정신 회복
2. 교화구조의 대변화
3. 세계교화기반 확충
4.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5. (혁신위원회 주요 과제 중)

가) 교법정신 회복

교단의 전 교도가 훈련과 교육을 통한 신앙·수행 체제 정립과 역량 강화 및 관리로 일상에서 교화단과 마음공부로 삶이 변화하도록 실질적·활용적인 교법실천 정착.

나) 교화구조의 대변화

미래 시대를 위해 자립적·자치적 교단 조직 및 교화구조의 개선과 미래형 교화환경 및 다양한 모델 구축과 제도 마련 그리고 미래세대의 인재육성과 활용.

다) 세계교화기반 확충

원불교의 세계화 정립으로 미국총부 안정화 및 유럽총부 출범의 도모와 세계교화거점 마련, 세계교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제 구축과 세계적 인재양성, 그리고 원불교학의 세계화와 열린 국제문화에 대비.

라)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사회적·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원불교적 해법 제시와 이를 위한 인식강화로써 지속 가능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각종 단체를 활용한 실천 운동 전개

핵심의제(과제)(안)

1. 교법정신 회복

- 1) 정기·상시 훈련을 통한 신앙·수행의 정체성 확립
(수준별/세대별-생애주기별/집단별/지역별 실질적 훈련 문화 조성과 적용)
- 2) 훈련과 교회단 연계의 제반시스템 마련과 이를 통한 재·출가의 공동체 실현
- 3) 정신개벽·교법실천운동·법위향상운동 전개
- 4) 교육을 통한 체계적 인재 양성 및 관리
(예비교무, 재·출가)

【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정의】¹⁾

- '재·출가의 삶과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1)지금 우리시대의 전무출신의 개념, 2)전무출신 자질과 역량 그리고 교육, 3)전무출신의 삶, 4)교단과 전무출신, 5)재가교도 역할과 권한 그리고 교화활성화 등을 논의함.
- 교화 현장과 예비교무 교육 현장의 차이 문제, 교단이 제공하는 전무출신의 교육·훈련과 역량교육의 한계로 인한 전무출신의 역량과 자질문제
- 교화 현장의 신앙·수행과 교화단 운영 그리고 정기·상시 훈련의 미정착과 비활성화의 문제, 교당 교화 외 사회적 전문성 요구에 따른 역량 또는 역량자 보충 문제
- 신앙·수행 중심의 교화보다, 사업 중심의 교화에 치중하는 교단문화의 한계가 주는 교역자 개개인의 종교성(신앙·수행) 함양 의식 저하 문제
- 전무출신 용금·노후·건강 진료 등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인식과 문화
- 교단 구성원으로부터 부여되는 교단의 공정성과 분배성 문제 — 교단 인력의 선발/관리/활용/평가 등 전체적 관리시스템 부재가 주는 불평등 의식
- 「전무출신규정」의 전무출신 개념과 교무의 사회적 지위로서 직업 허용 등에 오는 겹치 문제, 교무직, 전문직, 봉공직 호칭 단일화 이후의 후속대책(역할, 권한, 책임 등) 문제 등

1)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p.63-69 참고.

【대안 모색】

교단 전 구성원이 교단적 가치로써 좀 더 개인의 삶을 안녕과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정기·상시훈련과 교화단 정착으로 신앙·수행의 정체성 확립, 교법 정신 회복을 위한 실천 운동 전개, 수준별/세대별·생애주기별 등 체계적 또는 단계적 훈련을 위한 신앙·수행 콘텐츠 구축 등 창립정신과 교법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내실화에 대해 논의함.

2. 교화구조 대변화(전환)

- 1) 미래시대의 교회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역량 강화와 활용(관리)
(각종 교화/훈련 정책과 프로그램, 콘텐츠 등)
- 2) 미래시대의 교회를 위한 인재 양성과 활용 및 기관 마련
(연구자·개발자·실행자·지원(봉사)자 등의 인재 양성과 역할 확대)
(재가교역자 양성과 활용 및 재가교도 역할증대, 제도 정비)
- 3) 미래 교회를 위한 교단조직구조 및 제도 개선
(중앙총부조직개편 — 교구자치제(지역교회)제도 개선)
(교구자치제를 통한 미래교화시스템(구조) 구축과 개선)
- 4) 교회다변화 시대의 미래 교회를 위한 구조 및 교화 환경개선과 구축
(온라인 중심의 행정·교화·공동체·소통(정보)커뮤니티, 등)
(열린교당으로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문답·감정·훈련 중심으로의 법회문화개선)
- 5) 미래형 교회 모델 개발과 구축, 교회공동체 구현
(법회문화·협력·협업·지역특성·공동체·생활형 등 다양한 모델)
- 6) 교회재정(경제적) 마련을 위한 대사회활동과 사업 및 후원기관 강화

【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정의】²⁾

- 교단 전 구성원은 미래 교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1)교화활성화를 위한 재가교역자 또는 재가교도, 2)교화 패러다임의 변화, 3)미래교화의 구조와 환경 등을 논의함
- 출가 중심의 교화 한계로 교화활성화를 위한 재가교역자 또는 재가교도 양성과 활용으로 교화

2)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p.69~76 참고.

참여에 필요한 기관과 교육 등 종합관리시스템이 부족

- 재가교도중심의 교화단은 신앙·수행의 공동체 기능보다 조직관리와 운영 목적에 치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의 정기·상시훈련 비활성화로 훈련의 중요성 등 인식부족이 교화와 직접적 연관됨
- 의식과 설교중심의 법회 문화를 미래 시대에 맞는 교화문화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인구 소멸과 교도감소로 인해 교화구조와 조직 및 제도 개선과 환경개선이 요구됨. 교화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교단-교구-지구-교당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교화정책과 행정 그리고 평가 등 교화 관련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코로나19 등 교화다변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교화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콘텐츠 및 모델개발과 적용이 필요함.

【대안 모색】

교단 전 구성원이 교단 참여 실현을 통해 교단 안정과 포용의 장을 만들고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으로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화활성화를 위한 재가교역자 활용과 양성, 미래 교화의 각종 연구와 역량 강화 및 활용, 미래 교화를 위한 조직과 제도 및 환경개선으로 교구자치제 시행, 다양한 교화방안과 모델 구축을 위한 실험과 적용을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논의함.

3. 세계교화기반 확충

- 1) 유럽총부출범과 세계교화 거점 (개척) 마련
- 2) 미국 총부안정화 및 정비- 행정, 제도
- 3) 세계교화 재정·인적 기반 마련
- 4) 세계교화 기반 마련
- 5) 세계교화 지원체제 마련
(교리 해설-컨텐츠등 개발 및 보급)
- 6) 원불교학의 세계화
- 7) 일원주의 세계운동 전개와 실천
(종교UR, 심전계발훈련, 공동시장개척)

【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 정의】³⁾

- 교단과 전 구성원은 대종사로부터 역대종법사께서 천명하신 일원주의 세계건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구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등으로 1)세계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활용, 2)미국총부의 안정화 및 세계교화거점 확보, 3)국내교화 현장의 세계교화 인식, 4)열린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 교화 등에 대해 논의함.
- 원불교의 세계화로 마련된 미국총부의 독립운영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의 안정화 여부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계화에 맞는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 세계화를 위한 원불교학의 보편화와 세계교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콘텐츠가 필요함
- 국내 교화 현장의 인식에서 바라보는 원불교의 세계화는 직접적인 공감 인식이 부족
- 열린국제화 시대의 다문화를 위한 교화방안 모색이 필요함

【대안 모색】

4.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 1) 대사회적·전 지구적(인류) 문제 해결의 비전 제시와 인식강화
- 2) 대사회적·전 지구적(인류) 문제의 해법 모색 연구 활성화
(원불교적 교리 해석 등)
- 3) 대사회적·전 지구적(인류) 문제의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모색
(콘텐츠-원불교적 신앙수행+윤리도덕 결합-일원의학 등 프로그램, 마음공부의 사회화 등)
- 4) 공존·환경·봉공운동, 천지보은운동, 은혜심기·새생활운동 등의 전개와 실천

사회적 국제적 연결 속에 원불교의 지향이 '일원주의 세계건설'이라는 대종사의 천명을 통해 미국 총부 독립운영을 위한 협력으로 미국 총부 행정 및 제도 안정 도모, 원불교학의 세계화 구현, 유럽총부 출범을 통한 세계교화거점 마련, 세계교화를 위한 재정·인적의 기반과 지원체계 그리고 국제적 교화콘텐츠 마련, 일원주의 세계운동의 다양한 실천과 전개, 다문화(가정) 교화정책 추진 마련 등을 논의함.

3)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p.68~75 참고.

【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 정의】⁴⁾

- 사회적·세계적 문제에 대해 교단은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 원불교의 교화 활동에 왜 필요한 것인지,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의식을 통해 1)대사회운동의 정체성, 2)미래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3)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원불교 인식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사회운동과 전 지구적 운동이 교세의 확장운동으로 가기보다 종교 이념의 보편적 이행으로서의 역할 또는 참여로 접근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단 4대 단체(봉공회·청운회·여성회·청년회) 운동의 지향점이 지역사회 교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세 확장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기여의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 대사회 또는 전 지구적 교단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교학의 보편화와 연구가 필요하며 4대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 또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대사회운동과 전 지구적 운동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운동과 차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의 대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연구 및 운동 전개와 함께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원불교 인식강화를 위한 원불교 브랜드화의 홍보가 필요함.

【대안 모색】

- 교단 전 구성원과 교단이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의 안정과 보장은 다시 교단 전구성원과 교단으로 돌아오게 되는 환류 즉 사회연결망은 여러 경로로 영향을 주어 개인-교단-사회-국가-세계의 관계는 결국 교단적 가치 요소와 구조로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대사회적·전 지구적 문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법 모색의 연구 활성화, 실천 방안 모색과 운동 전개 마련 등을 논의함.

4)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p.76~83 참고.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II. 종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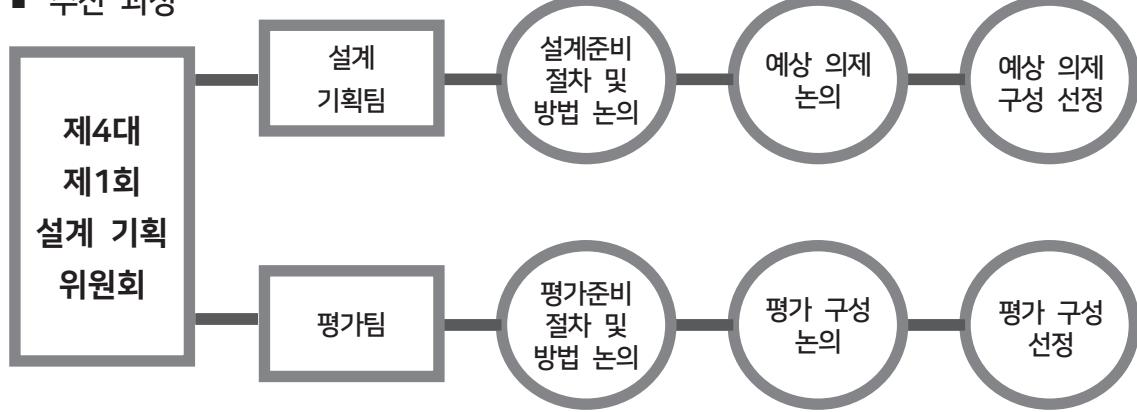


원기106년 설계기획위원회 활동보고

1 단계

“설계 계획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기획위원회 구성과 활동)”

■ 추진 과정



일정 ← 106.02 ~ 106.07 → 106.08 → 106.12
설계 기획위원회 준비 구성

1. 의장단 협의회 보고(105.03.04)

제4대 제1회 설계 계획 필요성
설계 계획의 수립과 방향
설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방향, 실무부서, 활동기간

2. 설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워크숍(105.04.04)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 및 평가보고서 개요
설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분과별 토론 및 발표와 전체 피드백

3. 설계특별위원회 구성 논의(105.04.13)

교단 설계의 전반적인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 모색에 관한 자문
정책시나리오 이론 스터디

4. 제243회 임시수위단회 보고(105.09.08)

추진개요/설계특별위원회 구성/설계추진방향/운영방향

5. 제244회 정기수위단회보고(105.11.09)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 심의

6. 설계기획위원회 구성(106.02.16)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 구성

7. 설계기획위원회 제1차~5차 워크숍

①제1차 워크숍

- 목적: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에 관한 기획 구성 및 방향
- 장소: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②제2차 워크숍

- 목적: 제4대 제1회 설계 기획위원회 활동 방안 모색과 기획분과 설정 논의
- 일시: 원기106년(2021년) 3월 1일(월)~2일(화), 1박 2일
- 장소: 익산 유스호스텔

③제3차 워크숍

- 목적: 1)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기획위원회의 목적(비전과 미션) 공유
- 2) 기획위원회의 운영방침 수립
- 3) 교단 현황에 대한 이해 고취
- 일시: 원기 106년(2021년) 4월 2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익산 총부 법은관 화상회의실, 서울 소태산 기념관 화상회의실 (ZOOM)

④제4차 워크숍

- 목적: 교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미래·한국 사회 변화의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 주제: 미래사회와 한국 그리고 종교
- 일시: 원기 106년(2021) 5월 22일(토), 09:30~15:30
- 장소: 서울교구 한강교당 청소년멀티룸(B1)

⑤제5차 워크숍

- 목적: 설계 의제 발굴과 기획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3대 제3회 정책실행 미비점 및 교단 설계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현안 과제와 미래 준비사항 모색
- 주제: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를 위한 교정정책(104-106) 진단평가와 제언
- 일시: 원기 106년(2021) 6월 12일(토), 09:30~16:00
- 장소: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8. 교단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 목적: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의제 수집(교단 10대 과제)을 위한 재가 교도 설문조사
- 대상: 중앙교의회 의원(원기 105년 기준) 및 교당 교도회장
- 일시: 6/9 - 18 온라인 1차 설문(원기 105년 중앙교의회 의원)
7/7 - 16 온라인 2차 설문

9. 원기106년 총회(총단회·제35회 중앙교의회)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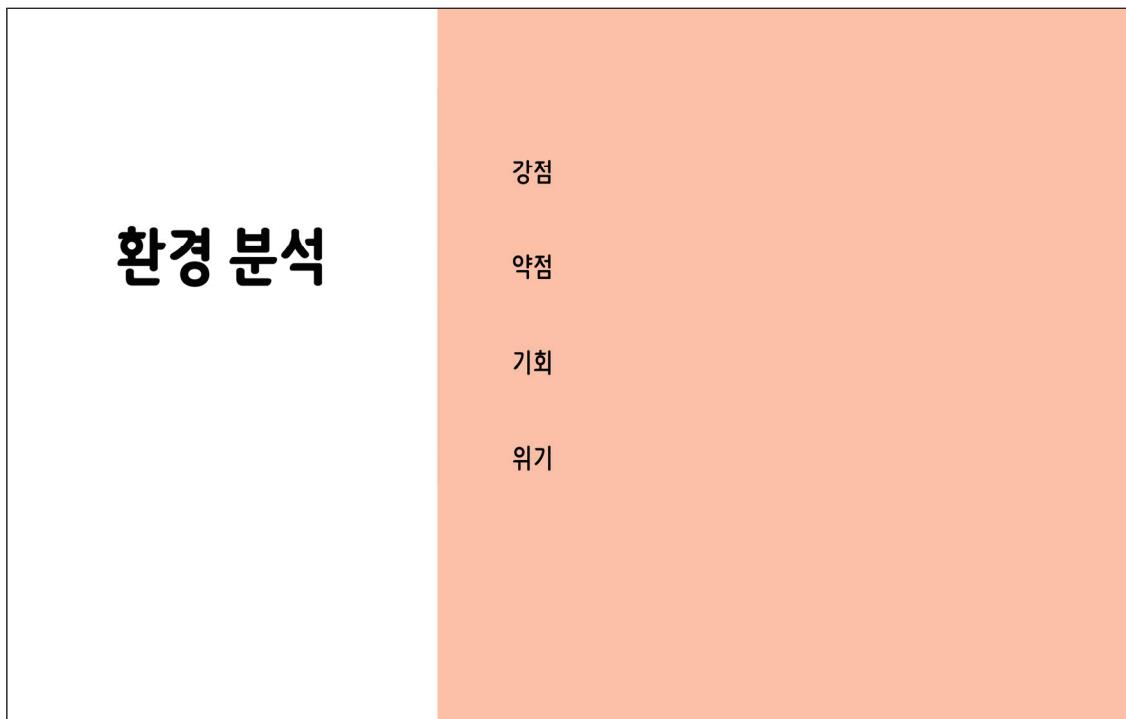
- 일시: 원기106년 11월 6일, 7일
- 내용: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를 위한 준비위원회로서 기획위원회 활동 보고와
교단 내·외 분석을 통한 진단과 설계특별위원회의 향후 설계를 위한 의제 선정 발표

■ 설계 기획위원

번호	이름	소속
1	남궁문 교도	원광대학교
2	최호준 교도	경기대학교
3	김명진 교도	前국가정책기획위원회
4	김정화 교도	일원법률사무소
5	심기현 교도	숙명여자대학교
6	김상도 교도	한국리츠연구원
7	양명일 교무	원불교 서전주 교당
8	박세훈 교무	원불교 안암교당
9	장진수 교무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
10	윤관명 교무	원불교신문사
11	구도선 교무	동그라미 재활원
12	최명오 교무	원불교 교정원 교화훈련부
13	박화영 교무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사무국

2

환경분석



SWOT 분석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내적 강점

- 교법의 원만함과 현대성
 - ▶ 사은 - 전쟁과 갈등을 해결할 평화의 윤리
 - ▶ 사요 - 양극화 현상을 치유할 사회불공법
 - ▶ 무시선(삼학) -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물질개벽시대의 수행법
- ▶ 도학과 과학의 병진
- 출가교역자의 책임감
 - 출가교역자 교단헌신도 긍정적
- 감사보은의 교법실천
 - 출가교육자 직무/ 생활만족 긍정적
- 교화단과 훈련에 대한 신념
 - 출가교역자의 교화단과 훈련에 대한 신념
- 세계교화의 초석
 - 미국 종법사 파견 및 미국 총부 출범

내적 약점

- 교단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의식
 - ▶ 교단 의사결정구조 경직성
 - ▶ 교단행정의 취약성
 - ▶ 법규/ 제도 미정비
 - ▶ 전무출신 후생복지 미흡
 - ▶ 출가교역자의 인사제도 불만족
- 교구자체적 취약성
 - ▶ 현행 교구제가 교구자치제와 교화활성화에 부적합
- 전무출신 지원자 감소
- 교도/ 교역자 감소
 - ▶ 법회출석수 및 입교수 감소 추세
 - ▶ 청소년 교도수 감소 추세
 - ▶ 신규 전무출신 감소 추세
- 교화단과 훈련의 형식성
 - ▶ 출가교역자 교화단 운영 역량 미흡
 - ▶ 재가 교화단장 역량 미흡
- 교단 경제의 비효율성

외적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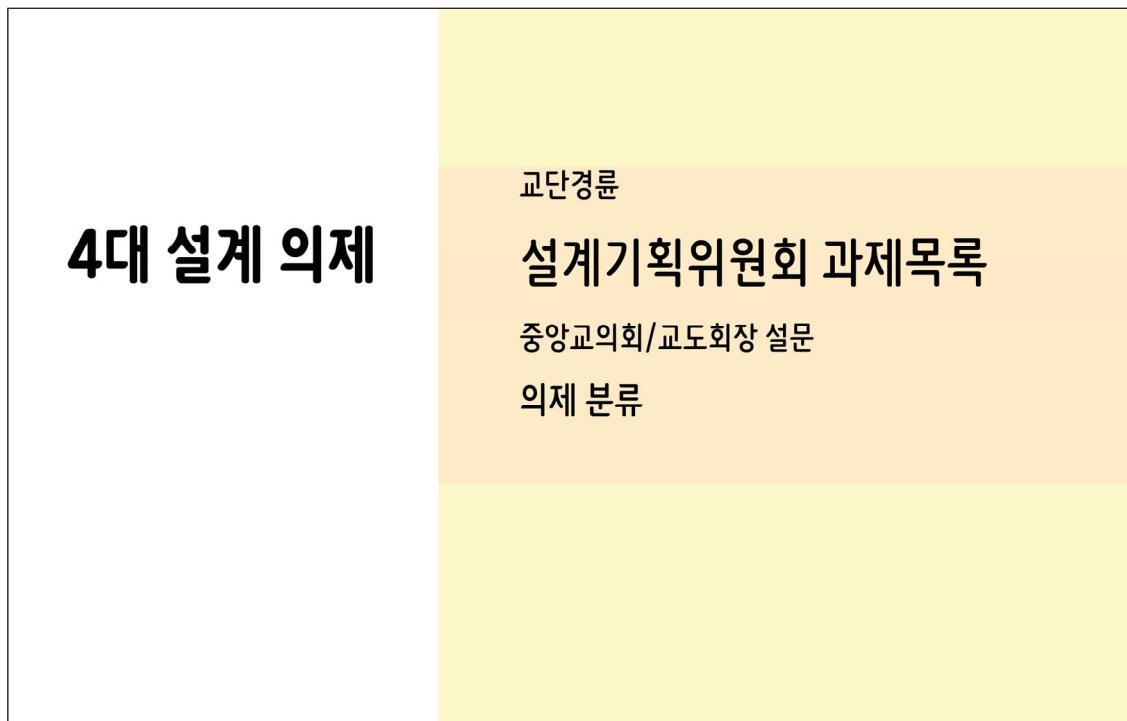
-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 ▶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 ▶ 불교호감도와 원불교 호감도의 연관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공부와 교화 가능
 - ▶ 플랫폼을 통해 역동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화
- 한국의 위상 제고
 - ▶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높아짐
 - ▶ 금강산의 주인으로서 준비
- 남북 관계 개선
 -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형성
 - ▶ 종전선언 가능성 높아짐

외적 위기

-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
 - ▶ 불교의 한 종파 또는 정체성이 모호한 종교로 인식 비율 높음
 - ▶ 원불교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호감도가 떨어짐을 확인
- 탈종교화
 - ▶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거부감
- 코로나19
 -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 ▶ 생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 인구구조 변화
 - ▶ 고령화
 - ▶ 출생율 저하
 - ▶ 지방도시 소멸 및 수도권 집중화
 - ▶ 1인가구 증가

3

설계기획위원회 및 중앙교의회/교도회장 과제 제안



분야	정책 리스트
총무·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별(교화, 교육, 봉공, 재정) 업무 현황 소통 및 공유- 분기별로 정책추진 현황 공유, 정기적으로 협력가능성 실험- 행정업무 최소화 및 자동화, 실험정신의 새로운 시도 지원- 각종 법규와 예법의 혁신: 법규와 예법의 생활화- 법위의 투명성 강화: 공부기준 및 승급과정의 투명성- 새시대에 맞춘 조직의 개편 및 명칭변경- 대교구제 안착을 위한 교구자치 규정 마련- 지자본위의 전무출신 인사규정 마련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분야	정책 리스트
교화·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시대 교화·훈련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 수요자들과 함께 설계하는 교화·훈련 프로세스 기획 - 새로운 미디어(유튜브, 클럽하우스, 페북, 인스타)를 적극 활용 - 교도들이 제작하는 1분·2분·3분 동영상 마음공부 - 강의식 훈련 프로그램 줄이고, 새로운 접근방식 도입 - 원불교 교도 모두가 교사이며, 모두가 학생 - 각 세대에 맞는 차별화된 다양한 컨텐츠 개발 - 3040대, 원불교디지털고인 제작 교화에 활용 - 인터넷 훈련 개발(줌이나 유튜브 활용) - 훈련원 네트워크 활성화: 훈련원 대표홈페이지 운영 - 지자본위의 교육환경: 법위 중심의 교화방안 - 상시훈련을 진작시키는 교당 및 법회

분야	정책 리스트
교육·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술혁명에 관한 융합형 교육 과정 개발 - 대학, 학과, 사회 및 연구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활동 기회 제공 - 교무 용금 지급의 형평성, 투명성, 정당성 공개적 논의 - 원불교학의 활성화: 학문후속세대양성, 일원학술상공모 등 - 인재양성과정 개선: 간사제도폐지 및 교육과정의 일관성 제고 - 현재 있는 인재 교육의 질 높여 활용 - 아시아 지역 인재양성, 우수 인재 영입 전략(재가, 출가)

분야	정책 리스트
재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금 지급은 필수요소로 연구개발 및 미래투자 차원으로 접근 - 보유자산 리스트업, 우선순위 선정, 매각 및 투자 순위 - 교당 및 교구 재정의 투명성, 수입 지출과 자산 보유 현황 공개 - 재정사업 투자 가이드라인 논의 및 합의, 인건비 포함 - 원불교 수입 창출을 위한 전문 경영인의 도입 활용 - 지역별 공동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 원불교 관련 자산의 유통 활성화: 영성과 생태의 조화 - 전무출신 후원 공단의 완성(교단복지를 위한 재정전략) - 대교구제 안착을 위한 교구 자립 기반 확충

분야	정책 리스트
자선·복지 (봉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평화, 복지, 여성 등 분야별 봉공활동의 네트워크 연결 - 모여서 함께 추진하고, 동시에 특화된 영역으로 차별화 전략 - 전무출신(교무) 경제 자립 강화 - 믿을 수 있고 인지도 있는 원불교 자선단체 설립, 홍보 - 초고령화 시대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분야	정책 리스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단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데이터 중심의 교단 미래 분석 예측 기반 마련- 원불교 소통플랫폼 활성화: 출가 및 재가 교도 정기적 의견수렴- 새로운 거버넌스: 칸막이(Silo)에서 소통형 정책 추진- 원불교 온라인 법회 문화 창출: 원양상불, 15분 설법, 명상체조- 의견제출의 활성화 : 공화제도의 실현- 원불교플랫폼 구축 : 모든 자원 및 활동의 콘텐츠화- 여자 교무님들의 복장, 스타일의 현대화- 원불교 고급 실버타운 경기도에 설립 추진

4대 설계 의제

교단경륜

설계기획위원회 과제목록

중앙교의회/교도회장 설문

의제 분류

10대 과제

재가		출가	
1	전무출신 종합관리	1	전무출신 종합관리
2	약세교당 통폐합	2	출가 교역자 인사제도 개선
3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3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4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4	약세 교당 통폐합
5	법회 방식의 개선	5	법회 방식 개선
6	4차 산업시대 교화모델 개발	6	젊은 교무 교화 기회 부여
7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7	법위사정제도 개선
8	생애주기별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8	출가 교역자 역량 강화
9	교화중심 법제정비	9	수위단회 규정 개정
10	전무출신 훈련 강화 / 노후 복지 개선	10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예비교무 교육 내실화 / 교화인사시스템 혁신

의제 분류

1) 교단 혁신

의사결정 구조

-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 수위단회 관련 규정 개정
- 소통플랫폼 활성화

조직 개편

- 총부 및 교구 조직개편
- 행정 전문화/자동화/간소화

전무출신 제도 및 종합관리

- 출가교역자 인사제도 개선
- 출가교역자 훈련 및 역량강화
- 예비교역자 교육 내실화
- 현직 전무출신 후생복지 개선
- 전무출신 노후 복지 개선

교화구조 개선

- 교구자치제 정착
- 교화단과 훈련강화
- 약세교당 통폐합
- 교화중심 법제정비
- 법위사정제도 개선
- 재가교도 교육 및 훈련강화

교화프로그램 개선

- 법회방식 개선
-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 경제 운영

- 산업기간 경영전문화
- 교단의 유류부동산 관리
- 교단 각종 사업회 정비

의제 분류

2) 미래 교화

세계 교화 개척

- 해외 종법사 파견
- 외종부 설립
- 국제종교연합운동 강화

교화 다변화

- 생명평화운동
- 통일시대 교화준비
- 지역사회 유익주는 원불교 복지활동 개발
- 사회적 봉공활동
-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화모델



원기107년 설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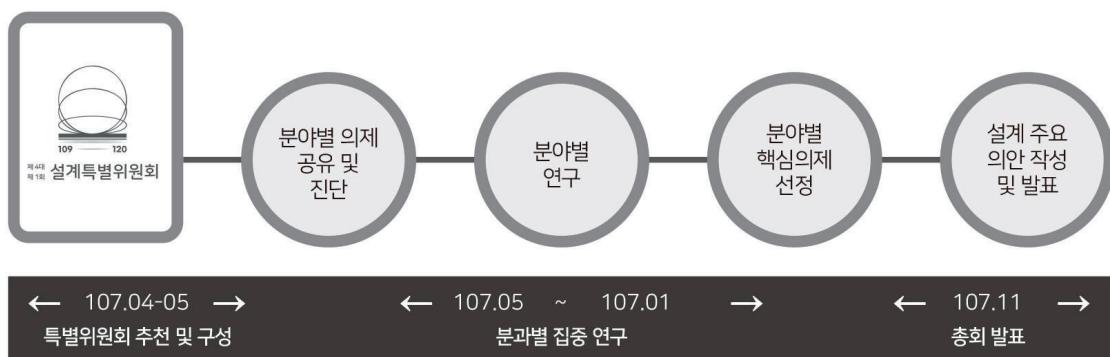
경과보고

1



“설계 초안 수립 및 공유단계(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 추진 과정



1.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추천 논의

- 일시 : 원기 107년(2022) 3월 29일(화), 오후 6시~7시 30분
- 장소 : 줌(ZOOM) 화상회의
- 내용 : 설계특별 기획위원과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모집 논의

2.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 일시 : 원기 107년(2022) 4월 4일(월) ~ 23일(토)
- 내용 :
 - 추천대상 : 미래 원불교의 교화, 교육, 자선복지 등 관심있는 재·출가 교도 누구나
 - 참여방식 : 온라인(원불교홈페이지/E-mail/QR코드 접수), 오프라인(추천서)
 - 활동내용 : - 원불교의 세계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교단의제(교화, 교육, 자선복지 등) 진단 및 제안 연구
 - 미래교단 계획 수립의 작성 참여
 - 추천선정 발표 : 원기 107년 5월 10일(화)

3.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선정에 대한 기획위원 논의

- 일시 : 원기 107년(2022) 4월 26일(화), 저녁 7시~8시 30분
- 내용 :
 - 1)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최종 선정(총 21명) 동의 및 보고의 건
 - 2)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의 방향성
 - 3) 결과 : 추천해주신 분(응답자) 94명, 추천된 분(추천받은 자) 156명(중복제외)

4.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7.05.04, 의장단협의회 상임위원장연석회의)5)

제 안 자 :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훈

원불교 정책연구소장 조인국

「수위단회 규정」 제22조(특별위원회)에 의거하여, 지난 원기 105년 제244

제안설명 : 회(105.11.9) 정기 수위단회에서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제안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 1) 출가·재가로 구성하되 전념하고 실행력 겸비
 - 2) 교정원과의 연계성 고려
 - 3) 원불교 4종 의무 이행자
 - 4) 젊은 연령층 및 지역 고려
 - 5) 교도 외의 전문가의 경우 "자문"으로 활용
 - 6) 원불교의 세계화와 교단의 교화·교육·자선 및 복지에 대한 미래 계획에 관심있는 자 또는 전문성을 갖춘 자
 - 7) 총 21명 위원 선정

5.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임명식 및 1차 워크숍

- 주제 :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임명식 및 워크숍
- 목적 : 교단 설계와 설계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5월 27일(금) 19:00 ~ 28일(토) 11:30
- 장소 :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5) 원기105년(2020) 11월 9일 제244회 정기수위단회 「교단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내용 참고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6.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제2차~ 제9차 워크숍

① 제2차 워크숍

- 주제 : 원불교의 현주소를 보다(교단의 현황과 전망)
- 목적 : 교단의 교화·교육·자선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 목표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6월 10일(금) 19:00 ~ 11일(토) 11:10
- 장소 :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 회의실 및 ZOOM(화상회의)

② 제3차 워크숍

- 주제 : 전무출신의 정체성을 말하다.
- 목적 : 교단 제반 문제 중, 전무출신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쟁점과 이슈로써 개념 정의를 하고 문제 현상을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6월 25일(토) 오전 9:00 ~ 오후 12:20
- 장소 :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③ 제4차 워크숍

- 주제 : 재가 교도와 신도의 사이를 말하다.
- 목적 : 재가 교도와 재가교역자 그리고 교화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하고 문제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7월 9일(토) 오전 9:00 ~ 오후 12:20
- 장소 :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ZOOM 화상회의

④ 제5차 워크숍

- 주제 : 원불교의 세계화와 미래를 향하다.
- 목적 : 원불교의 대사회와 세계화를 위해 교단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사례를 통해 미래 대안을 모색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7월 22일(금) 15:00 ~ 23일(토) 13:00
- 장소 : 만덕산 훈련원

⑤ 제6차 워크숍

- 주제 :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비전 표어 수립
- 목적 : 교단 설계의 방향 수립을 위한 가치로서 슬로건 및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합의도출을 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9월 3일(토) 10:00 ~ 13:00

⑥ 제7차 워크숍

- 주제 :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주요 목표 선정
- 목적 : 교단 설계의 방향 수립을 위한 가치로서 슬로건 및 비전수립과 주요 목표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합의도출을 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9월 16일(금) ~ 17일(토)
- 장소 : 익산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⑦ 공산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

- 목적 : 교단 설계의 방향 수립을 위한 슬로건의 키워드와 한국사회와 세계화를 향한 원불교의 미래가치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10월 1일(토)
- 장소 : 서울 창비 서교빌딩

⑧ 제8차 워크숍

- 주제 :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주요 목표 선정
- 목적 : 교단 설계의 방향 수립을 위한 슬로건 및 비전수립과 주요 목표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합의도출을 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10월 3일(월)
- 장소 : 익산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⑨ 제9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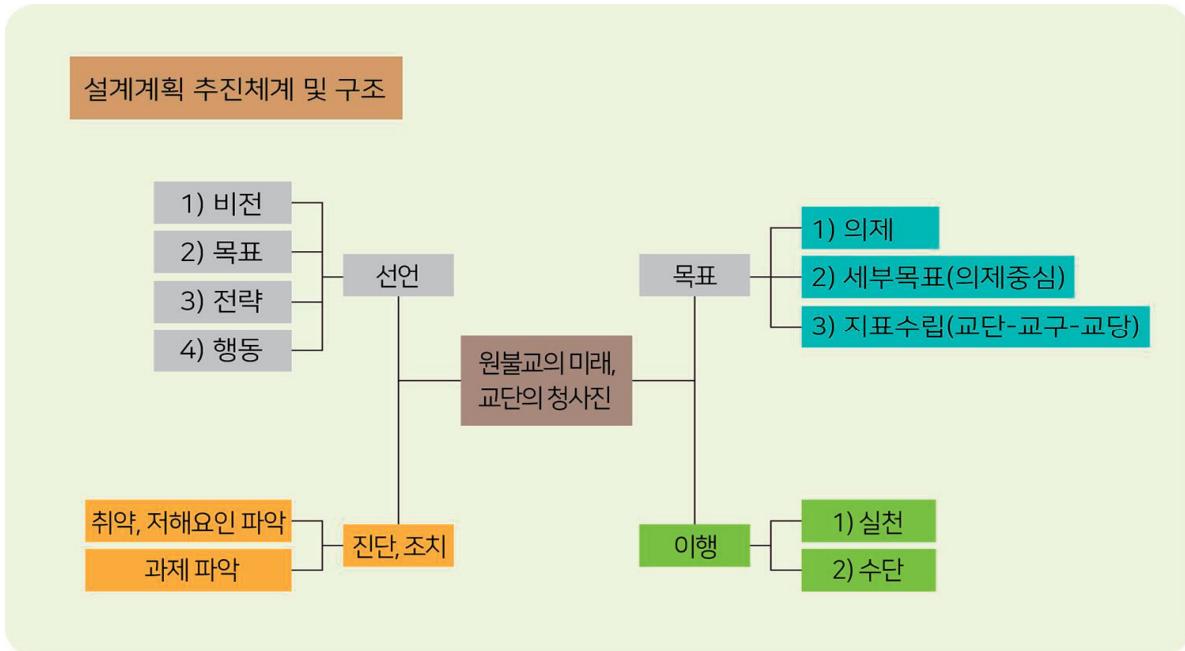
- 주제 :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핵심의제 선정
- 목적 : 교단 설계를 위해 논의되었던 의제 정의와 주요 목표를 통해 핵심과제(의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10월 14일(금), 16:00~21:30
- 장소 : 익산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⑩ 제10차 워크숍

- 주제 : 원기 107년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항 점검
- 목적 : 원기 107년 총회 발표를 위해, 제4대 제1회 설계의 비전, 주요목표, 핵심의제 등 예비 선정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 일시 : 원기 107년(2022) 10월 24일(화), 19:00/11월 1일(화), 19:00
- 장소 : 익산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화상회의【ZOOM】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1) 설계 계획 추진 체계



1. '교단 설계'란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시한 '교단 법계'에 의해, 한 대(代)를 마감함과 동시에 한 대를 시작함에 따라 교단의 성장과 시대적 요청으로 미래 교화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단사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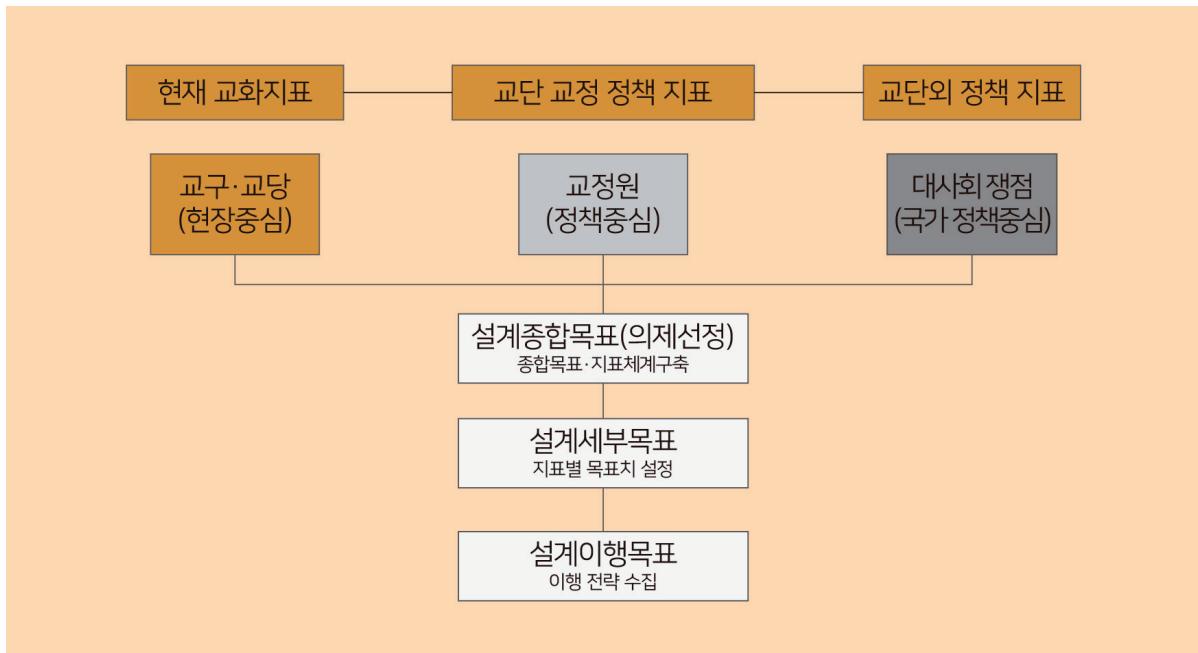
교단은 제3대 제1회·제2회·제3회의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전 목표를 의제로 채택하고 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제4대 제1회도 교단적 사명을 계승함에 따라 발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에 교단 설계를 위해 설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교단(재가·출가) 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향후 교단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교단 구성원들로부터 합의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추진 방향

교단 현황을 진단하고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나,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다루어 목표와 지표를 수립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천 및 수단을 통해 이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추진 구조



- 성격 -

① 기존(교단 제3대 제1·2회·3회)의 설계특별위원회 구성 방식과 설계추진에 따른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기본 계획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목표 및 지표를 수립한다.

②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교화 현장 중심의 교구·교당, 교단 정책을 수반하는 교정원, 교단 외 대사회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 사항 -

③ 원기 107년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설계초안 수립 및 공유단계로서 먼저 교화 현장·교정 정책 지표·교단 외 정책 지표를 점검한다.

④ 원기 107년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점검 사항을 통해 기본(또는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 주요 의안을 선정함에 따라 제4대 제1회 설계 종합목표를 수립한다. 이에 필요한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⑤ 원기 108년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시나리오 단계로서 종합목표에 따른 각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에 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함께 수립한다.

⑥ 원기 108년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세부 목표와 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따른 이행 전략 수립을 세우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3) 설계특별위원회 운영

구분	법명	소속	직위/직장
출가	1 (願)황주원	정토회교당	교감교무
	2 (百)고원주	만덕산훈련원	원장
	3 (東)김동인	교학대서원관	교감교무
	4 (親)김보명	이리교당	주임교무
	5 김성종	경기인천교구	사무국장
	6 이지현	중앙교구 모현교당	보좌교무
	7 이정일	교정원 교화훈련부	차장
	8 구도선	동그라미	원장
	9 이인광	공익복지부	차장
	10 김상훈	교육부	차장
	11 전상현	교정원 기획실	과장
	12 장인국	교정원 총무부	차장
	13 김수련	교정원 교화훈련부	연구원
	14 윤대기	교정원 교화훈련부	국장
	15 황현진	군종교구	교무
재가	16 김경덕	원남교당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원
	17 (泰)김태인	어양교당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교사
	18 이삼성	안암교당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장학사
	19 이여진	강남교당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20 정선희	델리교당	사)한울안운동 사무국장
	21 조세웅	둔산교당	영국 케임브릿지대학교 연구원

- 역할-

설계특별위원회는 교단의 주요 정책과 발전 저해 요인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 기본 목표 수립, 가능 발전 지표 마련, 이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단 내외 협력 및 자문 제공, 교단 구성원들 (재가·출가)에 필요한 정보 보급과 교육 자료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구성-

설계특별위원회의 운영 구성은 '2)추진 구조'에 따라 각 운영팀으로 나누어진다.

- 구분 -

- ① 교구-교당 관계에서 교화 현장 중심의 현장교화분과
- ② 교단 정책 제반 사항에서 중앙총부 중심의 교정원분과
- ③ 교단 외 국가 정책 또는 사회 이슈 중심의 대사회분과

- 임무 -

- ① 원기 107년은 설계 초안 수립 및 공유로서, 분야별 의제 선정을 위해 진단, 연구, 의제 선정, 의안 작성을 한다.
- ② 원기 108년은 정책시나리오 작성으로 세부목표, 이행전략 등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

- 회의 -

- ① (정기회의) 월 2회(2주 간격)으로 회의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의) 설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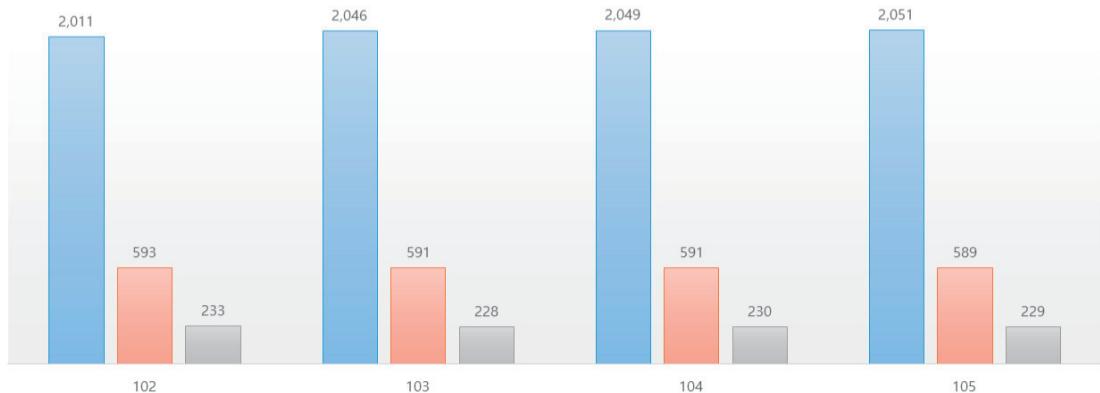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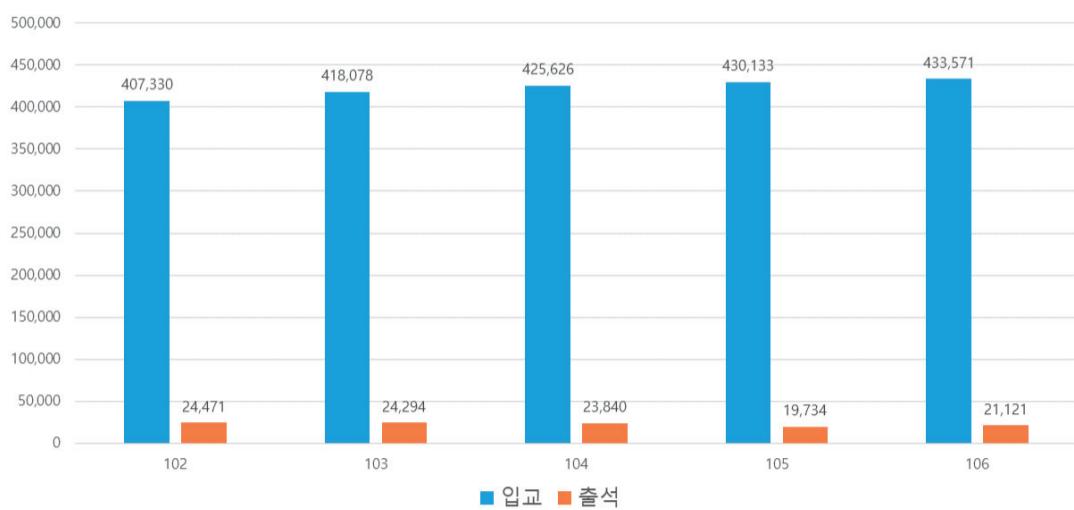
교단 내·외 진단

2

■ 전무출신 ■ 교당 ■ 기관



- 전무출신은 전년대비 3년 증감으로 원기102년 기준 35명, 원기103년 기준 3명, 104년 기준 2명으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됨.
- 교당은 원기102년 기준 -2곳, 원기103년 기준 0곳. 원기 104년 기준 -2곳으로 연평균 1.3곳 정도가 감소됨.
- 기관은 평균 1.3곳 정도가 감소됨.



- 입교증가수는 원기102년 기준 10,748명, 103년 기준 7,548명 104년기준4,507명 감소로 105년에 급격한 하락 추세이며, 교회대상이 집중된 지역으로의 선택과 집중 필요.
- 증감율로보면 1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성장했으나 104년도에는 -30%, 105년도에는 -40%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6) 본 내용은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제2차 모임(2022년 6월 11일) 시, 「정책과 통계로 보는 교단 제3대 제3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양명일 기획실장으로부터 발표 내용 중, 주요 사항만을 수록함.

- 출석수도 원기102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원기105년에 급격한 하락하고 있음. 1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0.72% 104년도는 -1.87%, 105년도는 -17.22%로 출석률이 감소추세며 원기105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함. 1회 이상출석수는 51,976명

교당 및 교도 종합 교화 현황 (원기105년 기준)

	교당 (개)	교무 (명)	입교 (명)	교화 단원수	평균 출석수	관리 교도수	미관리 교도수
합계	589	1,156	4,507	51,894	19,734	136,237	264,352
국내소계	524	1,061	8,706	50,377	19,014	132,509	261,637
해외소계	65	95	588	1,517	720	3,728	2,715

* 교무1인 기준 관리인원은

- 1) 교화단원기준 국내 47명, 해외 16명
- 2) 관리교도기준 국내 125명, 해외 39명
- 3) 출석교도기준 국내 18명, 해외 7명

국내 교당 분포 현황



구분	갯수	비고
교구	13	총부직할 군종 미포함
지구	48	
주교당	524	

- 인구 밀집지역 중심의 교당 운영 고려
- 지구 중심의 교화체계, 교구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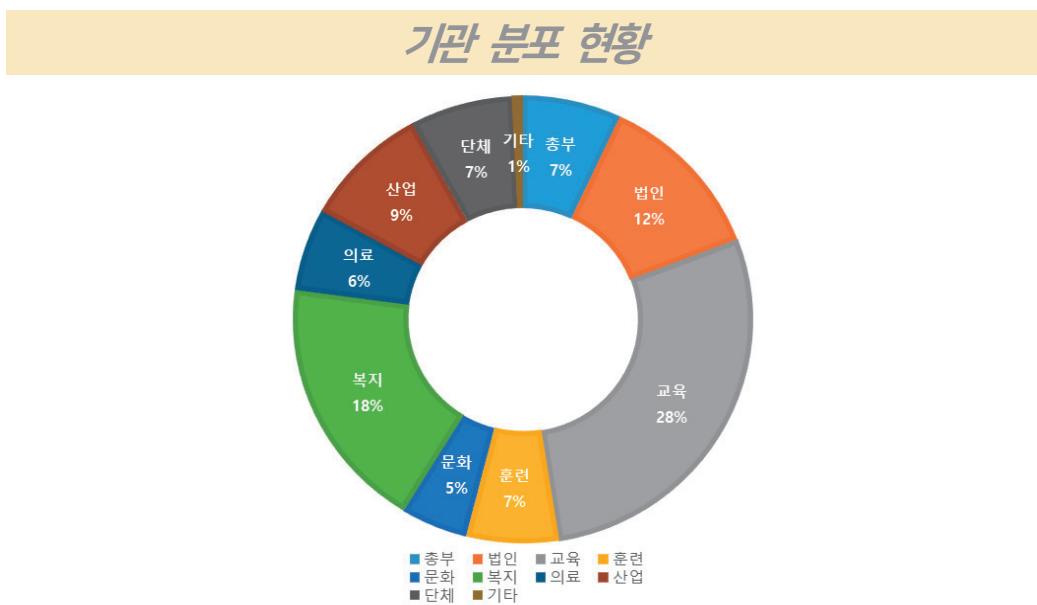
- 군종교구, 총부직할교구를 포함 15개교구 48개 지구와 524교당이 분포
 □ 지구별 평균 11개로 지구 중심의 교화정책 개발과 교당관리
 □ 지구내교당 12개 이상 19개 지구
 10개 이상은 27개 지구 10개 미만은 21개 지구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아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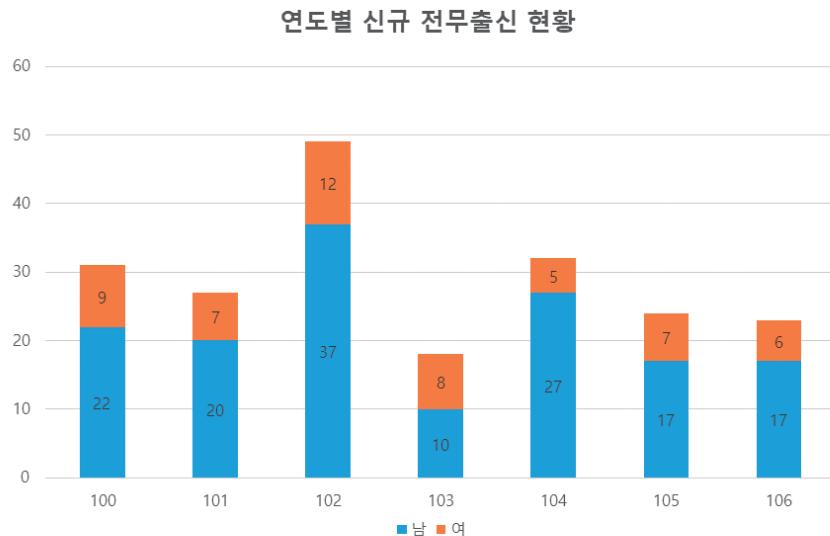
- 25개국 / 6개교구 / 68교당 / 8곳 개척 중(중국2곳, 호주, 인도, 베트남, 태국, 몽고 각1곳)

- 해외는 원기105년 기준으로 미국총부 설립이전으로 총부해외직할교구포함 6개교구 68교당 운영.
 - 8곳 개척 중(중국 2곳, 호주 1곳, 인도 1곳, 베트남 1곳, 태국 1곳, 몽고 1곳)
 - 25개국 분포되어 있으며, 대륙별 거점지 확보



- 교단의 기관은 교육, 훈련, 문화, 복지, 의료, 산업, 총부, 단체 등으로 나누어 운영됨.
 - 이 중 교육기관이 114곳으로 가장 많으며 >복지>산업>단체>총부>훈련>의료>문화의 순으로 분포됨.
 - 교단의 기관운영 상황은 수익이 발생되는 기관운영보다 공익적인 투자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 비중 높음(교육, 복지, 문화분야 법정부담금 사업비 증가 추세, 훈련기관을 통한 수익 발생 미비, 교단의 기관 지원역량의 과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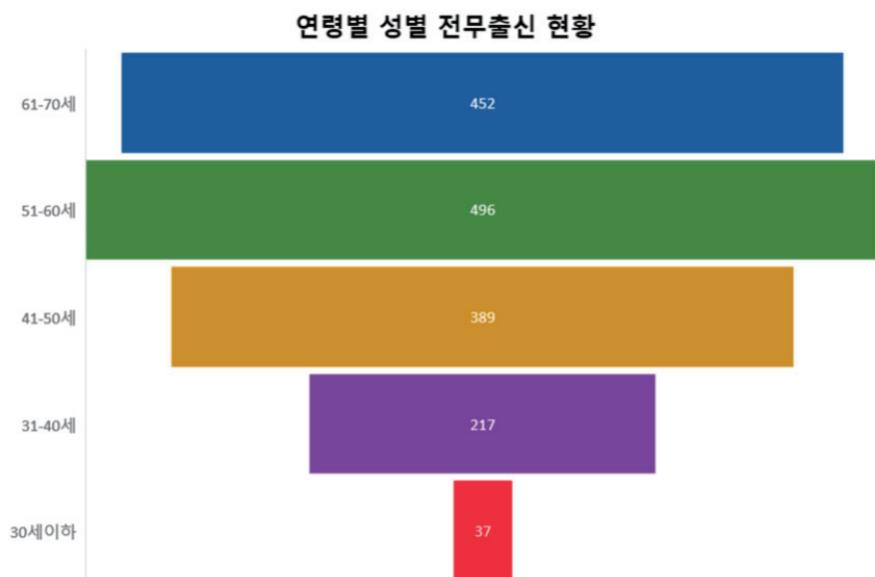
연도별 신규 전무출신 현황



원기99년 이후 신규전무출신년 평균 11%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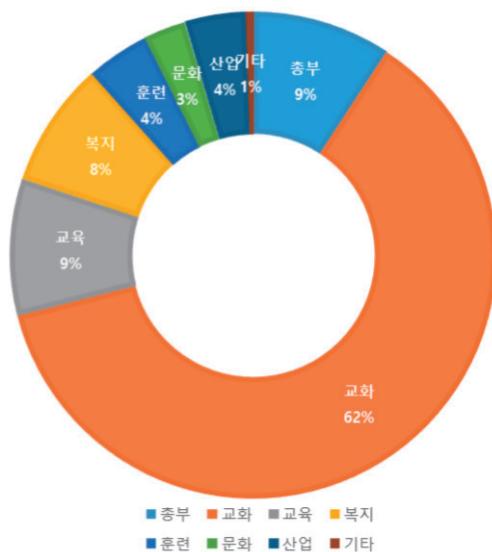
- 원기99년 이후 신규전무출신 배출은 연평균 11% 감소 추세(원기99년 34명)
 - 102년에 유난히 많은 것은 원기96년으로 추정되는데 지원자 수가 많고 휴학생들의 이 해에 복학을 많이 한 이유로 추정
- 이 해에 기간제, 전문직, 봉공직이 10명 출가해서 다른 해보다 많음

연령별 성별 전무출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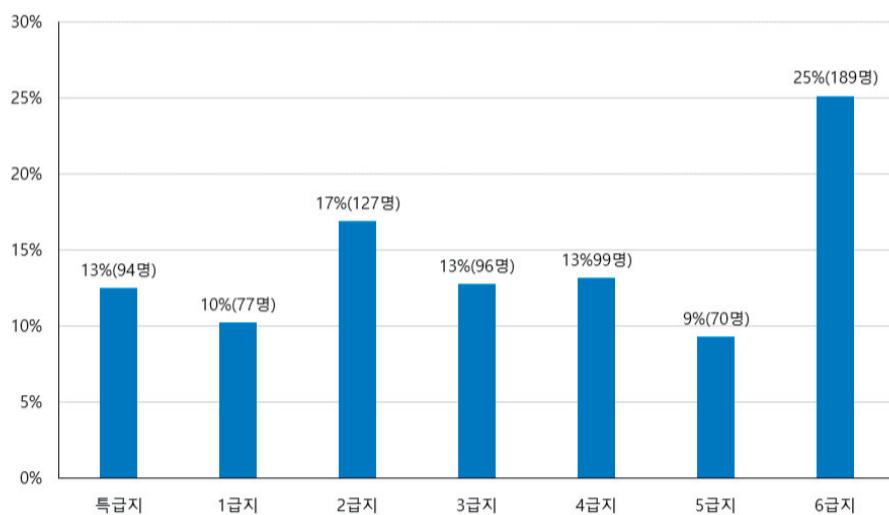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근무지별 전무출신 현황



- 교회62%>총부9%>교육9%>복지8%>훈련=산업4%>문화3%>기타1%
- 교회분야에 인력이 집중되기는 하였으나 교당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5~6급지 약35% 교회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재검토
- 교단 종합관리를 위한 전문연구분야 인력 0%

급지별 전무출신 현황



- 교회분야의 752명의 급지별 전무출신 근무현황
특급지 94명, 1급지 77명, 2급지 127명, 3급지 96명, 4급지 99명, 5급지 70명, 6급지 189명, 합 752명

집무자 퇴임자 비율 예측 (원기 106년 11월 24일 기준)

구분별	원기93년(2008년)	원기106년(2021년)	예측 원기132년(2047년)
집무자	1,514명	1,378명	1,247명
퇴임자	267명	530명	1,244명
비율	5.67 : 1	2.6 : 1	<u>1÷1</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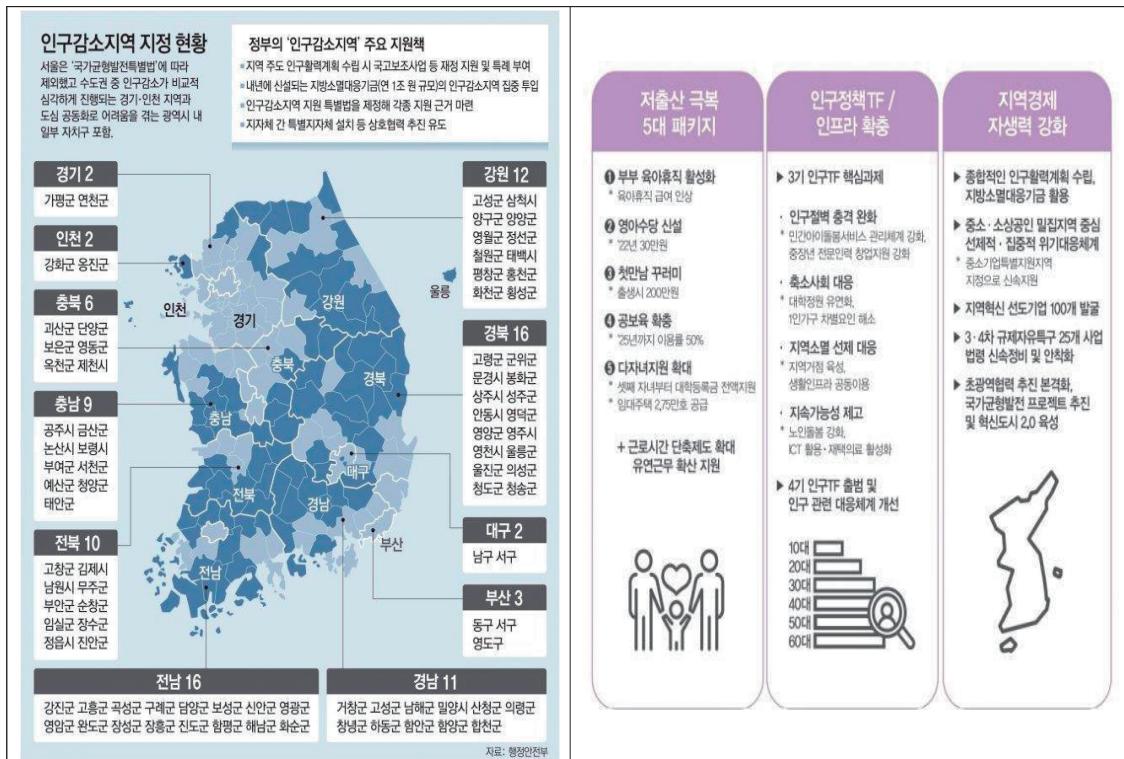
- 집무자, 퇴임자비율
- 과거 5.x : 1 의 구조에서 향후 1.x : 1 의 구조로 변화할 때 집무자의 의무부담률이 높아짐.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

교단외 진단

가) 지방 소멸과 인구 정책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폐려다임의 전환 필요)

1) 기존 인구사회정책을 탈피, 지역발전 정책과 정책 융합 필요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유출)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율 증대 위주의 기존 인구사회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곤란

※ 2000~2020년 기간 동안 시군구의 인구 증감요인 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증감이 음(-)의 관계로 나타남(차미숙 외 2021)

※ 그간 저출산·고령화를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삼았으나, 사회적 감소(유출)가 주요 변수라는 실증 분석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자연적 감소 대응 목적의 기존 인구사회정책의 한계 지적

인구밀도와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보이며,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결국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됨(감사원 2021)

※ 2019년 평균 합계 출산율은 군(1.25명)-시(1.05명)-구(0.82)순이고, 최고는 전남 영광군(2.538명), 최저는 서울시 관악구(0.536명)로 지방의 출산력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음(차미숙 외 2021)

7) 국토연구원(차미숙 외),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세종:행정안전부, 2021; 「지방소멸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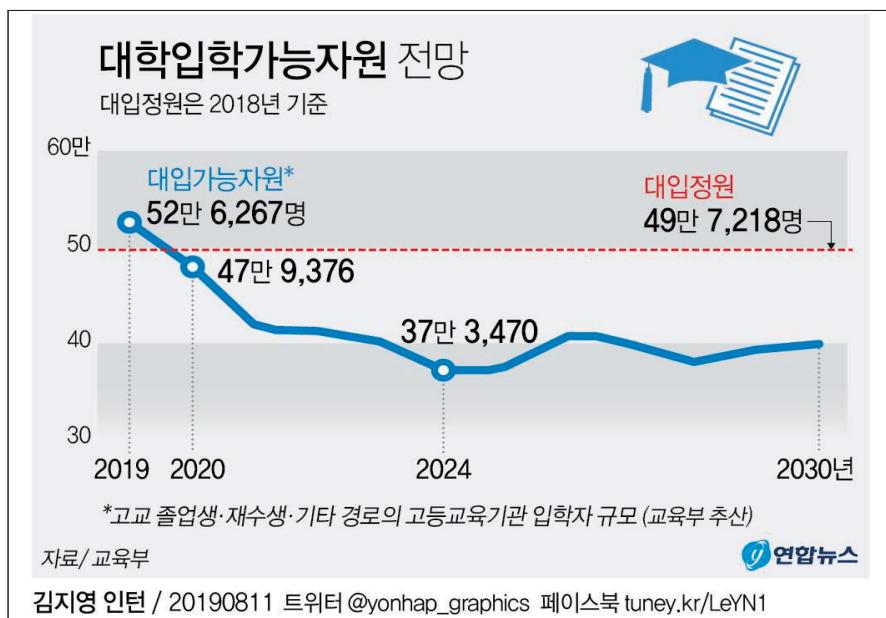
2) 지역주도성 강화와 전략적 연계·통합 추진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지방현장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업사업 추진확대와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인 연계와 통합적 추진 방식 활용이 요구되며, 지방의 주도성 확보가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정책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임

(생각해보기) ■ 지방소멸과 인구정책에 따른 미래 교단의 교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사회적 경쟁을 완화 또는 치유하는 교화정책 = 개인의 행복 여부 = 원불교 교화 갈림길
- ※ 사회적 경쟁 완화 =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교화의 연계성과 해법 찾기
- 지방의 특수성에 따른 지자체의 전략 정책추진 확대—지자체 정책과 연계된 교구자치제에 따른 교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수 요건이 될 전망
- 수도권과 지방 문화간 특성에 맞는 교화정책 필요

나) 청소년 교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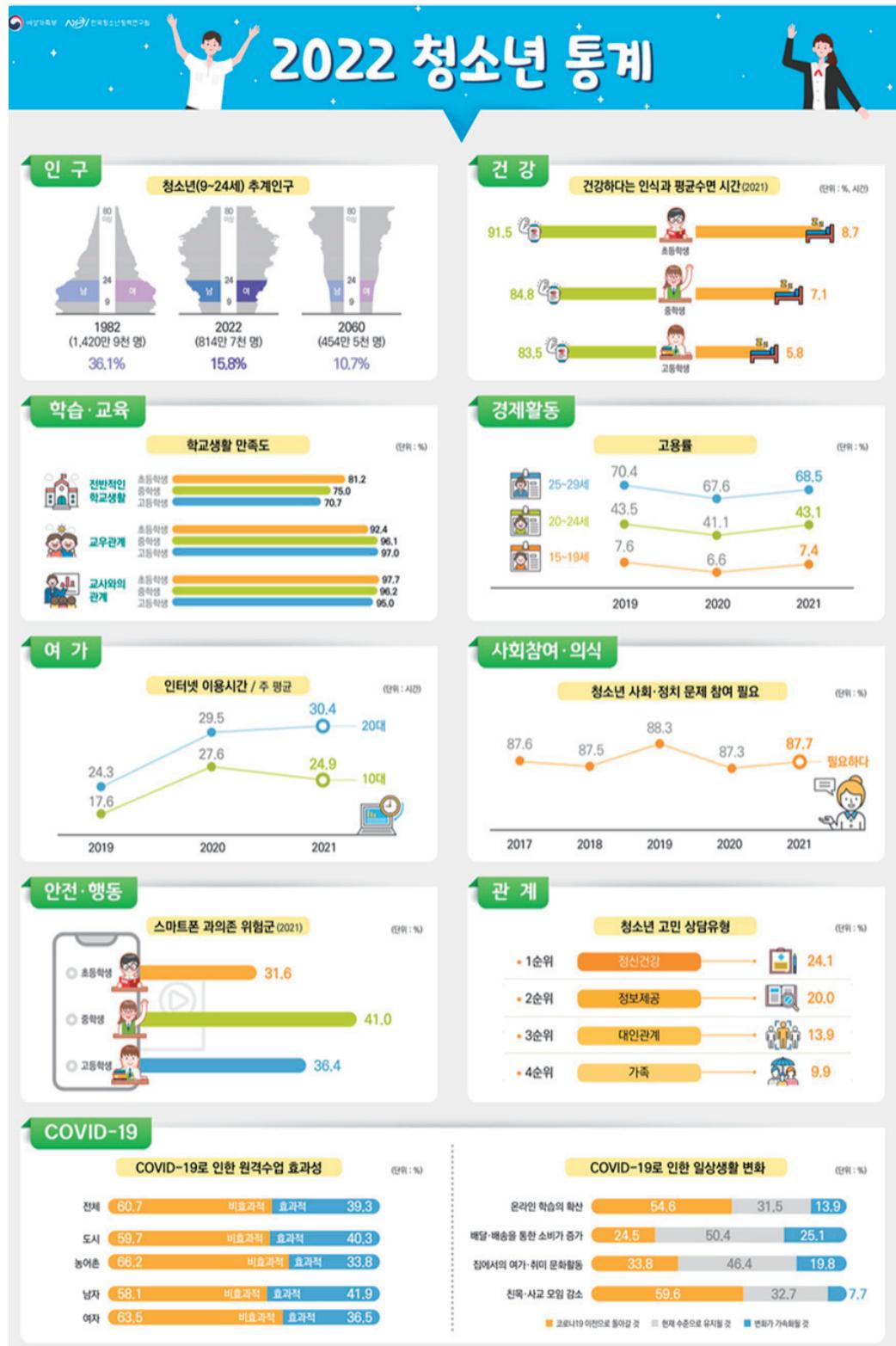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지난 2020년 46만 5천명에서 오는 2024년 39만4천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1학년도 전국 일반대 미충원 인원 1만6359명의 93.9%인 1만5359명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학 간 통폐합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학자원이 2021년 43만명에서 2040년에는 28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어 결국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입학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40년 신입생 충원율은 59.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⁸⁾

8) 「20년뒤 수도권대·지방국립대만 생존, 입학자원 43만명에서 28만명으로 급감」, 『대학지성 In&Out (<http://www.unipress.co.kr>)』, 2022년 1월 19일자.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림-1 청소년 통계2022>⁹⁾



9)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 통계」, 2022.

[단위 : 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	□□□	□□□	□□□	□□□	□□□	□□□
계	4,135,837	3,975,462	4,290,551	4,643,628	5,055,678	5,141,941	3,973,053	5,098,132
가정	287,465	304,204	335,743	357,471	388,601	383,802	416,755	485,261
일탈/ 비행	427,998	448,964	414,885	442,572	522,910	584,748	405,338	460,653
학업/ 진로	1,145,148	812,280	846,273	826,084	839,102	690,481	513,842	615,546
성	79,638	70,556	70,055	90,112	86,701	83,249	69,612	82,274
대인 관계	789,687	888,650	1,062,059	1,257,287	1,329,866	1,408,054	854,287	1,116,861
성격	304,951	305,755	301,534	329,809	340,885	340,877	246,329	341,910
정신 건강	427,677	471,611	521,613	567,981	738,188	826,767	788,782	1,130,526
생활 습관 태도	31,649	36,358	47,216	40,173	41,507	37,208	38,444	44,123
활동	57,256	57,375	68,117	78,942	86,943	71,953	38,882	52,856
컴퓨터/인터넷	323,806	343,910	358,128	389,345	427,140	443,856	324,931	459,028
단순 정보 제공	260,562	235,799	264,928	263,852	253,835	270,946	275,851	309,094

 출처 : 여성가족부『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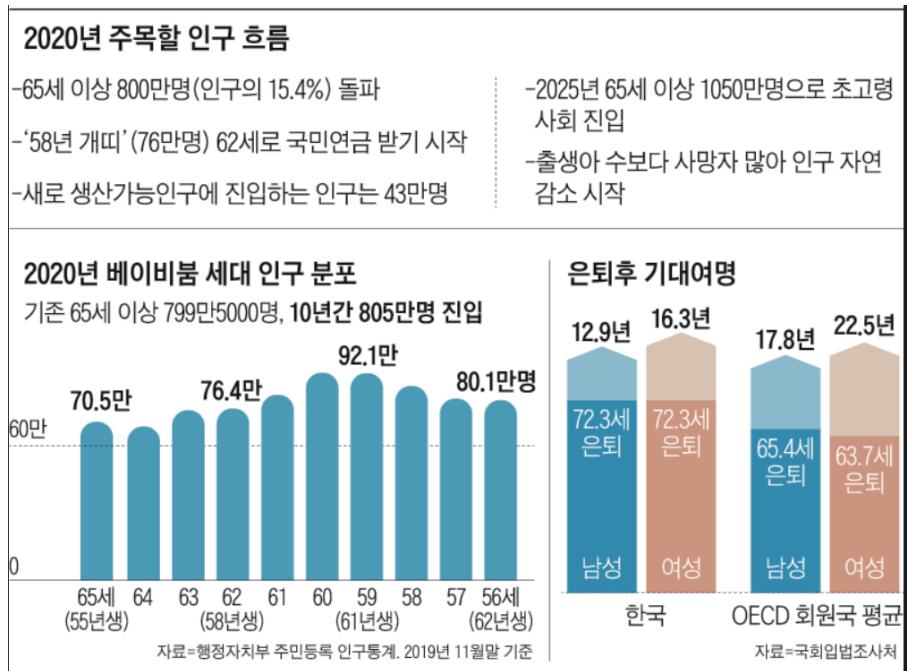
(생각해보기) ■ 저출산 속에 청소년 교화의 방안

- 그간 청소년교화는 교육식 교화프로그램과 출석 유도식 교화에만 집중 → 이제는 성장형 또는 형식형 교화에서 지역의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돌봄 등 적극적인 생활 공감 교화와 치유 교화로, 1)교당의 보육으로서의 공간 활용, 2)종교적 함양뿐만 아니라, 청소년 생활 문제(성교육, 학교폭력, 자살(해), 가출, 가정문제 등) 지도 및 교화 방안구축, 3)교당의 청소년 교화 확대(사회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 — 비행 청소년 또는 소년원 교정 교화까지(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율), 4)청소년 담당교무의 한계 극복— 각 지역 청소년 문제 참여와 전문가 등의 인프라 구축 및 담당 또는 활용, 5)지역-가족-청소년의 유기적 관계의 큰 프레임 교화방안 등 사회적 문제 접근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교화 방안 모색
- 한국천주교의 청소년 사목 또는 선교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일학교'에 대해 알아보면 초등부 24.2%(89,377 → 67,734명), 중등부 18.4%(28,311 → 23,100명), 고등부 12.9%(15,326 → 13,344명)가 감소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경우, 초등부에 해당하는 만9세~만10세 우리나라 인구가 2010년 1,200,233명에서 2019년 922,218명으로 23.2% 감소하였고, 소년부에 해당하는 만11세~만12세 인구가 2010년에 1,261,947명에서 2019년 965,160명으로 23.5%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해당하는 만13세~만18세 인구가 2010년 4,222,415 명에서 2019년 2,907,136명으로 31.1% 감소했다. 「2015년 청소년법회 운영 현황」과 「2015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의 자료에서 청소년 연령대로 분류 가능한 10~19세 종교를 살펴보면 전체 554만 482명 중 불교는 46만 5979명으로 8.4%에 불과했다. 또한, 청소년 법회를 여는 사찰이 전국 사찰 대비 67곳 사찰로 2.1%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다.¹⁰⁾

이러한 이웃종교들의 상황과 저출산 문제로 인한 대학수능입학자수(한국 청소년 40만명 붕괴)대비에서의 원불교 청소년 교화전략과 방향 수립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절실히이다.

10) 원불교정책연구소, 『한국의 이웃종교 현황 요약보고서』, 2017, pp.143.

다)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교회 모색



3년 후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은 특히 한국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에 주목했다. 해당 통계에서 비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 다시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 18년과 7년을 기록해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다.¹¹⁾

(생각해보기) ■ 베이비부머와 교단성장의 주축이었던 이들을 위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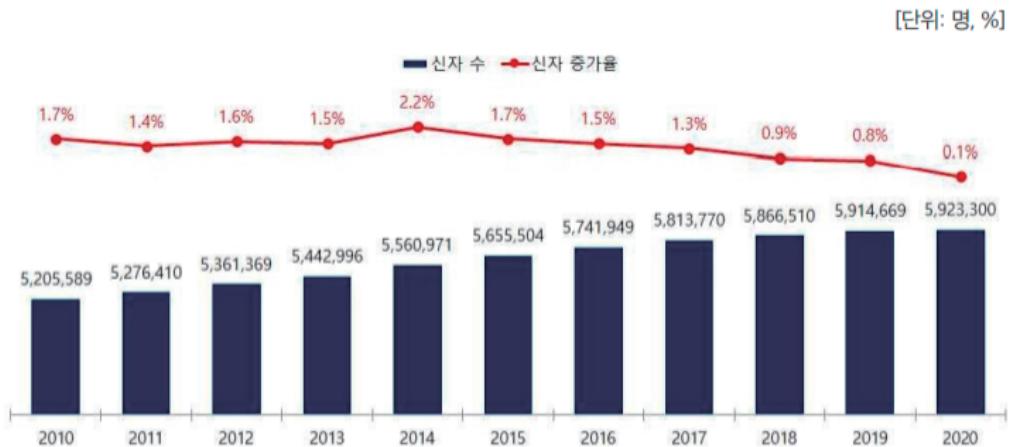
한국사회의 중심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와 원불교를 4대 종단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교단 성장의 주축이었던 교도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교회 모색이 절실히다.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에 따르면 "거대한 인구 집단이기에 이들의 은퇴나 정치참여 등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 잠시 후 얘기 하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과거와는 다른 '대도시 이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 패턴이다. 이들의 대도시 털출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그 주변의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된 반면, 노년층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농어촌 교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1)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 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lynv7ql8lo>), 2022년 9월 30일자.

라) 코로나 19의 이웃종교상황(한국천주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예수교장로회)

(1) 한국천주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교구가 집계한 신자 수는 5,923,300명으로 전년보다 0.15%(8,631명) 늘었고, 총인구 52,974,563명 대비 11.2%로 나타났다. 2020년 신자 증가율은 2018년 0.9%, 2019년 0.8%보다 현저히 낮다.

(2)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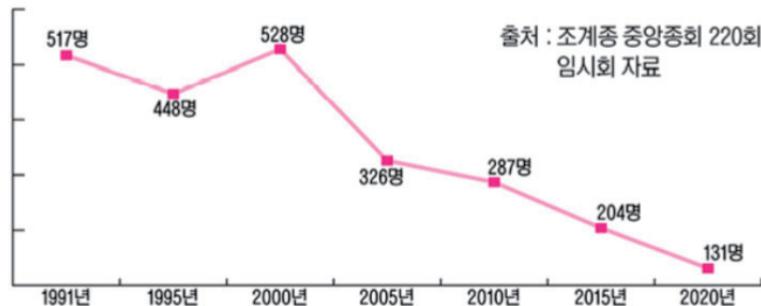
나. 신도수

단위 : 명(1985~201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이음	불교
1985	40,419,652	17,203,296	8,059,624
1995	44,553,710	22,597,824	10,321,012
2005	47,041,434	24,970,766	10,726,463
2015	49,052,389	21,553,674	7,619,332

다. 성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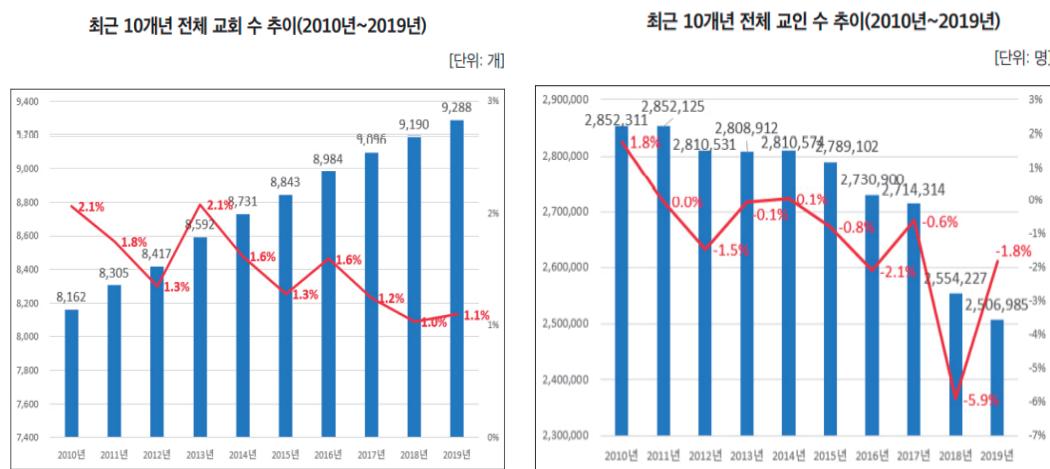
■ 조계종 사미·사미니 수계자 현황(1991~2020년)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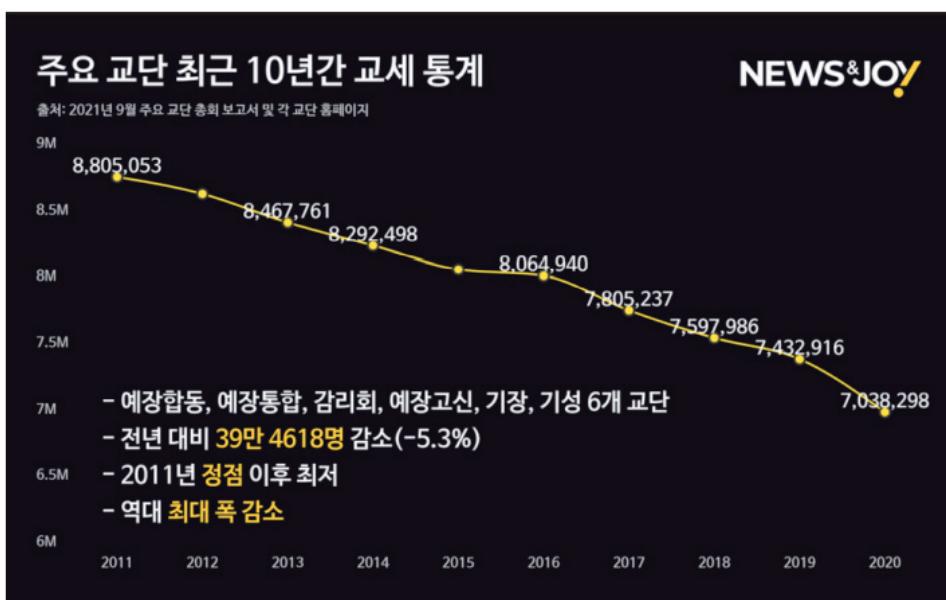
2020년 기준으로 사미·사미니 수계자 현황을 살펴보면, 131명으로 1999년(532명)에 비해 75%가량 줄었다. 2000년대 들어서 출가자 감소(2001~2010년 평균 338.9명)는 눈에 띄게 늘었다. 2011~2020년 수계자 평균은 183.5명으로 1990년대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1년 253명이던 수계자는 2012년 212명, 2015년 204명을 기록한 뒤 2016년부터는 100명대로 곤두박질쳤다. 2016년 157명, 2017년 151명, 2018년 122명, 2019년 143명, 2020년 131명에 그쳤다. 2021년 3월 220회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정식 통계에서는 빠졌지만 사미·사미니를 구분하면 사미니 수계자의 감소는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주요 6개 교단, 올해만 교인 40만 명 줄었다…10년 전 정점 찍은 후 176만 명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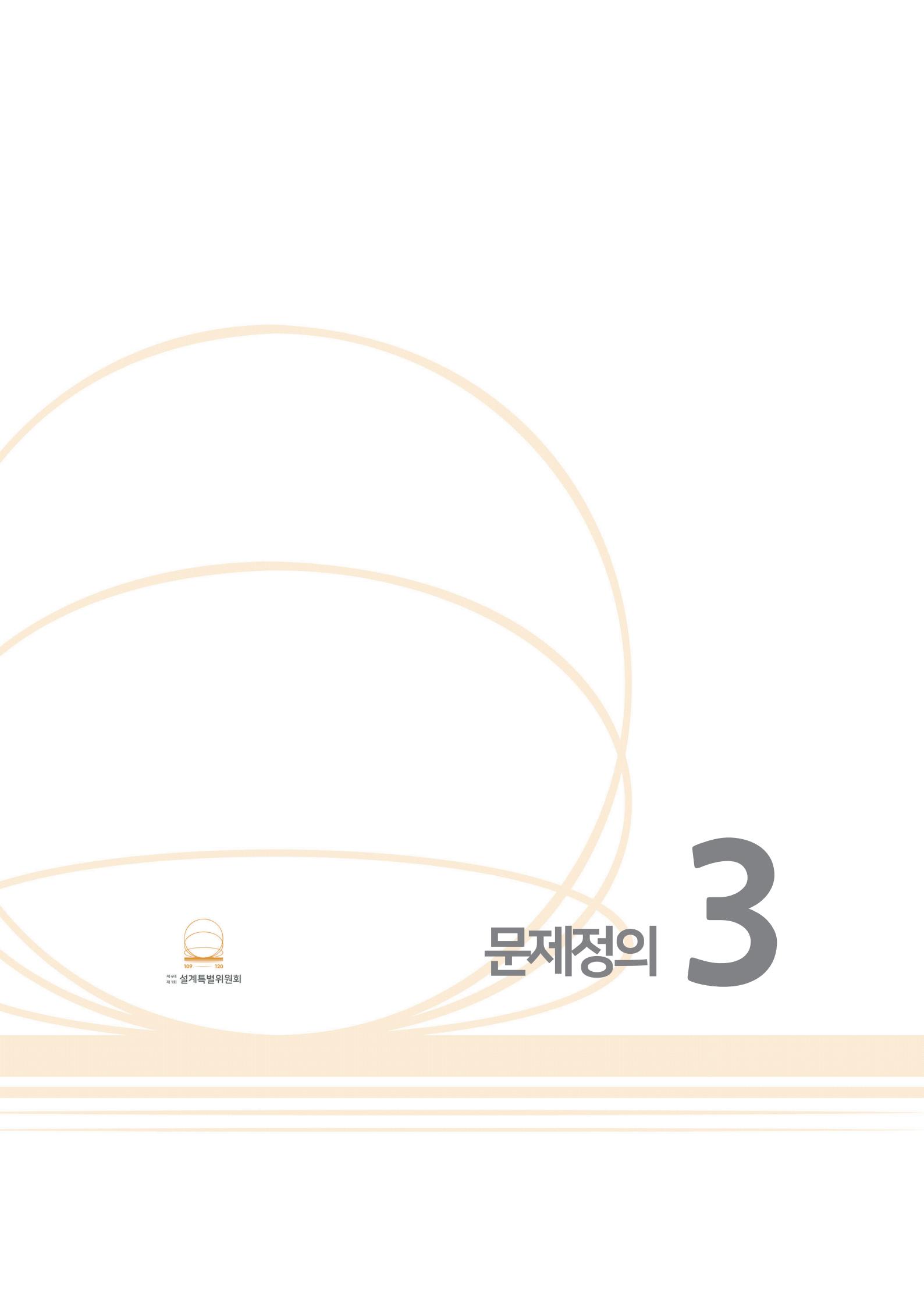
[출처: 뉴스앤조이] 2021년 10월 7일자



교회 수 증가 폭 둔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인 수가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25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약 35만 명, 즉 12.1%가 줄어든 것이다. 전반 5개년(2010년~2014년)에는 감소율이 1.5%로 낮았으나 후반 5개년(2015년~2019년)에는 10.1%로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아도 앞으로 교인 수는 감소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이처럼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는 교회 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인식 조사」, 「한국인의 종교 1984-2021(1) 종교현황」 중

- 현재 믿는 종교 있다': 2004년 54% → 2014년 50% → 2021년 40%
 - 남성보다 여성, 고연령일수록 종교 믿는 사람 많아
 - 20·30대 탈(脫)종교 현상 가속
-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 비종교인 중 '호감 종교 없다': 2004년 33% → 2014년 46% → 2021년 61%
 - 종교인은 호감 가는 종교로 대부분 자신이 믿는 종교 답해
-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2004년 43% → 2014년 35% → 2021년 25%
 - 1984년 이후 매 조사에서 개신교 이탈자 가장 많아
-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관심 없어서' 1997년 26% → 2021년 54%



3

문제정의



설계 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정의

원기 106년 설계기획위원회(설계특별위원회의 준비위원회)의 교단 과제와 중앙교의회(교도회장)설문, 출가교역자 설문을 통해 “원불교의 미래, 교단의 청사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설계 의제를 도출하였다.

10대 과제

재가		출가	
1	전무출신 종합관리	1	전무출신 종합관리
2	약세교당 통폐합	2	출가 교역자 인사제도 개선
3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3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4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4	약세 교당 통폐합
5	법회 방식의 개선	5	법회 방식 개선
6	4차 산업시대 교화모델 개발	6	젊은 교무 교화 기회 부여
7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7	법위사정제도 개선
8	생애주기별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8	출가 교역자 역량 강화
9	교화중심 법제정비	9	수위단회 규정 개정
10	전무출신 훈련 강화 / 노후 복지 개선	10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예비교무 교육 내실화 / 교화인사시스템 혁신

1) 교단 혁신

의사결정 구조	조직 개편	전무출신 제도 및 종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수위단회 관련 규정 개정 소통플랫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부 및 교구 조직개편 행정 전문화/자동화/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가교역자 인사제도 개선 출가교역자 훈련 및 역량강화 예비교역자 교육 내실화 현직 전무출신 후생복지 개선 전무출신 노후 복지 개선
교화구조 개선	교화프로그램 개선	효율적 경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구자치제 정착 교화단과 혼련강화 약세교당 통폐합 교화중심 법제정비 법위사정제도 개선 재가교도 교육 및 훈련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회방식 개선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간 경영전문화 교단의 유후부동산 관리 교단 각종 사업회 정비

2) 미래 교화

세계 교화 개척	교화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종법사 파견 외총부 설립 국제종교연합운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평화운동 통일시대 교화준비 지역사회 유익주는 원불교 복지활동 개발 사회적 봉공활동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화모델

이에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설계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의제를 중심으로 제1~2차 모임에서는 교단 설계와 위원회 역할의 이해를 도모하고, 교단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상호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제3~5차는 '전무출신의 정체성', '재가교도와 교화', '원불교의 사회화와 세계화'의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교단이 축적해 온 문제와 현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 정의와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중심으로 '1)전무출신의 정체성, 2)재가교도와 교화, 3)원불교의 대사회와 세계화'라는 대주제 속 논의를 통해 그동안 발간했던 원불교정책연구소 자료와 기타 교단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 의제 선정을 위한 문제정의를 했다.

가.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의제

1) 전무출신의 정체성

우선 전무출신에 관한 것은 「전무출신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전무출신」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불교교헌」 제18조에 의거하여 전무출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을 원만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5.01.07)

제2조(정의)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호칭) 전무출신은 교무라 칭한다.(신설 105.01.07)

제3차 워크숍에서 제시된 문제 정의를 통해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 정의】

1. 지금 우리시대의 전무출신의 개념은 무엇인가.
2. 전무출신 자질과 역량은 어떠한가.
3. 전무출신의 삶은 어떠한가.
4. 교단은 전무출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1. 전무출신의 개념은 무엇인가.

문제 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1. 전무출신의 개념은 무엇인가	1-1 전무 출신의 성격	<p>1) 「전무출신규정」에 입각한 전무출신의 개념은 분명하지만, 이에 입각한 '전무출신' 자체에 대한 정의 난해성</p> <p>2) 기준 호칭(교무·도무·덕무)의 통일에 대한 혼선—교화직·전문직·봉공직의 역할과 권한(책임) 등 부정학 ex) 교화직 전무출신의 기관근무, 전문직 교무의 기관근무의 차이</p> <p>3) 출가교무와 자가교무와의 성격 불명확화에 따른 교도들의 인식</p>	<p>①『원기96년 혁신세미나 전무출신 정체성 자획립』 16쪽, 「전무출신 정체성 자획립을 위한 고찰 - 3.전무출신의 정체성 변인」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으로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출가, 전무출신과 더불어 출가교도, 출가교역자, 정남정녀, 법사, (교무)선생님, 교무도무덕무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혼선을 초래하는 단초를 꾸준히 제공 자책함 - 전무출신 정체성 논란에 소재가 되는 주요변인들은 공동체생활, 공부와 사업, 결혼, 급여(용금상환비지원금급료), 품과, 겸직 등을 제시함 <p>②『원기96년 혁신세미나 전무출신 정체성 자획립』 16쪽, 「전무출신 품과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5.품과제도의 문제점」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과제도 도입의 지지도 낮음, 품과제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 부족, 품과제도의 품과 간 서열화, 계급화 형태, 교무들의 규정대로 품과 전환 미이행, 도무·덕무의 품과 전환 안됨, 도무품과의 구제방법 활용, 필요한 전문 인력 미유입, 품과제 시행 이후 교단평가 미이행 ③『원기96년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9쪽, 「5.전무출신정체성」中 - 전무출신의 다른직업과의 겸직 부정적(59.9%), <p>④『원기96년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11쪽, 「6.품과제도」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에 따른 품과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57.9%), 품과간 전환 자유 원함(55.9%)
	1-2 전무출신의 역할	<p>1) 전무출신 역할 분야별(교화·교육·자선)과 사회적(시대적) 업무 및 직종 분야별과의 혼선 — 전무출신의 겸직(교당과 기관) 수행 — 교무의 직업 문제</p> <p>2) 사회적·시대적 변화 속 교역자 역할 자체가 교단 종사만 하는 것이 자속 가능한 운영인기에 대한 의문 ex) 전무출신에게 사회적 지위로서의 직업 적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과제도 도입의 지지도 낮음, 품과제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실효성 부족, 품과제도의 품과 간 서열화, 계급화 형태, 교무들의 규정대로 품과 전환 미이행, 도무·덕무의 품과 전환 안됨, 도무품과의 구제방법 활용, 필요한 전문 인력 미유입, 품과제 시행 이후 교단평가 미이행 ③『원기96년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9쪽, 「5.전무출신정체성」中 - 전무출신의 다른직업과의 겸직 부정적(59.9%),

【대안 및 방안】

대안 및 방안	구분	내 용
	1-1 전무출신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교단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무출신 개념 연구를 통한 전무출신 개념 법규 연구와 재정비 *자가교도 또는 재가교역자 참여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 *원무, 기간제 전무출신 등 기존 시스템에서 출재간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선천종교에서의 성직자상과 원불교만의 전무출신제도와 문화 구축 필요
	1-2 전무출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담당(교무)과 복지·재정 등 기관 담당(자가교도)의 분리 *기관위탁 업무 재고와 전무출신의 사회적 직업 겸직 재고

전무출신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그 고유한 실체를 확실하게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제도와 외형이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전무출신의 정체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호칭의 제도변화가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현재 호칭 통일안이 주는 혼란은 교회 현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교회현장에서 교무직, 전문직, 봉공직의 상호간 이해 부족과 역할에 혼선 그리고 재가 교도들의 인식 부족 등에 의해 교회인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무출신규정」에서 호칭 단일화는 되었지만, 후속대책(역할, 권한, 책임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초기 교단사에서는 전무출신 그 자체가 어떤 신분적 개념이 아닌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동의를 하지만, 변천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이뤄졌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초기교단사에서 교육과정도 기성단 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이행해가도록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전무출신 제도와 초기 교단에 나타난 교육과정 제도의 비교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하나는 전무출신 특히 교회직 교무가 기관장까지 병행하는 환경 속에 전무출신의 직업에 대한 것과 성직자로서의 정체성 사이 개념도 논의되었다. 교학과 학부 과정은 교회직 교무에 초점을 맞춰 배양된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 또는 직업을 겸직할 때, 전무출신으로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고충에 대해 언급했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 전무출신 자질과 역량은 어떠한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2-1 예비교무 교육	1) 교화 영향에 따른 예비 전무출신 발굴 감소 2) 예비 교무 교육의 정체성 모호(교화자로서의 역량 교육과 상이) 3) 전무출신 자질과 (교화·교육·자선) 역량의 전문성 낮후 현상	①『원기96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12쪽, 「7.전무출신 역량강화」中 - 직능별(교화·교육·복지·산업 등) 재교육·훈련필요(77.5%), 직책별(지구장, 교구장, 부장 등) 재교육·훈련필요(74.6%), 외부교육 수강희망(73.3%), 승급·급수 재교육·훈련필요(67.9%), 전무출신 역량강화 재교육·훈련 강화 필요(62.5%), 인터넷온라인학습시스템 활용(49.4%), 전무출신 정기훈련 연장(45.7%), 한행역무개발팀 교육불만족(55.2%)
	2-2 전무출신 재교육	1) 전무출신 재교육 필요성 긍정적, 역량개발국 교육 시스템 부정적 2) 역량을 공급하는 자(전무출신)와 수여받는 자(교도)간의 '역량' 이해의 차이 3) 정기훈련으로서 교무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미흡	②『원기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19쪽, 「7.교화영향에 따른 교역자 역량 강화」中 - 재가 긍정 90.2%, 출가 긍정 68.7%
2. 전무출신 자질과 역량은 어떠한가	2-3 전무 출신의 신앙수행 점검	1) 출가교회단을 통한 전무출신 공부의 자속적인 점검 미흡 2) 법위 점검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교화 영향과의 밀접한 관계 3) 법의 문답·감정을 통한 문화 형성 부족 4) 전무출신의 정기·상시훈련화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①『원기96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8쪽, 「4.출가교회단 훈련」中 - 각교단 훈련 강화(48.5%), 교회단별 정기훈련 강화(49.3%), 출가교회단 훈련의 인터넷 학습활용(45.9%) ②『원기96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9쪽, 「5.전무출신 정체성」中 - 재가교도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 의무(81.7%) ③『원기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16쪽, 「5.설교중심법회를 교회단법회로」 - 출가 긍정(55.5%), 재가 긍정(52.3%) ④『원기105년 출가교역자 직무, 생활민족 및 이단차교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서』 30쪽, 「출가교회단 사항」 - 문답·감정 부정적(38.2%), 의견교환의 소통창구 부정적(37.9%), 출가교회단 통한 재가교회단 운영 능력배양 부정적(48.4%), 단회시간 할애 긍정적(35.1%), 단장중양단원 훈련 강화 긍정적(45.6%), 현재출가교회단 만족 부정적(39.4%), 출가교회단과 교구/지구의 일원화 긍정적(52.5%), 출가교회단은 교단의 유업 사명 긍정적(59.4%) ⑤『교단제3대제3회 종합계획 평가보고서 3기(원기103~105년) 보고서』 13쪽, 「6.교회단과 훈련으로 교화정체성 확립 평가 결과」 - 교회단 중심교화: C등급, 정기·상시훈련 체제 정착 D등급,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중심 법회 운영 D등급
	2-4 시대적 사회적 종교 지도자로 서의위상	1) 한국 사회, 종교지도자로서의 전무출신 위상이 낮고 역할 미흡	①『원기102년 교단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쪽, 「8.교도들이 교역자에게 요청하는 역량」 - 재가출가 모두 1순위 시대통찰, 2순위 전무출신 정신

【대안 및 방안】

구분	내 용
대안 및 방안	2-1 예비교무 교육 *장기적인 예비교무 교육 시스템 평가 검증 점검 및 구축(종교성·소명의식+특기성·전문성)
	2-2 전무출신 재교육 *전무출신 역량 강화의 전문적인 질적연구 지도자 양성 등의 방안 모색 *재·출기간 역량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 분석과 적용 방안 *전무출신의 훈련 강화 모색 *전무출신의 부문 역할별 직무 재교육과 이에 맞는 교육기관 설립(교육지원센터 형식)
	2-3 전무출신의 신앙수행 점검 *출가교회단 중심의 본질(공부중심) 회복 또는 전무출신의 수행점검 평가 관리시스템 마련 *출가교회단회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방향과 전략 모색 *연령별, 균기별 등 단계별 전략과 구체적 교재나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교단 전반적인 공부 풍토조성으로 문답·감정·해오 문화 형성 *전무출신의 완전한 상시·정기 훈련 체계화
	2-4 시대적 사회적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 *전무출신의 대사회적 문제와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한국사회의 원불교 교무에 관한 인식과 의식조사 자속적 진행

전무출신의 자질과 역량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종교성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예비교무 교육이 현장 교회와 괴리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교회현장에서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예비교무 교육과정이 교회 현장의 실제적 바탕으로 교육화되거나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교회 현장에서 신앙·수행을 바탕한 교회단 운영과 훈련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며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재가교도들에게도 미치지 못해 교화성장을 이룰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예비교무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신앙·수행교육이 교회단을 통해 공부 중심을 잃지 않도록하여 문답·감정·해오 과정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적 형성의 시스템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전무출신에게 교회의 영역이 광범위한 상태에서 교당교화 외에 임무를 실행할 경우, 사회적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당교화에 근무하다가 기관 등으로 발령을 받을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고충이 따른다. 이 같은 경우, 전무출신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특기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교회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화·교육·자선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아래 각 영역 활동이 교화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따라서 성직자로서의 교육은 예비교무 시, 훈련 강화와 검증 시스템을 재논의하고 교화자로서의 교육은 전문화된 양성과정 도입을 검토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무출신의 재교육이 교회현장에서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칠 때가 있어서 역량개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전무출신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 행정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3. 전무출신의 삶은 어떠한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3-1 전무출신의 교역 범위	1) 전무출신의 교역 범위의 불명확함에 따라 교회(의식, 설교 등) 외, 과도한 기타 업무 수행으로 피로감과 사기 저하 2) 교회가 일(사업) 중심에 의해 종교성(신앙·수행) 험양 의식 저하	①『원기96년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9쪽, 「5. 전무출신정책」 中 - 전무출신 정신 퇴색됨(69.8%), 전무출신의 희생적 삶 지향(40.7%) ②『원기105년 출가교역자 직무, 생활민족 및 이단비교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서』 15쪽, 「7. 소진」 中 -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치았음 25.4%, 녹초가 됨 23.5%
3. 전무출신의 삶은 어떠하며 무엇인가	3-2 전무출신의 후생·복지	1) 용금·노후·건강 진료 등의 교단이 제공하는 개인 생활 보장과 지원에 따라 전무출신 삶의 생활안정정책 4보완 필요 2) 전무출신간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어려운 교당의 기피현상 — 인사문제와 연관	①『원기96년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9쪽, 「5. 전무출신정책」 中 - 전무출신의 경제적 평등(57.7%), ②『원기102년 교단정책관련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2쪽, 「9. 교역자 지원」 中 - 재가 1순위 후생복지(87.6%), 2순위 휴양선택기회 확대(48.8%), 출가 1순위 후생복지(64.7%), 휴양선택 기회 확대(42.2%) ③『원기105년 출가교역자 직무, 생활민족 및 이단비교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서』 28쪽, 「17. 용금, 급여 사항」 - 용금 급여 결정 방법 불만족(47.2%), 급여 및 용금 수준 불만족(40.4%), 기본용금의 수당 불만족(39.2%) ④『교단제3대제3회 종합계획 평가보고서 3기(원기103~105년) 보고서』 13쪽, 「19. 전무출신 후원 확충 평가 결과」 - 전무출신 치우 개선 E등급, 전무출신 노후 개선 A등급, 전무출신 후원공단 활성화 C등급

【대안 및 방안】

대안 및 방안	구분	내용
		*교회의 교역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리와 역할 제정 *교회의 교역 범위를 상시와 정기훈련 중심축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교무 역할(교당기능) 회복 및 환경 요소 마련
	3-2 전무출신의 후생·복지	*전무출신 후생과 복지 확대 및 개선 *기관운영과 별개로 교당의 경제력 자립 마련 *전무출신 교육 중 자립경제의 교육책으로서 자체 커리큘럼 마련 *교당과 기관간 전무출신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부분의 격차 해소 방안 모색

교단의 지속가능성, 세대의 변화, 경제적 문제 등이 전무출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무아봉공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무출신의 삶에 관해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교회 현장에서 교회 외 수행되는 기타 업무로 인해 과도한 피로감과 사기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교당·기관 간의 경제 격차 문제로 기관근무를 선호하는 자가 생기는데 전무출신의 후생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가 되었다. 이에 그 방안으로 예비전무출신 과정 중 자립경제교육, 특급교당과 개척교당의 결연, 교당 재정 자립화 방안 마련, 전무출신 공동체(협동조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4. 교단은 전무출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4. 교단은 전무출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4-1 전무출신 인사 제도	<p>1) 인사 문제에 의한 교단의 공정성 상실은 교단 구성원의 사기 저하</p> <p>2) 인사제도(선발/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연계되지 못함에 따라 인력 활용 미흡</p> <p>3) 전무출신 자기객관화 평가 부족</p>	<p>① 「105년 출가의식조사 보고서」 62쪽, 「16. 인사관련 - 인사이동, 인사제도 만족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이동, 전직 사향에서는 현 근무지 또는 근무 분야에서 이동하고 싶지 않은 경향 다른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 없음(42.9%), 임기 전 인사이동 고려 없음(56.6%), 다른 분야 근무 노력 없음(62.1%), 다른 분야 희망 없음(32.1%) - 인사제도 만족 사향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현재 임기 문제 없음(75.5%), 인사불공정(82.3%), 근무평가불공정(80.8%), 인사제도개선(77.3%) 21쪽, 「12조직의 공정성」 - 가) 절차공정성 - 사정고려 부정적(42.7%), 일관성 부정적(50.4%), 사전정보 수집 검토 부정적(52.6%), 이의제기의 허용 부정적(44.4%) - 나) 분배공정성 - 책임의 양과 질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배려 부정적(30.8%), 성과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배려 부정적(30.5%), 스트레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배려 부정적(34.6%) <p>② 「원기 102년 교단장학관련의식조사결과보고서」 16쪽, 「5. 설교중심법회를 교회단법회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교역자 또는 전문성 배치 등의 인사공모제 실시 - 자가 긍정(86.7%), 출가 긍정(74.7%)
	4-2 전무출신 의 관리	1) 전무출신의 종합관리(선발/교육/인사/요양)가 교단의 행정부서와 정책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독립적 운영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대안 및 방안】

구분	대안 및 방안
대안 및 방안	<p>*합리적 인사 시스템(선발/관리/평가)으로 인사 기준 명확화(공정·투명·객관성 확보)</p> <p>*전무출신 개인의 교역 접합성 등의 자기 객관화 표준(기준)치 마련</p> <p>*인사와 전무출신 재교육(역량교육)과의 관계 선상에서 개선 방안 모색</p> <p>*퇴임원로 교무의 순교감제, 지역 지구별 공동교회에 퇴임자 활용 등 다체 인력풀 관리/배치/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의식조사 필요</p>
	<p>*개인의 성장보다 전무출신 공동체의 집단적 성장 목표로 하는 총체적·체계적·획일적인 시스템으로 전환</p>

교단 문제로 계속 제기되는 인사문제의 근본은 전무출신 자기객관화가 부족하며 상호 인식의 문제 등의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교단적 정서로 보았다. 또한 인사기준의 모호성과 선발 및 관리 등이 미흡함에 따라 실제 인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단의 신뢰적 차원에서 전무출신의 사기 또는 직무불만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근거해 보면, 전무출신의 종합적인 관리가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음 문제 도출되었다. 선발(교육부), 인사(총무부), 요양 및 정양(공익복지부)이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관리 및 실시됨에 따라 전무출신의 총체적 또는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이에 전무출신관리 부서를 하나로 통일하여 종합적인 선발-교육-배치-평가-요양-정양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재가교도와 교회

【문제 정의】

- 교화 활성화를 위한 재가교도 역할과 권한은 어떠한가.
- 원불교 교화의 중심은 무엇인가.
- 교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 교화는 준비하는 것인가 대응하는 것인가.

1. 교화 활성화를 위한 재가교도 역할과 권한은 어떠한가.

문제 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1. 교화 활성화를 위한 재가교도 역할과 권한은 어떠한가	1-1 거진출진 제도	<p>1) 교단 초창기, 출·재가가 교단의 공동 참여 운영에 대한 빈영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재가교역자 제도가 현재 그 적용(권한과 책임)과 활용(활동 범위)이 불명확함에 따라 재점검과 진단이 필요</p> <p>ex) 원무, 교도회장단, 단장, 중앙, 주무, 순교 등의 교화 권한과 임명 등</p> <p>2) 출가 교도 중심의 교회활동으로 재가교도 교정 참여 및 교회활동 위축</p> <p>3) 법위시정의 공정한 기준과 적용에 대해 재가교도간의 불만</p> <p>4) 지금까지 재가교도는 교회의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교회의 주체이기도 함</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95. 95정책제안을 위한 연속 기획 1(자자·출가 교역자제도 혁신). 『새미르통신』 12호. 4p</p> <p>재가교역자에 대한 문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을 교회지로 삼아 활동하는 원무 제도의 활성화(75.8%) - 재가/출가의 차별을 반영하는 출가중심 의사결정 구조의 개선(67.3%)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마래시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 53p.</p> <p>마래시대의 원불교 교화전략</p> <p>새로운 교화 패러다임의 필요. 3) 교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관리교도와 신도의 비율 확대 필요.</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교역자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p> <p>17슬라이드 '전무출신의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되고 각종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으나 활泼한 복잡다양해지고 모호해졌다.' 30슬라이드. 전무출신 제도의 문제점 3) 정체성 혼란과 위화감 해결은? 품과, 기간제, 세대전무출신, 원무, 정무, 모원회 등. 48슬라이드. 재가교도의 역할 확대방향: 원기2세기 거진출진의 역할</p> <p>④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_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20. 거진출진 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역할 확대</p> <p>재가교역자 제도 정비 평가 E. 재가교도 역할 확대 평가 C.</p>
	1-2 재가 교역자의 활용	<p>1) 전무출신 인력 감소와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재가교역자 활용이 필요하지만 활용을 위한 각 전문 분야의 영역이 불분명함</p> <p>2) 교단 교화 활동의 비중에 비해 4개 단체장(청운화·여성화·봉공화·청운화)의 재가교역자에 해당되지 않음</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마래시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 51p. 미래시대의 원불교 교화전략</p> <p>새로운 교화 패러다임의 필요. 2) 새로운 교화 패러다임 필요 '하는 교화' 교당일이 수행의 체험으로 연결되는 방식.</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교역자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p> <p>59슬라이드. 재가교도의 역할 확대방향: 원기2세기 거진출진의 역할 - 원무제의 실질적 시행 정착/ 모원회의 활성화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교법의 사회화</p>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1-3 재가 교역자의 양성	<p>1) 출가교역자 중심의 교단 운영에 따라 양성 교육을 두고 있지만 재가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보완이 시급함. 또한 이를 지도할 전무출신과 역할의 한계로 이에 대한 양성 자체도 필요</p> <p>2) 재가 교도로서 기관의 기관장 육성 제도 전무한 상황</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 95). 95정책제안을 위한 연속 기획 1 (재가·출가 교역자제도 혁신). 「사미르통신」 12호. 4p</p> <p>재가교역자에 대한 문제 인식 - 재가의 교역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강화(85.2%)</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미래시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 61p. 미래시대의 원불교 교회전략 교화자 능력강화 프로그램 도입. 4) 재가 교화자 역할 확대. 사무장제도, 경영기법 도입, 경영능력 갖춤.</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교역자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p> <p>56슬라이드 재가교도의 역할 확대방안: 원기 2세기 거진출진의 역할 - 삼학병진 공부 정립, 예전 실천으로 가족공동체,</p> <p>④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 평가보고서 - (2)기본고지 1-2. 재가 출가 인력양성 재가 교역자 역할 전문화 평가E, 재가교역자 양성교육실시 평가S, 재가 연구 인력 육성 평가E.</p>
	1-4 재가 교역자 관련 정책평가	<p>1) 3대 설계 전반에 재가교역자 관련 제도에 의한 정책과 평가가 전무한 상태</p> <p>2) 전무출신 종합관리의 미흡처럼, 재가교역자 관리 역시,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 되지 않음</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 95). 95정책제안을 위한 연속 기획 1 (재가·출가 교역자제도 혁신). 「사미르통신」 12호. 4p</p> <p>재가교역자에 대한 문제 인식 - 분산된 재가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재가 자원 네트워크 구축(73%)</p>

【대안 및 방안】

문제 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1. 교화 활성화를 위한 재가교도 역할과 권한은 어떠한가	1-1 거진출진 제도	<p>*거진출진의 개념정리와 함께 이들의 교단 참여에 대한 제도 재정비 (전무출신은 교회, 재가교역자는 교구, 교당의 모든 관리, 사업, 행정 담당에 대한 역할 정리 필요)</p> <p>*거진출진의 법위사정 제도 또는 시스템 마련(공정성)</p>
	1-2 재가교역자의 활용	<p>*재가교역자에 대한 법규 보완 및 제정을 통한 역할 명확화 (교화보조자가 아닌 교화자로서 역할 부여—정토 또는 세대전무출신)</p> <p>*형마위 이상 재가교도의 훈련진행</p>
	1-3 재가교역자의 양성	<p>*재가교역자 교화자로 투여할 수 있는 양성 기관 및 교육 필요</p> <p>*교육 중 재가교역자에게 훈련뿐만 아니라 교단행정교육 구축과 이행</p>
	1-4 재가교역자 관련 정책평가	<p>*재가교역자 종합관리(선발/교육/배치)와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최소 교구별, 재가교역자 종합관리 구축 방안 모색)</p>

인구감소·저출산·탈종교화 등 사회적 환경에서 출가자 감소와 교단의 인력수급이 어려워져 그동안 유지했던 교단 운영 방식에 많은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특히 출가자 중심의 교단 운영유지는 재가 교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이에 각 권한과 책임 부여의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또한 재가 교도들에게 실제적인 운영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할애가 가능한가에 대한 반문이 생기는 상황으로 보았다. 그동안 교단이 3대에 걸친 전반적인 교단 정책 사업에서 거진출진 제도 정비가 거론되었지만, 실적 미진과 평가 역시 저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가교역자 종합관리(선발/교육/배치)와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재가교역자를 교화자로 투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양성 기관과 교육 그리고 행정 구축 및 이행 등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중 교단이 운영하는 기관 경우,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재가 교도 기관장 양성에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도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재가교역자 양성의 주요 쟁점은 “전문성”과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핵심교화(의식·설교 등)와 훈련 등은 출가교역자가, 그 외 전문화된 기타 교화 영역을 재가교역자가 맡는 등, 역할 구분에 대한 방안이 거론되었다. 그럼으로써 교화의 대상이 교화의 주체로 전환되게 하여 출·재가간의 합력 구도로 이끌자는 것이다.

2. 원불교 교화의 중심은 무엇인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2. 원불교 교화의 중심은 무엇인가	2-1 교회단 운영과 활성	<p>1) 현재 재가교도 중심의 교회단은 신앙·수행 공동체로서의 기능보다는 조직관리와 운영에 목적으로 운영됨</p> <p>2) 「교당교회단규정」이 제정되어 있지만, 규정에 맞게 실제 운용되지 못함</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95. 재가교도가 바라보는 교단의 현실과 미래. 「세미르통신」 9호. 6p 교신입교도관리, 법회, 교서, 원로교도 평가 - 체계적인관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 / 8p - 교회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교회단의 방향에 대한 관점. 공부와 친목을 겸해야 80%</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교역자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58슬라이드 재가교도의 역할 확대방안: 원기2세기 거진출진의 역할 - 거진출진 교회단 정비 시행</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화구조개선 76p 원불교 교화의 핵심원리 교회단 조직과 훈련 2만5장 이후: 역할이해부족, 나면화 부족, 그러나 교회단에 대한 의식 전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다.</p> <p>④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훈련의 정체성과 활성화(훈련강화). 9p. 원불교 훈련의 활성화 방안 3) 정의의 역할 예회(정기 훈련)와 단회(상기 훈련) - 정기공부와 상시공부를 매개하는 역할 지도자의 자도를 통해 상시공부를 접목하는 역할 정기공부를 대체하는 역할 2. 교회단단과 훈련의 중요성 - 교회단 조직과 훈련법으로 교화의 핵심 축을 삼자.</p> <p>⑤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기102년 교단 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14p. 교회단 교회를 통한 교화 활성화 긍정도 교회단장신, 교회단 공동교화제, 항단과 저단 조직으로 전환 등 재가 70%이상 긍정적</p> <p>⑥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_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6. 교회단과 훈련으로 교화정책성획립 항목. 1기 평가 B -> 2기 평가 C -> 3기 평가 D. 하향 추세 중.</p>
	2-2 교도 정기훈련	<p>1) 훈련(1박2일)이 정기훈련의 본래 목적에 비통한 전문 공부로써가 아닌 법호수여 등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 인식으로 전락 - 훈련의 중요성 인식 부족-교당의 상시훈련과 결여</p> <p>2) 훈련원들의 접근성 취약에 따라 비쁜 일상의 교도들에게 시간 할애의 부담이 높아 훈련 참여 저조</p> <p>3) 법위별 훈련이 아닌 교당사정에 따른 전 교도 훈련으로 진행방법에 따라 훈련 의미가 소약</p> <p>4) 정기훈련 지도자 역량 배양 부족</p>	<p>①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_97.07. 12p. 종합분석-3)교회발전을 위한 10대 혁신과제 2위. 6. 미음공부 표준화 및 개발 보급</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화구조개선 23p 교당 교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법회개선 : 원불교 교법의 본질은 '훈련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회에 '경강' '감상담' 발표 '법의문답'을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훈련으로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불교 교법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화구조개선 76p 원불교 교화의 핵심원리 교회단 조직과 훈련</p>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p>2만단장 이후: 역할이 해부족, 내면화 부족, 그러나 교회단에 대한 의식 전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다. 파트너십의 필요성 등.</p> <p>④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년 원불교 훈련의 정체성과 활성화(훈련강화). 9p. 원불교 훈련의 활성화 방안</p> <p>3) 교당의 역할: 예회(정기훈련)와 단회(상시훈련) - 정기공부와 상시공부를 매기하는 역할, 지도인의 지도를 통해 상시공부를 점검하는 역할, 정기공부를 대체하는 역할</p> <p>2. 교회단단과 훈련의 중요성 - 교회단 조직과 훈련법으로 교회의 핵심 축을 삼자.</p> <p>⑤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3_교단 3대 말, 4대의 희망을 찾아서. 69p</p> <p>정기훈련법 과목별 전문프로그램 개발</p> <p>⑥원불교2세기 교회정체성을 말하다. 53p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기상시훈련</p>
2-3 교회단과 상시훈련		<p>1) 교회단을 통한 상시훈련 미정착 — 신앙·수행의 실천과 체험 공유 미흡</p> <p>2) 신앙·수행의 역할로 종교성 힘양 부족 — 종교적 공동체 의미 상실</p> <p>3) 비체계적 교회단 운영에 따른 상시훈련 실시의 미흡과 정기훈련과의 결여와 함께 단장·중앙 등 역량 리더의 배양 부족</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95). 이단차교 구현을 위한 제언 「4차 교회단 세미나 자료집」. 9-10p 「교회단 이념과 이단차교」</p> <p>- '상의하달 하의상달'이라는 소통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통차시스템(운영시스템)임을 시사</p> <p>- 정신종사도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나니, 주의는 일원주의요, 제도는 공회제요, 조직은 십인일단의 조직</p> <p>11p 이단차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단으로서 원불교를 통치 즉 관리운영한다는 의미와 단으로서 교단의 통치(=관리운영)와 교회사업을 전개한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p> <p>22p 교회단의 내실화에 집중. 핵심은 지도자의 역할에 있기 때문에, 단장·중앙의 교육과 훈련을 엄격히 진행하고 모든 단원의 「단장 중앙화」라는 지도인의 양상에 많은 공을 드려야 한다.</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년 원불교 훈련의 정체성과 활성화(훈련강화). 9p. 원불교 훈련의 활성화 방안</p> <p>3) 교당의 역할: 예회(정기훈련)와 단회(상시훈련) - 정기공부와 상시공부를 매기하는 역할, 지도인의 지도를 통해 상시공부를 점검하는 역할, 정기공부를 대체하는 역할</p> <p>2. 교회단단과 훈련의 중요성 - 교회단 조직과 훈련법으로 교회의 핵심 축을 삼자.</p> <p>③원불교2세기 교회정체성을 말하다. 53p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기상시훈련</p>
2-4 생애주기 재가교도 관리		<p>1)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생애주기적 교도 관리와 교화 필요</p> <p>2) 진정한 원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한다면 신도를 위한 교화는 등한시 되면 안됨</p> <p>①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_97.07. 12p. 종합분석-3) 교회별전을 위한 10대 혁신과제 1위. 28.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확충 2위. 6. 마음공부 표준화 및 개발 보급</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회구조개선. 23p 교당 교회를 위한 고지제와 제언 가족교회로 연계 : 가례설전, 부부상담소, 아버지교실, 3040법회</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3_교단 3대 말, 4대의 희망을 찾아서. 66p 생애주기별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 핵심과제</p>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대안 및 방안】

문제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2. 원불교 교회의 중심은 무엇인가	2-1 교회단 운영과 활성	*교회단의 조직 관련 정책 마련과 다양한 방안 모색(조직론 연구/교도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적용 등) *교회단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커뮤니티 활성화 시스템 마련(ex. 교회단 운영 앱 개발)과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 보조 방안 수립
	2-2 교도 정기훈련	*원불교 훈련 전체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지도자/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획일성과 다양성 논의) *상시훈련과의 연계
	2-3 교회단과 상시훈련	*교당의 훈련 도량화(1차 훈련 주력) *상시훈련을 위한 총체적 제반 시스템 마련(지도자 역량·단장중앙 및 재가교역자 등 역량 등 교육/교회단 운영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평가 등) *정기훈련과의 연계
	2-4 생애주기 재가교도 관리	*전 교도 입교여원(신입교도발굴)운동, 가족교운동 전개 *출·재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법무사정연계 *생활종교에 관한 교회 방안 필요

재가교도 또는 재가교역자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은 교당 중심의 교회단과 상시훈련, 그리고 교도정기훈련 간의 상호적 환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우선 교당에서 교회단을 통한 상시훈련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도간 신앙수행의 실천과 체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공동체로서 연대감과 소속감이 약해지며, 교회에 대한 근본적 의지가 약하게 되며 주변으로 확장해가는 적극적 교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영향으로 재가교역자 즉 단장, 중앙 등의 역량이 크지 못하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출가교역자가 교회단 중심 운영의 중요성을 의식화하여 교당 조직을 운영해야 하지만 교당 환경적 요소(교당 규모, 교무1인당 교도 관리 등)가 비표준화 된 원인으로 적용 범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도정기훈련에 있어서도 훈련원들의 접근성 취약과 재가교도들의 사회생활로 인해 훈련 시간 할애의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위별 훈련이 아니라 교당 사정에 따른 전 교도 훈련으로 진행함으로써 교도들의 사실적인 법위향상으로 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도자 역할을 해야 출가교역자들의 훈련지도 경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관리교도 뿐만 아니라 신입교도 발굴을 위한 교화 운동으로 생애주기적(세대별) 교도 교화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교화 방향이 생활화·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교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3. 교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3-1 법회문화 개선	1) 일요법회 의식과 설교 중심, 이에 따른 교당의 공간 구조 등의 획일화된 교화 방향 및 방법 문제점	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95. 재가교도가 바라보는 교단의 현실과 미래_「새미르통신」9호 6p 교당 분위기에 대한 일반적 평가 : 교당에 대한 욕구 - 아늑하고 편안한 수행공간의 필요(64.8%) ②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_97.07. 12p. 종합분석-3) 교회별전을 위한 10대 혁신과제 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 원불교 2세기와 교화구조개선 23p. 교당 교회를 위한 과제와 제언 3. 법회개선 : 힐링, 휴식 등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하다. 주제모임은 설법위주, 소모임 소그룹 훈련위주 변화 필요
	3-2	1) 교단의 인력수급과 교도 수 감소 문제로 교화의 선택과	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96. 교구자치와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교당 통폐합과 교화 활성화	<p>집중을 위한 근거리 약세교당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교무(교단)와 교도간의 합의 도출이 인됨(어려움)</p> <p>2) 교당 통폐합 문제를 위한 정획별 현안 분석 부족 또는 교단적 환경조사 시스템 비구축</p> <p>3) 교당 자체의 공간적 역할에 대한 지역적·전역적 활용과 한계 등 관련 연구 미흡</p>	<p>교회단지차의 조화를 위한 제언 「새마르통신」 23호 5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조직에서 저단 조직으로 / 교구 조직에서 <u>항단조직으로</u> : 사람중심의 새 교회단지차제 시행 제안. <p>②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96. 이단비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7차 교회단 세미나 자료집」 22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단 공동교화 사례발표 - 남원교당을 중심으로 5.교회단 공동교화의 성과. <p>(2) 교회하는 교회단으로 남원,보정,산동,수지,도통교당 교도들의 애경사를 쟁기고 기관을 통한 간접교화 활동 중</p> <p>③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 97.07. 12p.</p> <p>종합분석 3) 교회발전을 위한 10대 혁신제</p> <p>4위. 18. 교회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리 약세 교당 통폐합</p> <p>④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101_마라사다와 원불교 2세기 비전」 51p. 마라사다의 원불교 교회전략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의 필요 4) 크지만 작은 교당 200~500석 정도의 법당 크기, 기관과의 연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p> <p>⑤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102_원기102년 교단 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13p.</p> <p>교도수 30명 미만 교당은 교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긍정적(자가 75%, 출가 62.7%)</p>
	3-3 교화 패러다임 으로써 연구 활성화	<p>1) 교회다변화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의 준비 부족과 이를 둛빈침하기 위한 실천 교화의 비활성화</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95. 재가교도가 바라보는 교단의 현실과 미래 「새마르통신」 9호 6p</p> <p>교신입교도관리 법회, 교서, 원로교도 평가 - 상당수의 교도들이 교전의 한자어 아래에 어려움 2. 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101_마라사다와 원불교 2세기 비전」 57p. 마라사다의 원불교 교회전략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의 필요 5) 가정 중심의교당. 설교 VOD 서비스 : 다양한 상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p> <p>3.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 평가보고서 - (1)핵심제 7. 교화 대상자 중심 교화 1기 평가 B -> 2기 평가 C -> 3기 평가 C. 하향 추세 중.</p>

【대안 및 방안】

문제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3. 교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3-1 법회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회의 개념 재정립 및 다양화(일요예회 중심 탈피) 모색 *교당 구조의 다변화와 교당 개념 재정립 *개교당 중심의 교화 모델 탈피
	3-2 교당 통폐합과 교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 규정 및 복무 규칙 개정 필요 *통폐합할 지역의 티당성(환경)조사 수립과 연구 *법회, 관리에서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당 역할에 따른 교회활성화로 전환 *인근교당-지구교화-자기단체(4개단체)교화 등 복합적(통합적) 합력 교화 방안 모색
	3-3 교화 패러다임으로써 연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화 프로그램에 따른 실천교화의 다양한 연구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 및 개편 *신앙과 수행을 통한 의식주 얻는 과정의 교화 모습 제시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화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획일화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법회와 의식 중심의 교화 방법의 한계로 이해했다. 우선 교무 양성 교육과정에서 법회와 의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회현장에서도 일요예회 중심에 의한 출석 등이 젊은 교도 유입에 큰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교당 구조가 의식 위주의 공간과 교무들의 숙소 공간 등이 혼합되어 있어, 현재 종교 공간 개념으로서 교당 개념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지역 단위 교당의 개념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단의 인력수급과 교도수 감소에 따른 교당통폐합을 통한 교회방안도 모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가운데, 출가자들과 재가교도들 간의 입장차이가 대립하고 있었다. 예컨대 근거리 교당 통폐합을 교단에서는 실시하려고 하나, 소속된 교도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지역적·전역적 환경특성(교화규모—대도시·중도시·농어촌 등)조사를 실시해 좀 더 타당성 있는 규모 단위 교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교화프로그램에 따른 실천교학의 연구와 프로그램 그리고 행정 체계를 갖춰야 함을 제시했다.

4. 교화는 준비하는 것인가 대응하는 것인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4. 교화는 준비하는 것인가 대응하는 것인가	4-1 교화의 정책 계획과 행정	1) 교구의 교화 계획보다 교정원 교화 계획이 늦게 나옴에 따라 교화 계획의 영역이 대립하는 경우 발생, 교단 교회정책에 대한 비체계적 상황 전개됨	①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_97.07. 12p. 종합분석-3)교회발전을 위한 10대 혁신과제 5위. 5. 공부/소통/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회단 활성화 6위 25. 청소년 전담교무제 확대
	4-2 교회평가지표	1) 현재 교화의 평가지표가 「교당운영표준화」 등 기준이 있지만 법회출석 상황으로만 인식됨.	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미래사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_50p. 미래사대의 원불교 교회전략 새로운 교화 패러다임이 필요. 1) 시스템 변화 필요 : 지속되고 있는 3대 목표사업에 대한 시상학적 변화 필요, 교화구조개선에 특별 시상을 늘리면 파급효과 기대 가능.
	4-3 출·재가 정보 공유	1) 출가와 재가간의 커뮤니티 공유가 비활성화로 교단 구성원 사이의 소통의 부재	

【대안 및 방안】

문제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4. 교화는 준비하는 것인가 대응하는 것인가	4-1 교화의 정책 계획과 행정	*교단-교구-지구-교당의 교화 계획의 범위설정과 시행 사항 점검할 정책시스템 필요
	4-2 교회평가지표	*평가척도 개발(참고 표준도량수도, 교육, 훈련, 생산, 봉공 등)
	4-3 출·재가 정보 공유	*출·재가 간의 소통구조 마련(다양한 의견과 수용, 공식적인 커뮤니티 구축)

교화정책 또는 제도의 과정과 구성이 교단-교구-지구-교당까지 이르는 이해정도가 다르며 때론 교구의 계획과 교정원 계획 영역이 대립하는 등 많은 차이를 보일 때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책 입안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점과 교회전략의 획일화 또는 일관성 안착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앞선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점검할 평가척도의 부재 역시 문제로 보았다. 또한 「교당운영표준화」 기준이 있으며, 다양한 교화방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교 및 법회 출석만 중시된 상황에서 기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장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은 무엇보다 출·재가간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교단 구성원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해가야 함을 제안했다.

3) 원불교의 대사회와 세계화

【문제 정의】

- 지역사회와 교당의 역할에 관한 관계는 어떠한가
- 대사회 활동을 위한 준비는 갖추고 있는가
- 대사회 활동 분야는 무엇이 있는가
- 원불교의 세계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지역사회와 교당의 역할에 관한 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1. 지역 사회와 교당의 역할 관계는 어떠한가	1-1 지역사회 교당의 주체	1) 지역사회문제(고령화·소외계층 등) 해결 도모를 위해 교당과 교역자의 역할이 지대하지만 교당의 업무, 출가교역자의 역량 차이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	<p>①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96』, 이단치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7차 교회단 세미나 자료집」, 22p.</p> <p>- 교회단 공동교화 사례발표 - 남원교당을 중심으로 5.교회단 공동교화의 성과.</p> <p>(2) 교회하는 교회단으로 남원, 보정산동, 수지, 도통교당 교도들의 애경시를 쟁기고 기관을 통한 간접교화 활동 중</p>
	1-2 지역사회 문제의 인식	1) 현재 교회의 담보 상태에서 대사회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강함.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전무출신들의 인식의 둔화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회구조개선_23p 교당 교회를 위한 과제와 제언</p> <p>- 1. 지역사회 연계 : 대도시의 경우 어디까지 지역사회로 볼 것인지 아파하다. 행정동 안에도 다양성 존재하기 때문. 도시지역 복합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연합 활동 및 다양한 연구 및 시도가 필요하다.</p> <p>②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_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11. 마음인문학정립 마음인문학의 연구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음인문학의 패러다임 정립 및 사회적 확산</p>
	1-3 지역사회 의 요구	1)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사회단체에서 일정부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교당이 지역사회 활동의 동참과 지역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무리임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마래시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_58p. 미래시대의 원불교 교회전략</p> <p>4. 교회자 능력향상 프로그램 도입, 1)킬러컨텐츠의 부족 : 사회에 통용될 킬러 컨텐츠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p> <p>②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_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12. 마음공부 사회화 마음공부 지도자 양성, 청소년 인성교육 선도, 마음공부방 개설 확산</p>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대안 및 방안】

문제 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1. 지역 사회와 교당의 역할 관계는 어떠한가	1-1 지역사회 교회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 구성원 업무 역할 개선 *교구(지역사회 중심교회)와 교당(교당중심 교회) 간 역할 분담 *재가 교도 또는 지역전문인 활용
	1-2 지역사회 문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 전환(교육 및 프로그램) 모색 *지역사회 행사와 활동 등 적극적인 관심과 기여 방안 모색
	1-3 지역사회 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교회 개념 명확화 *지역사회 교회에 필요한 각 분야 특성화 개발과 자속 마련 모색(생애주기/인문 등 프로그램)

현재 지역사회 교회의 문제점은 지역사회교회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 요소가 발생하고 있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교당 교회 현장의 업무(행정, 법회, 의식 등) 과종, 빠른 변화 속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 지역사회에 따른 교당 규모와 교무 역량에 의한 지역사회 교회 활동 등이었다. 특히 교도 관리 교회에만 치중해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회 역량을 소진하고 있음에 각 교당이 지역사회 교회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관점 자체가 교당교회에만 머물수 밖에 없으며, 교무와 교도들은 소극적 교회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교회에 노력하고 있는 교당은 교역자가 그나마 2명인 경우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도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일환으로 교당에서의 종교적 여가 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교무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움을 들었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교회를 위한 인력 활용으로 지구간 협력, 교당별 특성화 팀제 시스템(청소년 교화, 노령층 담당, 문화프로그램 등)에 의한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교회에 지역 유지 역할과 성직자의 위치 등의 교무역할 등을 거론했다.

2. 대사회 활동을 위한 준비는 갖추고 있는가

문제 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2. 대사회 활동을 위한 준비는 갖추고 있는가	2-1 재가단체의 정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내 재가교역자와 재가 단체들의 임명이 중복되고, 재가 단체 활동 자체가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 영역과 겹침에 따라 그 의미의 중요성이 낮아짐 주체자(출·재가)들의 대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제한적 지식과 활동 경험 부족) 대사회 교회 활동 영역이 지역사회의 이바지이지만, 교회 현장의 활동은 교당 교도의 활동 해당 시향이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다름(교당교화 까지만/지역사회만 등) 재가 단체들과 단체 관련 시향이 교정원 또는 교단 행정으로써 그 범위와 활동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각 단체 활동 사업의 겹침 발생 재가단체 회원들 활동에 대한 치우 열악(ex.사업성적) 출·교역자 중심의 재가 단체 활동의 계획 수립과 업무 이행에 따라 수동적 활동 단체로 전락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회구조개선_23p 교당 교회를 위한 과제와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지역사회 연계 : 재가단체인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도 교단 내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래 설립취지대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전개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p>②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_평가보고서 -</p> <p>(1)핵심과제 14. 4대 봉공회 확산</p> <p>봉공활동의 활성화; 복지사업의 경쟁력강화</p> <p>15. 세계봉공재단 기반확립 - 지원확보, 전문역량강화, 단체간 네트워크 강화</p>
	2-2	1) 분산된 재가단체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네트워크 및	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교역자 인력수급에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재가단체 활용 및 관리의 인적·물적 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2) 교도수 감소에 따라 자연 재가단체 회원 감소, 이에 회원의 고령화와 젊은 미래 세대의 회원 유입이 어려워 인적 환류가 안되는 상황 3) 재가 단체의 활동 지원의 재정 확보 방안 필요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59슬라이드 재가교도의 역할 확대방안: 원기2세기 거진출진의 역할 -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교법의 사회화
	2-3 재가단체 역량(양성)교 육	1) 재가 단체의 교육 역량 교육 및 훈련 약화로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음 2) 원불교 교법의 보편성과 사회성 등의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함	
	2-4 재가단체 활동홍보	1) 재가 단체의 활동 전개와 범위에 대해 재가 교도들 사이에 공유가 잘 안됨 2) 단체명이 주는 이미지가 교법 실천의 사회화로써 활동 제약의 영향을 받음	①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 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9. 생명 환경 평화 통일 운동 생명사랑운동, 자연환경운동, 인권평화운동, 평화통일 운동 등 평가가 B0상. ②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 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16. 감사보은운동 생활속의 감사보은운동 전개

【대안 및 방안】

문제 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2. 대사회 활동을 위한 준비는 갖추고 있는가	2-1 재가단체의 정책성	*재가 단체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 교단·교구·교당의 정책 또는 지침 등 마련 *재가 교육자와 재가 단체 소속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재가 단체의 대사회 활동에 대한 정확한 역할 명시와 그에 따른 차우(사업성적) 등, 제도적 마련 또는 보완 필요 *재가 단체 활동 계획 수립은 재가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단은 이를 지원 방안 모색 *교단 정책에 기반한 교단>교구>교당의 재가단체 활동의 획일화와 평가 및 모니터링
	2-2 재가단체 활용 및 관리의 인적·물적 시스템	*재가 단체 종합관리(발굴/육성/교육(훈련)/연구/활용/평가) 시스템 또는 전담부서 설립, 재가 단체 대내외 통합 네트워크 구축 *재가단체 통합규정 제정 마련 *인적확보를 위한 참여 확대(ex. 청운회 부부 동반, 봉공회 남성 참여 등) *재가단체 활동 지원책과 재정(자금과 기초예산 확보) 마련 또는 투자
	2-3 재가단체 역량(양성) 교육	*재가단체장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과 각 단체 활동 목적에 부합한 시설 마련 *교학의 사회화(사회적 메시지) 관련 연구 확충(생명/통일/평화 등)
	2-4 재가단체 활동홍보	*교구 중심의 각 단체 간 유기적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 마련 *시대화·대중화를 표방할 수 있는 단체명 또는 활동 캠페인 적극 마련

교화연장선상에서 대사회 교화 활동까지의 일련 과정과 그 결과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이 교단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재가단체 인원의 인력 수급이다. 또한 교당 내부에서는 재가교역자들의 역할과 4개 단체에 소속 활동이 중복되어 그 의의가 불명확하며 특히 이미 많은 각종 사회단체가 전문적이며 광범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4대 단체 활동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당 역할에만 매몰되거나 대사회 활동이 저조함 등 원불교의 인식을 넓히는 데 한계를 낳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크게 재가 단체의 관리와 회원의 육성 및 지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활용 등으로 재가 자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반 사항으로 자체적 또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위한 권한의 제도적 마련(재가 단체장의 재가교역자 인정 검토 등), 인력과 재정 확보 및 투자, 활동에 대한 결과적 측면으로써 법위사정의 반영 등이 언급되었다. 무엇보다 교법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이에 맞는 활동 홍보와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3. 대사회 활동 분야는 무엇이 있는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3. 대사회 활동 분야는 무엇이 있는가	3-1 대사회운동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사회 운동이 자칫 교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기에 규모의 종교만 생각하는 경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2) 대사회 운동이라고 표방하지만, 교단 내부의 교화 활동만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도 있음 3) 교법과 사회진단(문제)의 간극을 어떻게 어디까지 메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측정 자체를 교단이 판단하고 있지 않음(연구 부족)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97. 원기197년 원불교사회여론조사 보고서. 10p '호감 갖는 종교의 이유. 원불교신자는 교리(33.3%)에 대한 신뢰 > 교인(33.3%) > 사회봉사에 대한 신뢰(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기196년에는 교리에 대한 응답만 보였으나 교인이나 사회봉사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p> <p>②. 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_97.07. 12p. 종합분석-3)교회별전을 위한 10대 혁신과제 9위. 56. 대사회 홍보 체계화 및 강화 10위. 57. 사회교화로 사회적 신뢰 확보</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107년(2022) 원불교사회여론조사보고서 원불교의 호감도(1.3%)으로 지난 제6차(원기104년) 조사 때와 비슷하였음. 이번 제7차 조사(원기107년)에서는 언론매체 30.5%, 건물 및 시설 25.5%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언론매체는 4.8% 증가, 건물 및 시설은 2.5% 감소함. 주목할 점은 건물/시설과 언론매체 외, 20·30대는 인터넷과 교과 관련 서적이, 40대~60대는 가족·지인의 경로가 차순위를 차지함. 특히 20대의 인터넷 경로가 .6%→14.0% 증가함</p>
	3-2 미래 변화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 구조의 대응 2) 탈종교화 시대의 영성 시대의 대응 3)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교화 패러다임 4)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5) 생명윤리 문제 6) 평화·통일문제(*군교화) 7) 디문화 문제 <p>등의 여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원론적인 답변 이외의 해법 제시는 못하고 있음</p>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97_원불교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 6p. "원100 혁신의 방향" 5. 교회와 디지털 문화의 결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밀할 것도 없이 지금의 시대의 도구는 디지털입니다.</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미래시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 9p. 미래시대의 전망과 원불교 비전 미래시대 전망 : 생활의 변화, 4차산업혁명, 개방과 협업, 세계정치지형의 변화, 자구온난화 등.</p> <p>③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2_원불교 2세기와 교회구조개선. 64p. 미래시대와 교회 다변화 전략 미래사회 특징 : 범지구화, 정보화, 문호화, 도시화. / 3. 교회 다변화 전략. 대상별 맞춤교회, 네트워크 중심교회, 사이버 문화교회;</p> <p>④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3_교단 3대 말, 4대의 희망을 찾아서. 68p 4차 산업혁명시대 교회 교육 자선 융합모델 개발, 통일시대 교회를 위한 TF팀 구성</p>
	3-3 마음공부와 대사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사회 운동으로서 마음공부의 정체성 확립이 부족하며 이를 위한 연구, 교육, 지도자, 기관 활용 등이 체계성을 갖추지 못함. 2) 교당, 교구, 단체 기관 등 개인에 이르기까지 마음공부 보편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3) 사회의 정신 질환 문제(자살, 우울증 등)와 종교보다 영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수행 콘텐츠(선, 명상 등) 문화 콘텐츠 부족 	<p>①교도회장단 의식조사 보고서_97.07. 12p. 종합분석-3)교회별전을 위한 10대 혁신과제 2위. 6. 마음공부 표준화 및 개발 보급</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1_미래시대와 원불교 2세기 비전. 21p "미래 시대의 종교 정체성"-종교를 넘어서 종교와 세속적 신비주의 22p.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출현한 종교성 / 28p.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개념 / 31p. 심층심리학</p>
	3-4 한국 사회의 원불교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4대 종단으로서의 입지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 2) 불교와의 관계로 정체성 모호 3) 한국 사회로부터의 인식 부족에 반해, 각종매체(언론, 서적, 온라인 등) 홍보 부족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97. 원기197년 원불교사회여론조사 보고서. 10p 3.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인지도는 원기195년과 원기196년과 비교 했을 때 큰</p>

		<p>4) 각종 사회단체 활동의 참여 부족과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량 부족</p> <p>4) 종교의 무관심 속 원불교의 사회적 활동 메시지 부족</p>	<p>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불교에 대해 '안대(조금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4.0%)가 여자(17.8%)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 젊은층의 인지도가 많이 높이졌다. / 지역별로는 전북(35.7%) > 광주(26.8%) > 대전(23.9%) > 서울(22.3%) > 경기(18.9%) > 부산(16.8%) > 대구(14.3%)의 순으로 원불교에 대해 '안대(조금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p> <p>2. 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0_원불교 100년 서울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51p '아웃종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천주교</p> <p>6) 천주교 언론 출판매체 : 9개 기관 운영 중.</p>
--	--	--	---

【대안 및 방안】

문제정의	구분	대안 및 방안
3. 대사회 활동 분야는 무엇이 있는가	3-1 대사회 운동의 정체성	<p>*교법의 사회화에 대해 이를 교단적 교화 측면을 넘어 사회와 통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 필요</p> <p>*사회문제와 교법의 제시 및 실천(활동) 범위간 간극을 여러 연구로써 검증 필요</p>
	3-2 미래 변화와 대응	<p>*교학의 보편화 또는 사회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가능 강화</p> <p>*사회 메시지를 통해 대사회 활동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등 개발</p>
	3-3 마음공부와 대사회 운동	<p>*원불교 마음공부 개념/방법(훈련)/시설 마련 등의 중심으로 체계화 속에 대사회 운동 전개 마련 필요</p> <p>*선·명상을 통한 원불교 수행의 보편성을 가진 프로그램 및 훈련 개발 및 시설 기반 확충</p>
	3-4 한국 사회의 원불교 인식 강화	<p>*원불교 브랜드화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홍보 매체를 통한 원불교 이해도 고취, 활용방안 연구 및 투자</p>

우선 대사회 운동이 원불교 교화 활동에 왜 필요한 것인지, 이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는 교세 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 이념의 보편적 이행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양분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대사회 운동의 방점이 규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의 질문과도 같다. 무엇보다 대사회문제의 관심에 대해 교단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인구·기후·세계 등 변화에 따라 교단의 대응 모색을 연구 및 교육과 논의, 적용까지의 전체적인 로드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교단의 육영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이나 총부의 연구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사례를 통한 연구의 공유의 미진함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운동의 방향성에서도 단순히 사회문제만을 가지고 운동하기보다는 교단 자체가 지닌 아이덴티티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관찰하여 극복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마음공부'라는 교단 브랜드를 통해 '영성·도덕·정신·생명' 등의 운동과 선·명상 등으로 승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기저에는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 원불교 인식 또는 입지의 약화와 무관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사회 운동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접근방식의 논의 쟁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의 접근방식이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방안으로 대사회 운동의 정체성과 함께 목표와 방향을 전체 계획을 명확히 할 것, 교법의 사회화 또는 보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 논의, 적용까지의 총체적인 시스템 필요, 한국사회에서 원불교 인식 강화로써 홍보 등을 위한 방안 강구이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4. 원불교의 세계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정의	구분	현재 문제의 영향 및 결과	참고자료
4. 원불교의 세계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1 세계화 인재육성	1) 원불교 세계화를 위해 미국 총부와 마주선학대학원의 교육 역량 재고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0_원불교 100년 서울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51p '이웃종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천주교'</p> <p>2.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소개 - '정의, 임무, 기구 운영 등)</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4_세계교화 경론과 마주자치교현_원불교의 세계화</p> <p>한국식 교회는 해외교회라 할 수 없다. 국제화는 교단적 현지화와 교역자 개개인의 창의적 활동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p> <p>성공적 국제화는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p> <p>마주총부의 지도체제(안) : 스승님의 경륜, 방향, 조직도, 구상과 권한, 지도체제 등.</p>
	4-2 세계교화 거점과 인재파견	1) 현재 세계 각국에 교역자들이 파견되어 교회에 힘을 쓰고 있으나, 교회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역량과 법력증진이 높은 교역자가 부족함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0_원불교 100년 서울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51p '이웃종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천주교'</p> <p>5) 해외선교, 교포사목 현황(2014년 기준) 75개국, 216명 파견신부, 762 수도자, 978 선교사, 156,924 한인소자</p> <p>②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 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8. 세계교화 기반 마련 1기 평가 B -> 2기 평가 C -> 3기 평가 B.</p>
	4-3 출·재가 정보 공유	1) 출가와 재가간의 커뮤니티 공유가 비활성화됨에 따라 교단 구성원 사이의 소통의 부재함 2) 국내 교당과 교도들이 생각하는 해외 교회의 이해도에 대한 상이한 점이 존재하며, 교단에서 제시한 해외 교회의 정책 사항이 교구나 교당까지 단절되어 있음	
	4-4 열린국제 문화대비	1)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관한 교회 정책 및 콘텐츠 부족	<p>①원불교정책연구소_원기104_세계교화 경론과 마주자치교현_원불교의 세계화: 14p</p> <p>세계성공회 동성애 문제로 교단 분열 위기</p> <p>②원불교정책연구소_107년(2022)_원불교사회여론조사보고서</p> <p>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가져야 할 사회활동은 여전히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61.9%)가 가장 높음. 추이를 보면 환경 및 생태운동과 통일/평화 운동은 지난 제6차(원기104년) 조사 때 보다 조금 증가했으나, 국제구호활동, 소수자 인권보호운동은 여전히 가장 낮은 응답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p> <p>③106_종합계획_교단3대3회3기 평가보고서 - (1)핵심과제 13.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과 국민 인류훈련</p> <p>국제 마음훈련원 건립은 평가 S,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평가 D</p>

원기 106년 미국 총부가 공식 출범되어 본격적인 세계교화 경론의 실현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국내 교회에서 원불교의 세계화는 여전히 관심과 공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내 교회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지 국내 교회 해결에 치중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과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 출재가간의 세계교화의 이해도가 상이하며 커뮤니티가 전무한 상태로 보았다.

다음으로 세계교화를 위한 인재 발굴/육성 등 관리의 종합적인 계획과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법력증진이 높은 교역자가 배양되지 못하고 파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교역자들이 많은 노력으로 교화를 하고 있지만 큰 효력과 파급은 얻지 못함을 언급했다.

이에 세계적 교화자에 대한 인재 배양과 육성 등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 국내와 국외 교화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축,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의 국내 교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국제교화에 대한 교감적 동질화에 대해 제안했다.

【대안 및 방안】

문제정의 4. 원불교의 세계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분	내용
	4-1 세계화 인재육성	*미국총부의 설립에 따른 미주산학대학원대학교의 운영과 교육 등 재고 및 검토
	4-2 세계교화 거점과 인재파견	*세계화를 위한 인재 배양의 연구/관리/배치 등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
	4-3 출·재가 정보 공유	*해외와 국내 교당 및 교화 활동 연결을 위한 시스템 또는 인식 교육 마련
	4-4 열린국제 문화대비	*다문화 중심을 위한 교화 정책과 콘텐츠 개발 및 연구

4) 교단적 가치와 발현 구조

1970년대 서구사회의 복지국가 실패 등 이후, 정부 역할 축소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지배원리가 발생했다.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효율성'이 우선적 가치로 여겨져 불평등, 양극화, 환경 파괴 등이 나타났고, 근대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사회문제의 인식에서 사회적경제가 재조명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사회문제는 특정 지역,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공통인식으로 촉발되었다.¹²⁾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의 사회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으로 물질적인 생산의 지표에 의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에 묶여 '평가와 성과'라는 두 축의 지배 속에, 이외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 '개인의 삶', '가치적 상호관계' 등은 구심에서 배제 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회적 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그 실천 노력으로 전환되어 공공 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 등은 사회적 책임과 법제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OECD, UN 등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가별 국민 삶의 질, 행복에 대해 여러 지표로 평가·발표했다.

'사회적 가치'란 '인간 삶의 질, 사회 평등 등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또는 '효율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와 성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정의한다.¹³⁾ 사회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가치의 확장은 사회문제가 경제에서 환경까지 포괄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전반의 삶과 직접적 연관되어 있다. 이에 사회문제 영역을 경제 중심에서 사회와 환경과의 조화로, 사회문제의 대상은 특정 또는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개인의 문제로 변화시키고 있다.¹⁴⁾

12) 고동현 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한울아카데미, 2016, p.14.

13)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규범적 접근에서 "사회적 가치는 인산 삶에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으로 정의하며, 다른 하나는 실증적 접근에서 외부성, 공공재 가치 재 등의 시장실패 요인으로 사회 필요량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동현 외, 위의 책, 한울아카데미, p.287).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 '교단적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교단적 가치'에 관한 정의를 제시한 바는 없었지만, 필자는 '교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소태산 대종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으로써 종교적 또는 이념적 가치이며, 또 하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조망된 사회로부터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 실천적 가치가 그것이다. 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원불교 개교 동기의 종교적 이념과 사회적 역할 기능에 관계함으로써 정신개벽의 낙원 세계 건설에 힘쓰고자 사회적·보편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교단 성장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교단 구성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3대 설계를 시작으로 교단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으로 실시되었다. 각 회의 설계 슬로건에서 보면 제1회는 "내실을 통한 교단성숙의 시기", 제2회는, "밖으로·미래로·사회로·세계로의 열린공동체 구현", 제3회는 "교법실현으로 온 생명 살리는 정신개벽 공동체"가 그것이다.

그러나 각 회의 『설계보고서』와 평가를 놓고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사항에 대해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생각할 때, 그동안 설계보고서와 평가가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성장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교단 발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개인을 포함한 각 구성원 등 장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단 발전을 어떤 생산의 총합지표 또는 추진지표로 측정함으로써 지표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서 교단 각 구성원(개인)과 교단(조직) 그리고 국가 사회 간, 상호 관계의 상황은 주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단적 가치로서 본 설계보고서는 무엇을 지향해 가야 할 것인가.

1) 개인과의 관계

우선 그동안의 『교단설계보고서』를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교단적 가치에 의한 교단 구성원의 '삶의 질'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출·재가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대해 어떻게 조명했는가이다. 다시 말해, 집단 차원의 가치에서 개인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교단적 가치로의 전환은 그동안 교단 발전의 성장 중심 가치에서 개인의 안녕과 행복의 가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삶의 질', 즉 안녕과 행복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축적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직면하는 도전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균형상태를 의미한다.¹⁴⁾ 따라서 개인의 행복은 다차원적인 인식으로 이뤄지며, 특히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출·재가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이 가질 기회의 범위와 그 안에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¹⁵⁾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교단과의 관계

보통 '사회의 질'은 개인 수준의 삶의 질과 대비되는 사회 수준의 관계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 또는 참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원심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발현되는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구심력 간에 상호 긴장이 되어 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될수록 사회의 질이 높아

14) 장용석 외,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문우성, 2018, p.20.

15) 이재열 외,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2014,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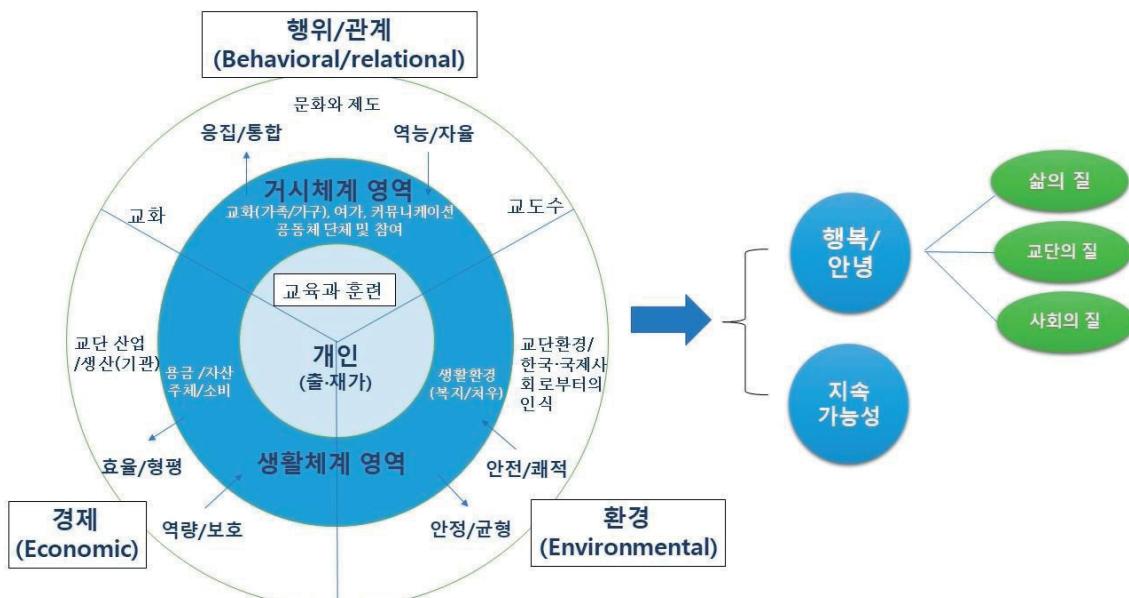
16)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 1933~)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역량에서 온다'고 했다(아마르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진다.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이처럼 출·재가의 삶을 개인이 영위한다고 하지만 교단의 질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출·재가의 행복도 증진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교단의 질이란 무엇인가. 이는 자기실현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즉, 출·재가들이 교단의 참여 실현을 통해 곧 교단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 즉, 출·재가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전체로서의 교단의 안정, 포용과 역량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미시)-교단구조(거시), 체계-교도 생활의 세계 간의 구분과 영향 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한국사회 더 나아가 국제사회 인식의 상호 작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결망(network)의 설정이다.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은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 건강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연결망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경로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경로¹⁸⁾이듯, 교단의 각 관계에 따른 연결망에 대한 설정을 통해 개인-교단, 체계-생활 등의 상호작용이 이뤄져 교단적 가치 요소와 구조가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교단적 가치의 발현 구조



*자료: 이희길, 「사회통계의 이해와 활용」, 통계개발원, 2017 중 '사회통계총괄프레임워크' 표 발췌 인용 및 수정

17) 이재열,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4-2, 2015, p.11.

사회의 질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경제적 안정성: 재정지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보건, 노동, 교육, ②사회적 응집성: 신뢰, 규범과 가치, 결사체적 참여, 정체성, ③사회적 포용성: 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사적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 ④사회적 역능성: 지식, 노동시장 참여, 개방성과 제도적 차원, 사적인 관계

18) 조병희 외, 『아픈사회를 넘어』, 21세기북스, 2018, p.261.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사회적 가치에서는 개인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는 타당하지 못하며, 삶의 질은 원하는 삶을 갖고자 할 때 누릴 기회의 범위와 그 안에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구조는 개인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전제로서 '사회의 안정', '포용'과 '역량'이 강조되며 사회의 질은 개인의 자기 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길항(拮抗)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¹⁹⁾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단적 가치 측면에서 앞서, '2.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 의제'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다. 먼저 출·재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검토이다.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에 대한 역할과 기능 등의 검토로써 정체성 확립, 전무출신의 생활·경제안정과 지원 점검, 거진출진의 교단 생활과 실생활의 관계, 구성원의 교화 만족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훈련'으로 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교무 교육부터 전무출신·거진출진에 적용되는 전(全)교육과 훈련에 대해 교단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음은 교단의 질로서 조직 자체에 관한 질이다. 전무출신의 인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적법한 모든 절차와 제도, 거진출진과 재가교역자 모든 단체와 그에 대한 활동의 각종 보장과 권한 등에 대해 검토하여 협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출·재가 삶의 질과 교단의 질은 결국 교법의 대사회운동과 세계화를 통해,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식의 안전과 교단 구성원의 안정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재가구성원-교단-한국사회의 관계는 결국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연결망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교단이 지향하는 행복과 안녕 즉 낙원세계 건설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 이재열 외, 앞의 책,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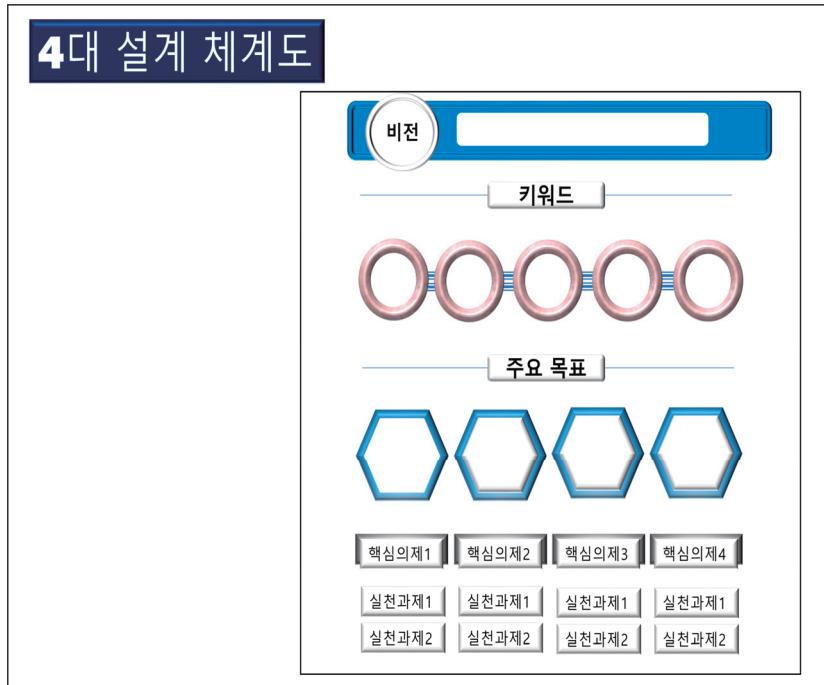


설계비전 수립(안)

4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교단 제3대 제2회』와 『교단 제3대 제3회 설계보고서』 중, '설계체계도'를 학습하고 이해한 가운데,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도에 맞는 비전과 키워드, 주요목표, 핵심의제(과제), 실천과제 선정에 관한 진행 여부를 파악했다.

<표-2 4대설계 (예비)체계도>



가. 설계비전 수립을 위한 준비 논의

1) 정의

비전 수립은 교단의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 목표와 현실을 연결하여 실천이 가능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방향로가 되기 때문이다. 제4대 제1회 설계의 비전 수립은 원불교의 이념과 설계 자체가 지닌 가치를 통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불교의 정신과 사회·시대의 가치를 담고자 했다.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2) 설계비전의 키워드 찾기

비전 수립에 앞서 설계특별위원회들은 설계에 담을 수 있는 원불교의 정신과 사회·시대의 가치 또는 그 이념으로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진행은 총 3단계로 이뤄졌는데, 1단계는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설계의 가치를 나름대로 나열해보는 것, 2단계는 키워드 제시했던 각 사항 중, 중첩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선정의 방향성을 논의해 보면서 그 의견을 공유하는 것, 3단계는 합의된 키워드 선정 방향에 맞게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에 도출된 사항을 주제별로 다시 논의하고 정리했다. 이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키워드 선정 1단계



①인류/공동체/보은실천은 인류 문제에 대한 국제적·사회적 실천과 기여와 생명과 살림에 대한 회복으로 인류공동체에서 바라본 온체의 인지 등을, ②평등/하나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평등세계와 일원세계의 관계, ③관계/연결/소통은 연대와 균형과 조화에 따른 운명공동체로 통합을, ④마음공부/삶은 마음공부를 통해 불법시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안정과 건강을, ⑤실천은 실제적인 교법실현 또는 실천을, ⑥훈련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기·상시훈련을, ⑦변화/전환은 시대화·대중화·생활화에 따른 교단문화와 열린과 혁신을, ⑧사람은 교단 전 구성원의 성불제종과 서원, 진급을, ⑨미래/희상은 과거로부터가 아닌 희망을 담은 미래와 세계화를, ⑩교법/정신은 개교동기와 창립정신으로의 회복 등을 언급하며 의견을 나눴다.

회복과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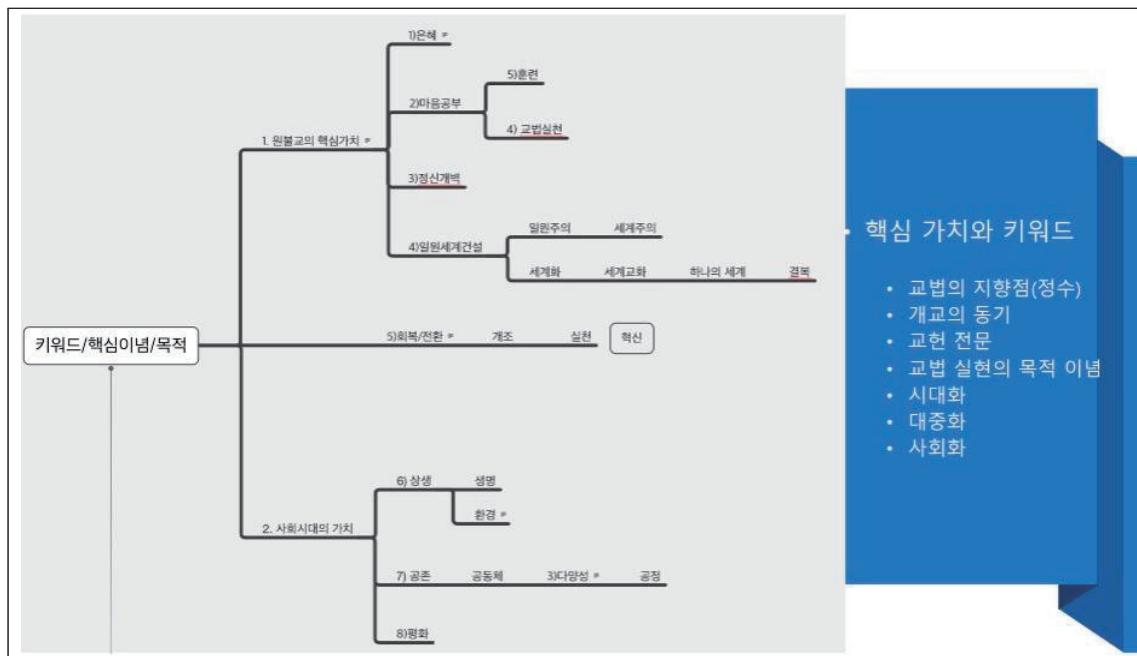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표-4> 키워드 선정 2단계



이를 중심으로 설계특별위원회에서는 키워드 선정의 방향성을 원불교의 핵심가치와 사회·시대의 가치로 나누고자 했다. 원불교의 핵심가치는 제4대 제1회 설계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으로서, 시대·사회의 핵심가치는 교법의 이념을 통해 시대와 사회로부터 현실구현을 위하는 것으로써 실천적·방법적·대안적 가치에 관한 사항이다.

<표-5> 키워드 선정 3단계



설계특위는 총 8개의 키워드로 '은혜, 마음공부, 정신개벽, 일원세계건설, 회복과 전환, 상생, 공존, 평화'를 선정했다. 논의 과정 중, 원불교의 핵심가치는 교법의 지향점 또는 정수로 「개교의 동기」와 「교현」 「전문」에 입각하여 창립정신·교법정신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되었으며, 사회·시대의 가치는 인류, 환경, 생명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관해 범인류의 공동체적 참여로서 종교의 실천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았다. 또한, 원불교의 핵심가치와 시대·사회 가치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제기된 '회복과 전환'에 대해 논의 후 선정했다.

또한 공산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겸 창작과 비평의 명예 편집인)에게 제4대 제1회 설계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에 관해 자문받았으며, 이에 큰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불교 키워드의 가치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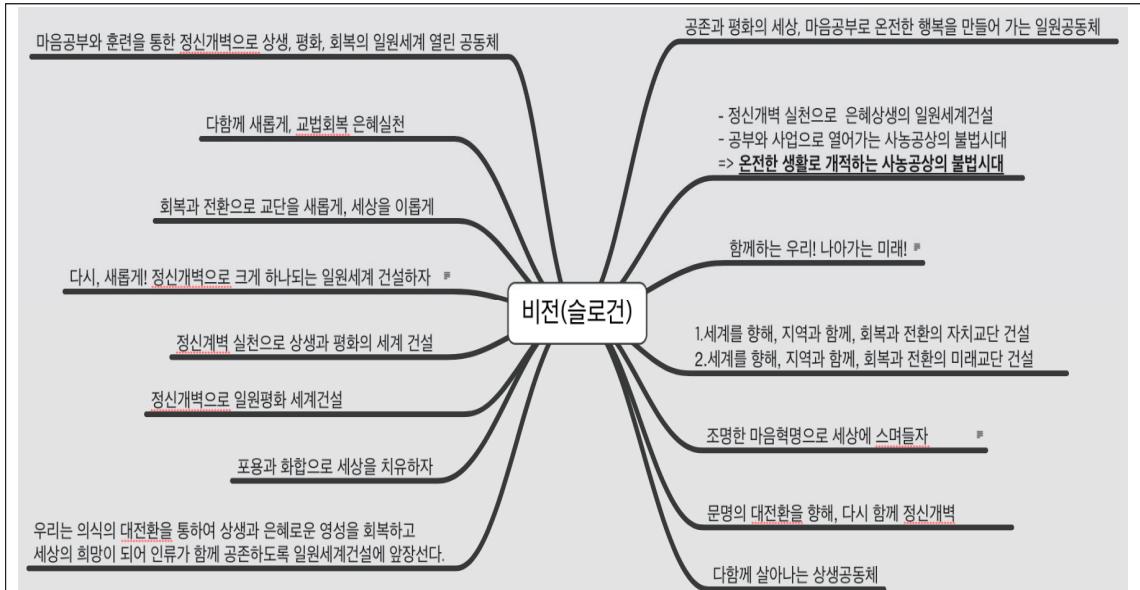
- = 핵심가치와 시대사회적 가치를 같이 담는 키워드가 舊불교와 큰 차이,
- 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 = 깨달음의 촉구 + 시대와 사회의 진단
- = 시대사회적 가치가 핵심가치의 부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음

2. 원불교만(독창성)의 키워드, 또는 그 의미를 담아 나타냈으면 좋겠음

3. 전환은 폭넓은 개념, 오히려 회복은 교단적 메시지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음. 공동체·상생·공존·평화는 같은 개념으로 해석됨. 상생은 원불교적 가치용어로서도 가능하며, 평화는 사회적 공감으로 제일 넓게 쓰일 수 있음.

이에 설계특위에서는 키워드를 줄이는 것과 '회복과 전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앞서 제시된 8개의 키워드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비전 슬로건에 대해 위원들이 나름대로 작성하고 이를 다시 논의하여 재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표-6> 슬로건 예비 논의



나. 설계비전 수립

설계특위는 비전수립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으며, 이에 관한 해설과 지침으로서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① 회복(교단과 사회의 ‘성찰과 치유’)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하시고 원불교를 여신 지 10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잊히고 퇴색할 수밖에 없는 교조의 근본정신을 돌아보고, 개교의 동기와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기본 교리에 바탕한 원불교 창립정신과 교법정신을 회복하여, 안으로 교단의 구성원들은 실다운 신앙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얻고 밖으로 인류 사회는 물론 모든 동포의 치유와 안정에 앞장서는 원불교로서 일원세계 건설의 역할을 다한다.

② 전환(교단과 사회의 ‘변화와 대응’)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류사의 거대한 변화를 통찰하시어, 이미 100여 년 전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어를 선포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종교 혁신 방안을 제시하시어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구현할 원불교를 창교하였다. 지금의 우리는 이와 같은 대종사의 창립정신과 교법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혁신과 전환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시대에 걸맞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하여 상생과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간다.

③ 교단을 새롭게(실천- 주요 목표와 핵심과제)

교단은 성장주의와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개교의 동기에 기초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탈종교적 사회문화 속에서 새로운 종교적 가치를 세워야 한다. 원불교 신앙과 수행으로 전 교도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생활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스승님과 교법의 가르침에 따라 전 교도가 동참하여 미래 변화에 도전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화 환경과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간다.

④ 세상을 이롭게(실천- 주요 목표와 핵심과제)

교단은 일원세계주의를 바탕으로 원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기반과 제도를 확충하여, 한국사회와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원불교적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일원상의 진리를 원칙으로 편향과 극단을 배제하고 공정과 중도의 심법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에 무아봉공의 자세로 임한다.

5

주요목표 수립(안)



1

주요목표 수립(안)

설계특위는 비전수립 이후,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전 구성원과 조직이 도달하기 위한 최종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다. 이는 제4대 제1회 설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원과 조직이 명확히 행해야만 하는 행동과 이에 따르는 동기부여, 그리고 평가까지 통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 등을 집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목표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 목표 설정의 원칙을 정하고 논의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성과를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적 변화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성과는 구성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둘째, 설계 진행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성과 결과를 통해 삶의 질적 변화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항인가?,

셋째, 설계수립 발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목표의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얼마나 지속가능 할 수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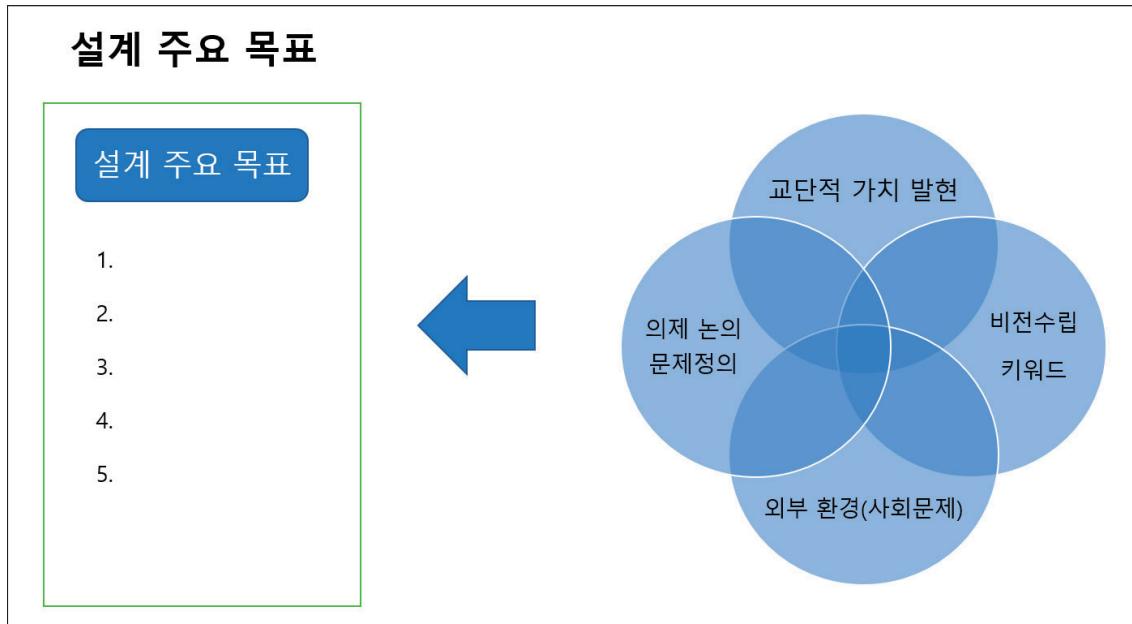
넷째, 목표달성을 위한 교단의 공헌과 기여는 무엇인가?, 공헌과 기여한다고 하는 점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다섯째, 의도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중요한가?

<표-7 주요목표 수립을 위한 논의 방향>

주요 목표 수립 논의를 위한 방향	
무엇[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계 수립 진행이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는가?어떠한 성과 즉, 삶의 질의 변화가 발생하는가?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이러한 성과는 수혜 대상자(구성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WHO]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계 진행의 수혜 대상은?성과를 통한 삶의 질의 변화를 체감하는 수혜대상자는 누구인가?이들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
얼마나[HOWMUCH]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계 수립에 따른 발생 수준은?어느 정도 수준의 성과가 발생하는가?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는가?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는가?이러한 변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공헌/기여 [CON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목표달성을 위한 교단의 추가적 공헌/기여는?원래 발생한 성과의 수준과 비교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헌과 기여는 얼마나 되는가?이러한 변화는 원래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리스크[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도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회/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가?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중요한가?성과의 창출이 얼마나 기대 수준보다 다를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중심으로 설계특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가지고 설계 주요 목표를 각자 제시했다.



<표-8 주요목표 수립을 위한 요소>

제3~5차 모임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전무출신의 정체성, 재가교도와 교화, 원불교의 대사회와 세계화)와 교단적 가치 발현(구성원-교단-사회·환경의 지속가능과 행복)과 비전수립을 위해 언급되었던 주요 키워드와 비전슬로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환경(한국사회문제)을 염두하고 미래 교단에 필요한 주요목표를 논의하였다. 이에 관련된 사항을 크게 다섯가지 주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법실천(신앙, 수행)-마음공부-훈련

구분	수단/도구	최종 목표
출가·재가 구성원 삶	1) 상시훈련과 정기훈련 2) 창립정신 계승 3) 세대, 집단, 지역별 마음공부의 다양화 4) 자기주도적 수행 적공(교리, 선, 명상 등) 5) 상시훈련의 생활화 6) 교법의 내재화, 사실적 훈련 7) 교법실천의 다양화 8) 교법실현, 창립정신 회복, 정신개벽 실현 9) 전무출신 정신 회복 10) 마음공부의 세계화 추구 11) 창립정신 회복	- 교법실천 확산 - 교리실천 - 국가, 세계 넘어(전인류적) 진급의 마음공부 - 치유, 위안 등의 종교로 거듭 - 일상의 훈련, 교법의 일상화 - 법인정신 회복과 교법정신 및 대승불교의 정신 실현 - 교법의 시대화, 대중화, 사회화 - 교회장체성 확립 - 교법정신 회복 - 세계주체교단 역할
-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인가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 교단(교회)공동체 구현

구분	수단/도구	최종 목표
교단의 운영과 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의 소통과 믿음의 참여, 함께 책임 2) 지자본위의 전문적 인재통합활용 3) 자가출가 교단, 사회, 세계 활동 역할 확대 4) 교회의 교구판체, 교구자치 중심교화 5) 미래형 교회모델 구축 6) 소통용(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업무 환경개선 7) 공동체 자치 중심의 지역특성과 교회모델 능동적 개발 및 실행 8) 교역자본굴 총력, 인사제도, 교단 재정마련과 교역자 생활제도 개선 9) 교구제 연구(일원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공동체 건설 - 공동·통합교화 공동체 - 자가출기가 함께 하는 일원세계 건설 - 교화구조개선 - 사대에 맞는 온라인 교회 환경 구축 - 공동체 자치권, 능동적 지역사회교화 - 자자교화 시스템 마련

3. 교법의 사회화와 운동

구분	수단/도구	최종 목표
교법의 기여와 공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상과 영성 문화 등의 수행과 신앙, 수행과 윤리도덕 결합된 실천적 정신가벽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2) 마음공부의 사회화, 감사생활의 은혜확산(심기)운동 3) 은혜봉공의 대사회적 활동 역량강화 4) 4대불공회 활성화와 교단 구성원의 공동체 차원의 지원 및 모델로서의 사회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과 수행이 결합된 실천적 정신가벽운동 전개 - 4대 종단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고취 - 대사회봉공(실천) -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법 모색과 모범제시

4. 세계교화거점개척

구분	수단/도구	최종 목표
글로벌(국제사회) 교단적 가치 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총부제도 정비 지원 아시아와 유럽권 교회 중점 및 세계적 인재 육성 2) 제3대 제3회의 계승 3) 미국총부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교화거점 개척 - 해외개척불사

5.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

구분	수단/도구	최종 목표
<p>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류와 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환경적 기반은 어디로 환류되는가 -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궁극적 가치 실현은 어디에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적 문제의 원불교적 해법 모색연구 활성화와 교단의 실천운동 2) 인류문제(코로나, 환경 등)에 대한 생명존중, 공존의식 3) 전인류문제의 관심과 실천 4) 전 지구적 현대사회와 인류, 지구의 모든 생명 위기에 대한 지혜와 실천 5) 환경문제 등 지속가능한 교화 방법(마음공부 프로그램) 6) 공조 상생을 위한 대환경, 봉공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환경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와 실천운동 - 상생의 세계건설 - 모든 생명체들 공존의 길 모색 - 전 지구적 위기와 도전에 응답하는 삼동윤리와 일원화상 - 지속가능한 교리(교법)과 실천의 종교로 거듭 - 천지보은의 교법실천과 세계환경 문제 해결

이와 같은 주제를 다시 논의 및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로 예비선정을 했으며, 설계특위에서 제시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주요목표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주요 목표 예비선정

주요목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앙과 수행으로 교법 정신 회복 2.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화구조의 대변화 3. 세계교화기반 확충 4. 원불교 정신에 바탕 한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5. (혁신위원회 주요 과제 중) <p>가) 교법정신 회복 교단의 전 교도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신앙·수행 체제 정립과 역량 강화 및 관리로 일상에서 교화단과 마음 공부로 삶이 변화하도록 실질적·활용적인 교법실천문화 정착.</p> <p>나) 교화구조의 대변화 미래 시대를 위해 자립적·자치적 교단 조직 및 교화구조의 개선과 미래형 교화환경 및 다양한 모델 구축과 제도 마련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화 인재 육성과 활용.</p> <p>다) 세계교화기반 확충 원불교의 세계화 정립으로 미국총부 안정화 및 유럽총부 출범의 도모와 세계교화거점 마련, 세계교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제 구축과 세계적 인재양성, 그리고 원불교학의 세계화와 열린 국제문화에 대비.</p> <p>라)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사회적·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원불교적 해법 제시와 이를 위한 인식강화로써 지속가능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각종 단체를 활용한 실천 운동 전개</p>

6

핵심의제【과제】수립(안)



1

핵심의제(과제)수립(안)

앞서 4~5개의 주요 목표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했다.

첫째, 구성원과 조직 그리고 교회·교육·자선 등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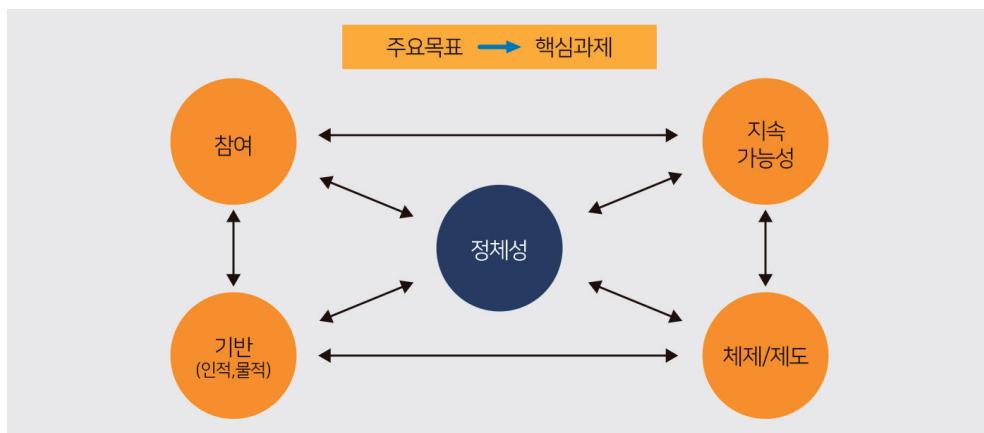
둘째, 교단 구성원이 교단의 참여에 어떻게, 무엇으로 이끌 것인가.

셋째, 교단 구성원을 위한 인적·물적기반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교단의 통치 속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체제와 제도는 어떻게 구축하는가.

다섯째, 교단적 가치(구성원 삶의 질, 교단의 질, 사회·환경의 질) 발현을 통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표-10> 주요목표와 핵심과제 논의 구조



특히 앞서 의제 선정을 위해 도출되었던 '문제정의'를 통해 핵심의제로 이어지는 개념하에 논의 구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목표에서 언급된 예비주요목표 사항을 함께 점검하여 주요목표와 핵심의제(과제)는 상하 변동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했다. 설계특위에서는 이점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의제를 선정하고자 했다.

<표-11> 핵심의제 도출 구조



제 4대
제 1회

설계특별위원회

1. 신앙과 수행으로 교법정신 회복

문제정의 중 관련사항	논의 사항	핵심의제의 예비 선정
1. 전무출신 정체성 2-1 예비교무교육 2-3 전무출신의 신앙수행점검	1) 정기·상시훈련의 정착화로 신앙 수행 정체성 확립 2) 정기·상시훈련의 강화 3) 상시훈련 실천 분위기 확산 4) 각자의 일 속에서 전개하는 정기상시훈련(공부의 요도 실천) 5) 정기·상시훈련의 생활화·체질화 6) 사실적 정기훈련 구축 7) 체계적 단계적 맞춤형 훈련 8) 신앙 수행의 내실화 9) 선·명상 수행 프로그램 개발 10) 전무출신 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재가 출기가 함께하는 회성공동체 실현 11) 전무출신 정신 계승 12) 출·재가 생애주기 관리 프로그램과 법유향상운동 13) 훈련과 교회단 재정비 14) 정신개벽운동 15) 교법정신 회복 및 실천 운동 16) 인생의 요도로서 사은 실천단 전개 17) 일원상 진리 신앙·수행 회복운동	1) 정기·상시훈련을 통한 신앙·수행의 정체성 확립 (수준별/세대별·생애주기별/집단별/지역별 실질적 훈련 문화 조성과 적용)
2. 재가교도와 교화 1-1 거진출진제도 2-1 교화단운영과 활성 2-2 교도정기훈련 2-3 교회단과 상시훈련	■ 재·출가의 삶과 질 -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인가	2) 훈련과 교화단 연계의 제반시스템 마련과 이를 통한 재·출가의 공동체 실현 3) 정신개벽·교법실천운동·법유향상운동 전개 4) 교육을 통한 체계적 인재 양성 및 관리 (예비교무, 재·출가)

2. 미래 변화에 대응(활용)하는 교회구조 대변화(전환)

문제정의 중 관련사항	논의 사항	핵심의제의 예비 선정
2. 재가교도와 교화 1-2 재가교역자의 활용 1-3 재가교역자의 양성 1-3 재가교역자의 양성 2-4 생애주기자기교도관리 3-1 법회문화개선 3-2 교당통폐합과 교회활성화 3-3 교회파라다임과 연구활성화	1) 열린교당 만들기 2) 교당개념과 기능 및 역할 재정립 3) 표준도량 형성 4) 교당의 지역사회 활동 장으로써 활용 5) 지역과 하나되는 교회 6) 문답·감정·훈련중심의 법회문화정착 7) 법회문화의 개인화 및 다양화 8) 미래시대의 교회 역할강화	1) 미래시대의 교회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역량 강화와 활용(관리) (각종 교회/훈련 정책과 프로그램, 콘텐츠 등)
■ 교단의 운영과 질 - 구성원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가 - 조직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어떤 구조화를 만들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9) 미래형 교회모델개발과 시스템구축 10) 온라인 교회환경구축과 교회 활성화 11) 지속가능한 교회실천시스템 형성 12) 청소년교회와 교립학교 강화를 통한 인재발굴 13) 미래교회를 위한 교회구조개선 14) 교구제 연구를 통한 자치교회 시스템 마련 15) 복합적·통합적 합력교회 방안 모색 16) 교회공동체 시행정착 17) 재가교역자양성과 활용 18) 재가교도 역할 증대 및 제도 정비	2) 미래시대의 교회를 위한 인재 양성과 활용 및 기관 마련 (연구자·개별자·실행자·지원(봉사)자 등의 인재 양성과 역할 확대) (재가교역자 양성과 활용 및 재가교도 역할증대, 제도 정비)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3. 세계교화기반 확충

문제정의 중 관련사항	논의 사항	핵심의제의 예비 선정
3.원불교의 대사회와 세계화 4-1 세계화의 주요성 4-2 세계교화가점과 인재파견 4-3 출재기정보공유 4-4 열린국제문화대비	1) 미국총부 독립운영을 위한 협력 2) 미국총부 행정기반 인정 도모 3) 해외(세계)교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4) 세계공동사장기적 5) 세계자치교단 마련 6) 세계교화가점기적과 인재양성 7) 원불교학의 세계화 8) 세계교화에 맞는 국가별 교회콘텐츠 개발 및 매뉴얼 9) 청소년활동의 대사회화-세계화 10) 열린국제문화대비와 다문화(가정)교회정책추진	1) 유럽총부출범과 세계교화 거점 (개척) 마련 2) 미국 총부안정화 및 정비- 행정, 제도 3) 세계교화 재정 기반 마련 4) 세계교화 인적 기반 마련 5) 세계교화 지원체제 마련 (교리 해설-컨텐츠등 개발 및 보급) 6) 일원주의 세계에 대한 비전 제시와 원불교학의 세계화 7) 일원주의 세계운동 전개와 실천 (종교UR, 심전계발훈련, 공동시장기적)
■ 글로벌(국제사회) 교단적 가치 실현 - 교단과 구성원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맥락에서 필요할까 - 일원세계건설의 현실 가능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4. 원불교 정신의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

구분	논의 사항	핵심의제의 예비 선정
3.원불교의 대사회와 세계화 3-1 대사회운동의 정체성 3-2 미래변화와 대응 3-3 마음공부와 대사회운동 3-4 한국시회의 원불교인식강화	1) 자구문제에 대한 원불교의 해법 2) 전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불교 교리적 해법·연구 활성화 3) 전 지구적문제의 교회의 세계적 보편화 4) 세계봉공회활동과 활성화 5) 은혜심기운동 6) 환경운동의 체계화 7) 지속가능한 환경보은 실천 8) 원불교 교리와 대사회 활동(환경운동) 9) 생명·환경·평화·통일운동 존개 10) 마음공부의 대사회화(운동)	1) 대사회적·전 지구적(인류) 문제 해결의 비전 제시와 인식강화 2) 대사회적·전 지구적(인류)문제의 해법 모색 연구 활성화 (원불교적 교리 해석 등) 3) 대사회적·전 지구적(인류) 문제의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모색 (콘텐츠-원불교적 신앙수행+윤리도덕 결합-일원의학 등 프로그램, 마음공부의 사회화 등) 4) 공존, 환경, 봉공, 천지보은, 은혜심기, 세상활동 등 등의 전개와 실천
■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류와 생명 - 생태적·환경적 기본은 어디로 환류되는가 -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의 궁극적 실현은 어디에 있는가		

주요목표와 핵심의제 논의 중 그 특징을 보면, 우선 주요목표에서 언급된 '교법실천(신앙, 수행)-마음공부-훈련'이 '신앙과 수행의 교법정신회복'으로, '교단(교화)공동체 구현'이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화구조의 대변화(전환)'으로, '세계교화거점개척'이 '세계교화기반 확충'으로, '교법의 사회화와 운동'과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가 '원불교 정신이 바탕한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다. 특히, 그동안 제3대 제1·2·3회 설계보고서에 의한 교단 발전 계획 중 반드시 계승해야 할 사항과 미래 변화에 따라 부각해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계승은 교단 전 구성원의 '신앙·수행 그리고 교화단을 통한 훈련강화'로 '창립정신과 교법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며, '일원주의·일원세계건설로 세계교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다음은 미래 변화로 의해 적응과 대응으로써, 시대에 맞는 교화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그동안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범지구적 문제 또는 범인류적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 실현이 그것이다. 이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원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가 미래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설계특위는 주요목표와 핵심의제 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설정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사항을 재분류와 구분하였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문제정의 구조에 따른 방안으로서의 명확화를 설정하고자 했다.



원기 108년 설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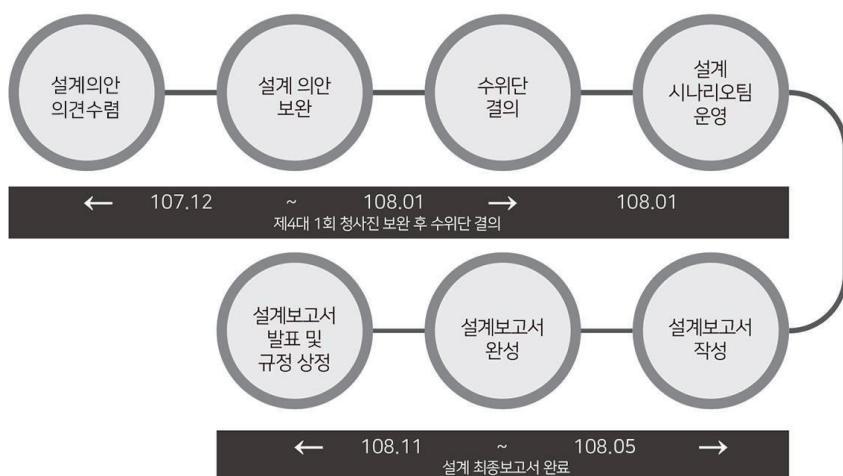
7



3단계

“설계시나리오 수립 단계(시나리오팀)”

■ 추진 과정



■ 추진 내용

- ▶ 1단계·2단계에 수합 정리된 핵심과제의 분야별 연구(액션 러닝)
- ▶ 설계 과제의 선택과 집중: 핵심과제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
- ▶ 정책 입안의 지속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추진 : 「규정」상정 계획

※ 최종보고 일정

- 108년 11월 총단회와 중앙교의회 등, 제4대 제1회 설계 공청 및 최종 보고
- 108년 11월 수위단회 『교단 제4대 전망과 제4대 제1회 설계 보고서』
채택안건의 상정 및 보고



설계특위, 미래세대에게 듣다

8



1. 활동 취지와 목적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이하 설계특위)에서는 다음 12년을 준비합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미래보다 함께 만드는 미래가 실현가능성이 더 높음. 또한 되도록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담기는 과정이 "공의"라는 '본의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됨.

'설계특위, 미래세대에게 묻다' 활동은, 교단 4대의 중요 세대인 3040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실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미래 계획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자는 것임. 설계특위에게는 교당-지구-교구의 현장감, 경험에서 오는 미래예측과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리라 예상함.

교구 및 교무님들께는 그간 조금은 동떨어졌던 설계자료→교정원정책→교구별교화정책 자료를 함께 보며 연결성 및 한계 개선점을 고민해보고, 각 교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환경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화 계획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임.

4대 설계와 관련하여 교구와의 연결점은 '교구자치' 또는 '교구자율'에 대한 부분임

2. 대상 : 14개 교구 소속 3040세대 교무

3. 소요시간 : 교구마다 별도 상의 (최소 1시간 30분 내외)

4. 활동 방식(교구상황에 맞춰서 진행 예정)

교구 청소년교화학교 시간 일부 할애 또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별도 시간

(1)사전 자료(영상 및 PDF파일) 제공 (2) 간담회 진행. (3) 설문지 링크로 세부 의견 수합

5. 간담회 질문 배경

- 1) 현장중심설계 - 현)설계특위 운영 주제와 동일시하여 위원들의 회의 및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놓고 내년 시나리오 작성에 참고할 예정
- 2) 미래세대의 교화 현장에 대한 감상 및 발전 가능성 모색
 - 설계특위의 큰 특징은 '미래세대'.
 - 미래의 주역이 미래를 직접 디자인을 해보자는 취지.
 - 현장경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
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단 자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교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배경도 있음.
- 3) "연결, 지속가능" 3대 설계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계자체가 교정원 중심으로 짜여짐.
그 결과, "수위단-교정원-교구-지구-교당"의 연결성에 한계를 보임. 이에 4대 설계는 교정원-교구-교당의 연계를 고민하자는 취지.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유연함과 자율이 필요하기에 교구자치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킴.

6. 경과보고

- (1) 원기 107년 9월 7일 경기인천교구
- (2) 원기 107년 9월 28일 부산울산교구
- (3) 원기 107년 10월 12일 서울교구
- (4) 원기 107년 10월 13일 경남교구
- (5) 원기 107년 10월 18일 전북교구
- (6) 원기 107년 10월 18일 강원교구
- (7) 원기 107년 12월 ~ 다른 교구와 협의 예정

7. 설문지 질문 내용

[전무출신정체성]

1-1. 현장을 경험하면서 과거를 되돌아 볼 때, 교학과-대학원 교육기간동안 현실적으로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교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논의사항

- 회계자료(자금보고서, 운영보고서) 읽는 법. 원티스 실전 업무.
- 교화방법. 주임교무님 관계법. 현장에서 도움되는 슈퍼바이저.
- 몸 공부. 당양한 자격증. (동양, 서양)철학. 실천정신.
- 교법에 대한 전문성. 대종사님 역사와 발자취 현장체험. 구인선진에 대한 이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불법의 대의 연구. 명확한 교리해석과 응용력을 키우는 것.
- 대학원 과정 크게 필요 없다 생각. 교학과 뒤에 바로 현장근무, 이후 대학원은 전문연구화. 현재 대학원 실천교학은 현실에 맞지 않음. 설교능력과 의식 진행능력.

1-2. 교무 호칭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논의사항

- 별다른 생각이 없었으나, 봉공직 전문직 교무님들의 생각이 궁금함. 그분들의 입장에 따르고 싶음. 생각이 없다.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긍정적.
- 주임교무 부교무도 교무로 호칭하면 좋겠다. 호칭의 구별은 중요치 않다고 본다.
- 어떤 부분에서는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1-3. 내가 생각하는 전무출신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만약 교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전무출신 역할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의 상식과 품위.- (개인의 서원이 아닌) 대종사님 서원, 전무출신의 도, 일원상의 진리로 정기 상시로 훈련하는 사람. 일과 준수. 청빈함. 강자약자진화상요법. 이소성대. 사무여한. 무아봉공의 정신. 불법을 주체삼아 성불제중을 위해 전력하는 사람. 공도자승배정신.- 출가교역자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전무출신 정신의 강조가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무출신의 도는 심계로 두고 교단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의미와 무게를 느끼게 해야 한다. 교단법과 규정의 강화는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인 부분이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될 것 같다. 사람이 정립되어야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해진다.- 전무출신의 본질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무출신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실천으로 공부해나가는 모습 필요. 연마하고 궁구하는 모습이 중요. 수직적 관계가 해결되어야 함.- 전무출신의 역할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 효율적인 사제도 필요. 순환인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순환인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숙소분리. 제도의 세부규정이 필요하다. 인사제도 전문성 필요. 쌍방향평가 필요.- 윗 교무님과의 관계가 직장상 하관계+가족+스승과제자 등 혼재되어 있어 MZ세대에는 어렵다.

[재가교도, 교회]

2-1. 현장에서 교구단위, 지구단위 또는 이웃교당과 연합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과정과 더불어 상황, 효과, 어려움, 아쉬움, 보완해야 할 점 등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임교무님의 인식변화와 배려가 필요함. 교당에서 법회보는 것만 중요하고 교회라 생각하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윗 교무님의 부정적 인식으로 활발히 하지 못하였다. '내교당주의'가 사라지면 더 활발해질 것 같다. 일반교화 보조 등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유지가 쉽지 않다.- 시너지효과는 긍정적이나 특정 교당에 일을 떠맡는 경우가 있어 업무분장이 잘되어야 한다. 소위 때우기식 연합법회는 지양해야 함. 정책적으로 인접교당끼리 묶어서 활동하면 좋겠음.- 연합교화도 질적향상이 필요하다. 실적 중심 활동을 지양해야 한다.- 행정상 나누어져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함께 묶어서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 창의적 교회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교당은 다니지 않지만 학생회 모임 등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2-2. 우리 교법에 담긴 지역교화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컨텐츠가 교당(지구, 교구)에서 시행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논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 교구에서 진행하는 '치음시데이', '해소명상'. - 마산의 경우 부마항쟁의 근원지로 천도재 등 지역이벤트가 있다. - 청년 청소년 활동. 마음공부의 사회화. 공개강의 할 수 있는 교무(유튜브 포함). 지자체와 연대 활동. 확실한 인지도 향상 필요. 지구 교구별 공동교화.
------------------	--

2-3. 현장에서 '재가교도의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한계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있다면 적어주세요.

논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도는 긍정적.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은 출재가를 떠나 있다고 생각함. 현재는 교무와 교도의 성향이 맞을 때는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 - 청소년교회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라 생각. 폭 넓은 교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기 위해 자치와 자율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함. - 실력적인 부분(교리, 교화, 훈련진행) 등은 더 노력 필요. - 현)봉공회 뿐 아니라 교도님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 재가교도를 무급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현재 재가교도 활용은 교육이 부족하고 의식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다. - 출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상을 없게 해야 한다.
------------------	---

[대사회화, 세계화]

3-1. 현재 소속된 교구의 장점, 특징, 교화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더불어 00교구에서는 이렇게 교화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울산교구 : 특유의 솔직함, 결속력, 끼 많음. 지구별 지리적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몇몇 지역 재개발 지역에 교당이 편입되어 있어 교화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 전북교구 : 후천개벽사상의 중심지, 지역교회에 힘써야 함. 연합교화 가능성. 청소년 특성화 교구. 가장 많은 전무출신. 모든 교무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원불교 기관이 많은 교구 중 하나다. 기관과 연계한 교화 가능성도 있다. - 경남교구 : 마음공부대학. 교구장배 탁구대회, 교리실천강연대회, 교구문화제 등 교구행사가 많아서 연합 활동이 활발함. 교구 훈련원 건립이 필요함(수요가 있음). 부마항쟁의 근원지로 지역 컨텐츠가 있다. 부산의 영향을 잘 받는다. 김해의 경우 교당간 거리가 매우 가깝다. 경상도 지역 복지시설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남해지역 관광자원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다. - 강원 : 교구와 각 교당간 품앗이에 최선을 다하는 중. 각 교당 상황에 맞는 교당 계획 세우도록 안내 중. - 경기인천교구 : 저출산 시대 속 인구 밀집지역.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 및 인구유입 1위. 신혼부부 및 어린 자녀 가구수 최대. 신도시 개발 중.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인구수 대비 교당 분포 비율 최저. 가족교화 가능성이 높다. - 서울교구 : 시니어 거점교당, 다문화 거점교당 등 다양한 교화지도 가능, 1인 인구의 증가,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많다. 교육 거점.
------------------	---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3-2. 세상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중앙 집중, 총부집중의 한가지 방향은 교회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바람직한 중앙총부-교구-지구-교당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는 독립적인 교구 교회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 정립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논의사항

- 지역마다 공동체 필요. 유기적 관계 서로 믿고 도와주는 관계.
- 총부는 총체적 관리. 교구에 살면서 교당 파견제(숙식은 교구에서 근무는 교당에서).
- 총부는 다양한 사업으로 탄탄한 재정. 깊은 연구로 다양한 자료 제공하여 서포트 역할,
- 교구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당을 지원하는 역할과 지자체 연결.
- 지역적 특성은 살리되 총부 중심의 중심축이 있으면 좋겠다. 일관성 속에 다양함이 있으면 좋겠다.
- 전무출신 개개인의 마음부터 살아나게 하자. 구성원들 챙겨야 세계화와 다양화가 가능하다.

3-3. 급격하게 '한류'가 세계 문화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첨단, 가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회 국가를 넘어 세계에 우리 법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원불교는 어떤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일반사람들이 통용될 용어로 바꿔 보면 무어라 말 할 수 있을까요?

논의사항

- | | |
|-------------------------------------|------------------|
| - 감사생활의 실효성. 아이들의 가치관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 - 포용과 변화무쌍함. |
| - 지역 외국인 유학생 교화 필요함. | - 대중사님 서품 말씀 |
| - 기후변화 환경문제, 영성, 마음공부 | - 마음을 알고 사용하는 것. |
| - 모든 진리의 교지를 통합 활용할 수 있다. | - 마음의 자유. |
| - 생활 속에 신앙수행하는 가르침을 알려준다. | - Won(e) low |
| - 원불교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 |

■ 기타

-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 힘이 빠진다.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좋겠다.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부터가 중요하다.
- 정책 및 활동에 변화되지 않고 반복됨에 피로감이 있다. 정책과 현장감의 거리감이 크다. 교무 활동에 교화자의 역할보다 교당관리자 역할이 더 크다. 인구분포에 따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 교회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 다양한 시도 자체가 필요하다. 길거리 교화. 세대 담당교무도 고려할만하다. '훈련'을 잊지 않아야 한다. 훈련=쉬지 못함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 한사람 한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정책적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여유가 필요하다.
- 혼자사는 교무님들도 청교협을 해야 한다.
- 교정원에서 전북교구와 활동하려는 실적성 활동에 피로감이 높다.

□ 메 모 □

무엇이나
한 가지를 짊고
십년
이십년
삼십년을 계속하면
무서운 造化力이
생기나니 

